



일자리로 만드는 세상

2003 ▶ 2013

함께일하는재단 10년사

이
로

일자리로 만드는 세상

2003 ▶ 2013
함께일하는재단 10년사

함께 일하는 사회



실업환경의 변화, 공익재단으로 새로운 출발

- 2000년 이후 구조화, 장기화되어가는 실업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설조직의 필요성을 고민해 오던 중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2003년 6월 노동부 인가 '공익재단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로 새롭게 출범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민간(평가, 운영)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국내 최초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기반의 사회적 자본시장 조성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1	2	3
	4	5
		6

1.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현판식
2. 2003년 6월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로의 재출범
3. 실업극복국민재단 전신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공동대표 3인
4.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후원의 밤
5. 재단 주최의 포럼
6. 재단 신사옥

2003~
2004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모델 확산

-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등장과 생계를 책임져 나가야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켰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일자리의 지속성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모델로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 및 임금지원-기업 기부 및 경영지원-NGO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설립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추진했다. 시민사회단체와 교보생명, SK, 포스코, 삼성 등의 민간 기업의 자원과 중앙·지방정부 정책, 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의 확산과 취약계층의 고용복지 증진을 이뤄냈고, 다자간 협력모델의 제도화(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를 이끌었다.



1	2	
	3	4
		5

1. 다자간 협력모델의 대표사업인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2.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발대식
3. 삼성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4. 신나는 문화학교의 문화예술교육사업
5. 포스코 사랑나눔 간병사업

2005



청년실업자 21년만에 최고치, ‘희망청’ 개설

-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청년취업자 수가 발표되면서 2006년 취업시장 최대뉴스는 단연 청년실업문제가 되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20대 청년 실업률이 7.2%로 전체 실업률(3.2%)의 두 배 이상이었으며, 20대 취업자 수가 월평균 407만 2천여 명에 그쳐 1995년의 502만 2천여 명에 비해 9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 재단은 취약한 지원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사회관계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을 위한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 ‘희망청’ 을 개소하였다. 이후 희망청은 노동부의 Job-cafe 설치 및 운영에 벤치마킹 모델로 채택되었다.



1	2	3
		4
		5

1.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 '희망청' 개소식
2. SK 결식이웃지원 행복도시락 사업
3. 재단 창립 3주년 기념행사
4. 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5. 포스코 사랑나눔 간병사업



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주목

- 과거,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한 제조업의 고용률이 1989년 28%에서 2006년 18%로 급격히 저하되고, 저출산·고령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도래로 사회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에서는 고용 친화적 산업육성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국정운영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발효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확대는 한국사회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재단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여성 및 고령자 등 잠재적 유향 인력의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정책연구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자리 창출과 서용사업



1	2
	3 4
	5 6

1.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위탁 운영사업
2.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사업
3. 정책연구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4.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을 위한 '세계희망경제프로젝트'
5. 풀뿌리시민운동사례 공모사업지원
6. 한국소셜벤처대회(SVCK) 후원

2007



IMF 외환위기 10년, 함께일하는재단으로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네트워크로의 역할 확대

-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실업극복국민재단은 함께일하는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2008년, 재단은 대표적인 민간 실업극복 모델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내실화, 비영리 부문 경영인력 양성 및 전문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 사회적 기업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국제 협력 사업의 확대를 통해 아시아 네트워크 형성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2008 Asian Social Entrepreneurs Summit)' 를 개최해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모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선진 해외사례의 확산을 주도하며, 사회적기업 아시아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함께일하는재단의 위상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1	2	3
	4	5
		6

1. 제회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대회
2. 함께일하는재단으로 명칭 변경
3.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사업 해외연수단 발대식
4. G마켓, Work Together 공모사업
5.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비전워크숍
6. 우수 사회적기업가 시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

- 한국사회에 다자간 협력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각종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최초로 실험해 왔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사업이 정책화되면서 재단은 전국적인 사업확산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에도 재단은 사회적기업 인력양성사업,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소셜벤처경연대회,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회적 자본형성 및 자금연계사업 등의 총괄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의 양적확산과 질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허브구축사업, 고용 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1	2	3
	4	6
	5	

1.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2. G마켓 사회적기업 유통지원사업
3. 강원 폐광지역 사회적기업설립사업
4. 문화재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 사회적기업 인증지원기관 위탁사업
6.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

2009



개인기부자 모금확대를 통한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

-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성금으로 설립된 전 국민적 모금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단은 2009년부터 SBS 희망TV를 통해 국내 대표 NGO들과 함께 공동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며 개인 기부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조성된 기금은 Light a Lamp 사업(국내) 및 Smile Together 사업(해외)을 통해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에 의하여 국내외 실직·빈곤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1	2	
	3	4
		5

1. SBS 희망TV 해외빈곤아동지원사업
2. 2010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3.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식
4. 'SK세상' 사회적기업 스쿨 위탁운영
5. 제2회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활동가대회 워크숍 세션 진행



2010



사회혁신 아이디어뱅크,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확대

-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셜벤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목적 달성의 측면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다. 재단은 2008년 G마켓 Work Together 청년소셜벤처 공모전을 시작으로, SVCK(한국소셜벤처대회)의 초창기 공동운영자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소셜벤처경연대회 총괄운영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오다 2009년 한국 최초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설립하여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2011년 본 사업이 정부정책화 되었고, 전국적인 확산 노력에 재단도 동참하여 양천구와 협력해 해누리타운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확대 개소하였다.



1	2	3
	4	5

1.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양천)센터 개소식
2. LG전자와 함께하는 녹색성장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3. Light a Lamp, 청소년 진로개발사업('송도가정'의 워크숍)
4. Smile Together Partnership
5. 함께일하는재단 창립 8주년 기념식



2011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

- 전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가 커지고 새로운 대안 에너지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에서는 친환경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Green Job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재단 또한 2008년,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강원도 폐광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설립사업을 시작으로 LG전자, 한화 등 민간기업과 함께 녹색의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



1	2
3	4

1.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워크샵
2.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행복충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3. 2012 SELF Asia with ASES 포럼
4. 한국중부발전과 함께하는 에코센터 명랑에너지발전소 준공

2012~
2013

함께일하는재단 10년,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앞선 발걸음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송 월 주

- 함께일하는재단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의 전신인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당시에 전개한 실업극복을 위한 모금운동은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에게 당장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자금과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요긴하게 지원되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작된 모금운동은 점차 전 국민을 뚝뚝 뭉치게 하였고,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 보자는 자신감으로 확대되어 결국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내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계승함과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업의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3년에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오늘날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며 제 3섹터인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며 사업을 추진해 온 재단의 역할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저변을 확대한 것은 지난 10년간 재단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분야의 가장 전문적인 민간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 현장과 정부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직접 수행해 왔으며, 그 사업적 노하우를 여러 기관에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성 있는 연구활동 및 교육, 강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담론 형성을 주도해 나갔으며 국내외를 망라한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사회적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공감시킨 재단의 노력은 사회적기업 육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케 하는데 일조하였고, 현장의 많은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탄생에 산파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은 다른 아시아국가의 주목을 이끌기에 충분하였고 2008년부터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를 주관하였던 것에 이어, 최근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을 한국에 유치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 세계에 몰아닥친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던 우리나라의 모범적 선례가 이어져, 사회적기업의 방식을 통해 변화된 고용복지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도 좋은 귀감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우리도 이것을 긍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년간 우리 재단이 걸어온 의미 있는 발걸음에 함께해 준 임직원뿐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가 품위 있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속가능한 사회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의 앞날에 축복과 희망의 미소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때 우리사회는 비로소 커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19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라 실업자가 150만 명에 이르는 실업대란, 국가위기가 닥쳤을 때, 온 국민의 한푼 두푼 성금을 모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후 2003년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재출범한 이래, 어느새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이 그 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지향해 나갈 목표를 담은 1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동안 함께일하는재단은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틈새 수요를 메워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많습니다. 이는 일할 능력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고, 일자리가 충분치 못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쉽게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경제 및 사회 환경이 변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처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힘겹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이나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지원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열정을 후원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 실천하는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비로소 효과가 커집니다.

論語에 “德不孤 必有隣”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듯, “함께 일한다”는 뜻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일하는재단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에 더욱더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10돌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송월주 이사장님과 함께하는 직원들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 o n t e n t s

함께일하는재단 10년사

일자리로 만드는 세상

화보

사진으로 보는 함께일하는재단 10년	002
발간사	
함께일하는재단 10년,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일궈내기 위한 앞선 발걸음 - 송월주 이사장	020
축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때 우리사회는 비로소 커집니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022

10년사

프롤로그 : 실업극복, 희망의 5년	
1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 - 실업극복국민운동 5년의 성격과 진화	028
제1부 (2003~2007) :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	
2화 항구적인 실업대책기구 필요하다 - 변화를 위한 준비	036
3화 "실업극복국민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 실업극복국민재단 출범 이야기	045
4화 다양한 실험의 시기 - 재단 설립, 새 사업을 시작하다	052
5화 둘 사이를 흐르던 참으로 긴 시간 - 갈등 구조, 다시 극복의 자리로	059
특별기고- ① 성한표 초대 상임이사	066
6화 문제는 망(網)이었다 - 지역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068
7화 우리 손으로 직접 일자리 만든다 - '자유공모사업'으로 실업극복 실천적 대안 모색	075
8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된 시민사회 -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 사회적일자리	080
9화 "나는 월급 받는 시인을 꿈꾼다" - 정부·대기업과 손잡고 행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085



제2부 (2008~2012) : 일자리 창출 날개를 달다

10화 대안경제의 해법을 찾아서 - '정책연구원' 개소와 의미 100

11화 사람을 먼저 키워라 -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 104

12화 드디어 통과된 '사회적기업육성법' - 새로운 법에 대한 기대 111

13화 사회적기업 지원의 허브 - 사회적기업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다 116

14화 '사회적 자본'의 형성 - 사회적기업 대부사업을 시작하다 125

특별기고- ② 인재웅 제2대 상임이사 130

15화 아시아의 사회적기업가, 함께 꿈꾸다 -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연대 132

16화 청년, 희망을 위한 작은 실험 - 청년 실업 네트워킹 위한 공간을 마련하다 139

17화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전도사 -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147

18화 새로운 얼굴로 제2의 도약 - 재단 명칭 변경과 CI 제작 155

19화 '사회적기업 설립의 명가(名家)' -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 사례 160

20화 현장에 나선 기업들 -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진화된 기업사회공헌 173

21화 기부,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기쁨 - 개인 모금 확대를 통한 배분 사업 182

특별기고- ③ 이광택 제3대 상임이사 190

에필로그 : 함께일하는재단 비전 좌담회

'품위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함께일하는재단의 역할 192

자료

연도별 사업현황 206

숫자로 보는 재단의 변화 214

연표 238

[프롤로그]

실업극복, 희망의 5년



●●●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소박한 국민적 운동이었다. 외환위기와 실업대란은 국민적 결집을 불러냈다. '국민적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의 이 운동은 몇몇 사람의 작은 생각에서 '사회적 큰 운동'으로 진화했다. 위기가 닥치면 일단 멍치고 보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을 이끌어나 힘을 합쳐 시대의 질곡을 헤쳐 나가보자는 생각이 그 발단이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 5년의 성격과 진화를 돌아본다.



제 1 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

실업극복국민운동 5년의 성격과 진화

외환위기와 실업대란은 국민적 결집을 불러냈다. 1998년 6월부터 시작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다소 파격적이면서도 독특한 발상에서 나온 운동이었다. 위기가 닥치면 일단 뭉치고 보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을 이끌어내 힘을 합쳐 시대의 질곡을 헤쳐 나가보자는 생각이 그 발단이었다.



외환위기가 부른 대량실업사태

1997년 11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 요청으로 귀결된 외환위기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 사태는 당시 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 발 들여놓은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제2의 국치(國恥)'라고 표현했다.

'경제의 신탁통치'라고도 불리는 구제 금융 조치는 특히 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구조조정과 감량 경영을 요구했다. 기아자동차, 해태, 진로 등 대기업들이 썩은 고목처럼 쓰러졌고, 고용이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의 임직원들도 '눈물의 감원'을 당해 길거리로 내몰렸다.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이 급등, 한때 달러당 3,2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수출로 먹고 살던 기업들은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환율 때문에 넋을 잃은 채, 아예 일손을 놓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와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석 달 만에 무려 3단계나 낮추어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IMF는 "금융 부실에서 시작된 사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금융권을 대폭 수술함으로써 위기를 치유할 수 있다."면서 은행의 대규모 합병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한국 금융권의 운명을 IMF에 맡겨버린 국민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었다.

'수술'은 신속하게 단행됐다. 은행권에 이어 5대 재벌의 빅딜과 구조조정이 곧바로 뒤따랐다. 30대 대기업들이 먼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곧이어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



갑작스레 닥친 'IMF외환위기'로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서울의 어느 공원 모습이다.

의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0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1998년 7월 말에는 그 수가 무려 165만 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대란’이라는 기사 제목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실업자들의 축 늘어진 어깨가 도처에서 넘실거렸다. 그동안 실업의 심각성을 몰랐던 사람들은 고도성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대량 실업 사태를 겪어본 적이 없던 정부도 기초생활 보장장치로서의 실업 대책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파격적 발상의 ‘실업극복국민운동’

외환위기와 실업대란은 국민적 결집을 불러냈다. 1998년 6월부터 시작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다소 파격적이면서도 독특한 발상에서 나온 운동이었다. 위기가 닥치면 일단 뭉치고 보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을 이끌어내 힘을 합쳐 시대의 질곡을 헤쳐 나가보자는 생각이 그 발단이었다.

상상은 기적을 일구어냈다.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애국심’(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이 전국을 뒤덮었다. 실업 성금의 행렬이 끊어질 줄 몰랐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싹, 이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선의(善意)를 보는 국민도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범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낸 ‘금 모으기운동’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계속 진화해갔다. ‘함께일하는재단’의 뿌리가 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량 실업 사태에서 겨우 살아남은 일부 근로자들이 부조(扶助)의 개념으로 모금한 성금도 쌓여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일자리를 잃고 떠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언젠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연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아픔과 안타까움’의 소산이었다.

대기업과 공공 기관 등에서도 거액을 쾌척, 짧은 기간 내에 1천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성금은 노동부의 제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넣어 운영하기로 했다. 성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공공 기관의 기금에 넣어 관리하되, 민간에서 선정된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다.

즉 민간의 지도자들(개신교 강원용 목사,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 불교 송월주 조계종 전 총무원장 등 3인 공동대표 / 문화방송 김성희 전무, 한겨레신문사 성한표 부사장, 경실련 유종성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대표 등 4인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사업을 주관하여 기금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운동은 교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재계 등 다양한 사회 조직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낸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간운동이었다. 또한, 이 운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민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민간 부문을 포괄적으로 망라하여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했던 것도 큰 강점이었다.

성공적 민간운동, 5년간 1,293억 모아

실업극복국민운동 5년의 성과는 어떠했을까? 1998년 6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이래 총 모금액은 200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모두 1,142억 1,300만 원이었고, 이자 수입 151억 100만 원을 합하여 총수입은 1,293억 1,400만 원에 달했다. 성금 기탁자는 개인과 단체를 합해 총 147만 9,000여 명에 이르렀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친 제안사업과 다섯 차례에 걸친 기획사업을 통해 생계비 지원사업, 겨울나기 지원사업, 상담사업, 취업 알선사업, 희망의 카드사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구제사업을 전개했다.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사업'에 전체 사용 성금 전체의 73%가 투입됐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일시적인 구호사업을 넘어 저학력·중고령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기획, 추진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극복운동 시민단체들을 독려하여 제안사업과 기획사업에 참여토록 하였다.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실업극복단체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실업극복운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들 실업극복단체는 2000년에는 전국에 실업극복지원센터가 100여 개, 건설무료취업알선센터가 30여 개에 달하는 등 크나큰 신장세를 나타냈다.

정부 손길 안 닿는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성금 모금과 재원관리, 사무국 유지와 인적·물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던 민관 협력관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성공적 운용의 이면에는 “표면적인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지적됐다. 정부의 실업 대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개선·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死角)지대는 여전히

히 남아있었다. 이것이 “민간 차원의 실업극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감대가 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제공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이 4년 차에 들어선 2001년, 공식적인 실업률은 4%로 떨어졌다. 실업 위기는 일단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 명예퇴직, 이름만 달리한 반강제적인 조기 퇴직 등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성을 띠게 되었다.

“실업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당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실업극복지원센터들은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 기간 중 단체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조만간 실업극복국민운동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원을 받는 처지인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실업 성금은 더욱 광범위해진 사각지대의 실업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현장의 실업극복지원센터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자발성, 헌신성, 운동성이 담보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2001년 3월 2일, 전국의 실업극복 관련 단체는 “지속적으로 실업극복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업 상황을 외면한 채 실업극복국민운동 조직을 해체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그들은 “실업 성금은 전액 실업극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변화된 실업 구조에 걸맞게 장기적 계획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민간단체의 의견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증언 >>>

당시 실업기금을 관리하고 있던 노동부에서는 정부 부처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부담스러워 했다. 민간 기구인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그 용처(用處)를 정해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바람이었다. 어디까지나 ‘국민 성금’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될 수는 없으니 430억 원에 가까운 잔여 기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열 _ 전 실업극복국민운동 실무기획단 기획위원

“실업극복운동 종료 후 새 방향 논의”

당시 전국적으로 모인 실업 성금 중에서 이미 지출한 금액과 집행 예정액을 제하고 남은 기금은 모두 427억 2,900만 원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해체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잔여 성금의 용도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주목한 것은 실업 문제의 본질이 경기적 실업에서 구조적 실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한 현실로 인해 ‘실업극복국민운동’이라는 종래의 조직이 계속 적합한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동안 실업극복운동 관련 단체뿐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들은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고, 실업극복국민운동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2003 ~2007

[제 1 부]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



●●● 공익재단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노동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새롭게 출범했다. 2003년 7월 1일에는 법인 등기를 마치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안국빌딩에서 입주식을 했다. 사무국을 정비한 후 본격적으로 '실업자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재단이 전파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일자리를 통한 나눔의 사회학'이었다. 실업으로 고통을 겪는 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제 2 화

항구적인 실업 대책 기구 필요하다

변화를 위한 준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출범은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 짙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초기, 실직자 가정에 대한 직접지원에 집중된 것은 그들의 생계 불안정이 바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은 “조만간 이 운동을 항구적인 실업 대책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출범은 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 짙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초기, 실직자 가정에 대한 생계 보조라는 직접 지원 방식에 집중한 것은 그들의 생계 불안정이 바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사회적 불안 해소'라는 일차적 사명은 '완수'했다. 만일 긴급 대응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라면 실업극복국민운동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명예롭게 해산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부터가 문제다. 조만간 이 운동을 항구적인 실업 대책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초기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업은 일시적인 구호 성격이 강했다. 더욱 적극적인 실업극복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실업 대책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사진은 노숙자 방한복 나누기(오른쪽)와 설맞이 먹거리 나누기(왼쪽)의 모습



시장 논리에 밀려난 실업자 도와야

공식 실업률은 떨어졌으나 고용의 질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50대의 장년 실업자, 재취업 가능성이 없는 장기 실업자, 실망 실업자나 취업 포기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운영위원회는 이 사각지대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문제를 정부의 정책틀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장 논리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종래의 시장적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업극복국민운동 운영위원들의 생각이었다.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공공 시설물 청소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같은 사회적일자리를 실업자들을 위한 영역으로 남겨둘 만한 '사회적 여유'가 필요한데,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추진 기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명분을 배경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당 위성을 찾게 되었다. 상시적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0년 10월 21일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신교 강원용 목사,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 불교 송월주 조계종 전 총무원장 등 3인의 공동위원장과 상임운영위원들 간 연석회의가 열렸다. 다섯 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큰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 단위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잔여성금 운용방향 정할 ‘특별소위원회’ 구성

강원용 목사와 송월주 전 총무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성한표 상임운영위원장, 김성희·지은희 공동운영위원장, 방극운 위원, 이석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7명이 특별소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신재면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과 최영선 사무차장은 각각 간사로 임명됐다.

특별소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마무리 시기를 정하는 일과 남은 성금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11월 6일 1차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도 실업성금과 그 용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실업성금이 별도로 구분, 계리(計理)되어 오기는 했지만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되어 운용되어온 만큼 실업성금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부터 분명하게 확인해야 했다.

노동부는 “실업 성금은 실업자를 위한 대책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특별소위원회의 구상은 잠시 중단되었다. 당초 특별소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비영리재단의 설립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별소위원회는 일단 ‘실직 가정 겨울나기 지원사업’ 등 실업자 지원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후속사업 추진할 ‘기획단’ 구성

재단법인의 설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듬해인 2001년 8월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실업극복국민운동 상임운영위원회와 특별소위원회의 연석 워크숍(설악산 한화콘도)에서였다.¹⁾

1) 워크숍에는 상임운영위원 9명과 전문위원 2명, 사무국 직원 12명 등 모두 23명이 참석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향후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자로 선정된 선한승 위원과 이수봉 위원, 이영환 위원 등 3인이 각각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대부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제시했다.



선한승, 이수봉, 이영환 상임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계속된 사업 논의에서 “국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영속적인 실업 대책 민간 기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실업 문제가 구조화됨에 따라 일과성이 아닌 영구적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상임운영위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단은 국민운동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고 향후 후속 작업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 대책 기구였다. 400억 원 이상의 잔여 성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과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기획단은 선한승 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김정열·신재면·이석태·이수봉·이영환·이정희 위원과 최영선 사무차장 등 모두 8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기획단은 2001년 8월부터 후속 기구 설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업무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방향 전환과 후속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획단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종료 시기 등을 감안, 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했고 노동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별도로 협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단 위원들은 각자의 소속과 전문 분야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후속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해외 사례 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벤치마킹 위해 해외 사례 조사 필요하다”

2011년 9월, “실업극복국민운동 후속사업 기획과 관련, 해외 사례를 조사한 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는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민간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연대금고와 같은 실업기금의 조성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시의적절했다. 조사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예비 조사는 물론, 방문국과의 연락도 철저하게 해두었다.

해외 출장 조사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2개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이루어졌다. 조사 1팀은 이영환, 남일삼, 신재면, 이수봉 위원과 실업극복국민운동 사무국의 조보현 지원팀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 프랑스와 스페인 2개국을 방문했다. 조사 2팀은 선한승, 강주희, 김정열 위원과 사무국의 명록이 차장 등 모두 4명으로 구성, 일본과 호주 2개국을 방문했다.

유럽으로 간 조사1팀

‘사회연대금고’ 모델 창출 …… 프랑스의 경우

조사1팀은 프랑스에서 ‘독립자영업자협회’라는 단체를 방문, 정부의 실업 정책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실업지원체계를 조사했다. 이 단체는 자영업자들이 보험 형태로 가입했다가 영업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재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보험의 형태를 이용한 자조(自助) 조직은 간접적으로 실업 대책의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공적 기금의 성격을 가진 ‘사회연대금고(France Active)’를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조사팀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연대금고의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 대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민관 연합의 대표적인 기금단체인 이 금고는 실업자 개인을 상대하지 않고 기업을 상대로 기금을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다. 조사팀은 특히 프랑스의 사회연대금고가 제도권 금융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롤모델로 삼고자 했다.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중점 …… 스페인의 경우

1팀은 스페인에서 3곳의 단체를 찾아 민간 실업 대책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선진시스템을 조사했다. 스페인의 민간 실업 대책 기구인 ‘거미네트(Red Arana)’를 방문하여 “실업이 확대되면 점진적으로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단체는 노동사회 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주로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실업자들을 심층 상담한 뒤 적절한 취업처를 소개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권고하는 방식이 돋보였다.

이처럼 실업 문제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전통적인 대응 방법은 ‘실업 보험과 실업 부조’를 주축으로 하면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래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실업급여 적용 범위 조정, 실업자 개별 상담과 관리 등 정책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각국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간 조사2팀

일본 …… 쓰레기 재활용사업도 민간에 이관

일본을 방문한 조사2팀은 한국의 노동연구원과 비슷한 기구인 ‘일본노동기구(JIL)’를 방문, 높아진 일본의 실업률(5.3%)에 대응하는 실업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은 당시 비영리단체인 NPO(Non Profit Organization)법을 만들어 그동안 정부가 하던 일을 이들 NPO

단체에게 넘기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하천관리사업이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이 대표적인 민간 이관사업이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일부를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간 사업이 많았다. 민간 이관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수익도 내고 있었다. 대신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목적 사업에 쓰도록 규정해 놓았다.

부러웠던 호주의 ‘센터링크(Center Link)’ 제도

2팀에서는 특히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센터링크’ 제도에 주목했다. 호주는 당시 OECD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센터링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부와 민간, NGO 등 다양한 기구들이 서로 경합해서 사업(프로젝트)을 수주하는 방식이었다. 정부의 영역을 민간에게도 오픈하여 상호 경쟁을 시킴으로써 민간 중에서도 정부의 사업을 탁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기관)를 선발, 사업을 맡기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별도의 연결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센터링크’ 제도다. 호주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인구 10만 명이 사는 지역이면 3~4개 정도의 센터링크가 들어섰다. 실업이나 이민자 문제, 질병, 주택 구입 문제 등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연결해주는 곳이다. 실업 문제도 개인별로 학력, 소득,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자연스럽게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국가 책임 주의’가 잘 되어있는 호주의 사례였지만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제도로 보였다.

증언 >>>

“일본,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아도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 성장이나 수익보다는 고용 창출을 통해 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이 같은 사회적기업이 많아서 이들만을 지원하는 대형 은행도 있다.”

김정열 _ 당시 조사2팀으로 일본·호주 조사에 참가



선진국 둘러보고 '사회적경제' 개념 제안

선진국을 둘러본 해외 조사팀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장기 실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시장경제 논리만 가지고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였다. 성장이 없으면 고용을 줄이는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기업의 경제 논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수팀은 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잔여기금을 넘길 것"을 제안했다. 애초부터 '사회적기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재단 설립 이후 초기부터 실업극복단체들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표방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재단 설립시 기금 이전하겠다"... 정부 동의 받아내

2002년 하반기, 운영위원들은 수시로 만나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종료와 잔여 성금 활용 방안을 협의했고, 그 의견을 종합하여 성한표 운영위원장이 강원용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향후 일정을 주도해 나갔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전환하여 잔여 성금의 관리와 운용,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으로 이미 의견이 모인 만큼 이제는 정부 측 동의만 받아내면 되는 문제였다.

이 무렵, 강 위원장과 이세중 변호사는 함께 노동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실업과 고용 문제는 외환위기가 아니라도 계속될 수 있으니 차제에 공익법인을 만들어 잔여기금을 의미 있게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이후 정부가 재단 설립을 지원하여 기금을 전액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이 문제는 매듭지어졌다.

민간의 실업운동은 단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선진 각국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3섹터의 고용 창출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연대금고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실업극복운동은 민간단체와 정부의 노력을 중계, 조율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명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조직의 '큰 틀' 논의

2002년 12월 18일 오후 1시, 서울 태평로의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기구 개편을 포함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운영위원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성한표 상임운영위원장과 신철영, 지은희 공동운영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사무국의 박현식 관리지원팀장과 명록이 차장(근로복지공단)이 배석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1998~2002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조직(재단)의 큰 틀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 총 모금액 중에서 잔액 427억 2,900만 원의 성금을 활용하여 실업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갈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일정과 그 준비에 관한 협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제 3 화

실업극복국민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실업극복국민재단 출범 이야기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장기적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일치된 이해를 통해 탄생했다. “품위 있는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무거운 사명감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순간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정신 계승, 새 기구 만들자”

2003년 1월 7일 개최된 제7차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기구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에는 강원용, 강영훈, 김수환, 김정태, 김중배, 노진귀, 성한표, 송월주, 신철영, 은방희, 이광택, 이세중, 이수봉, 지은희, 최학래 위원 등이 참여했다. 강원용 공동위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실무 추진 책임은 성한표 상임운영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1월 16일 열린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는 ‘제2기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성한표, 신철영, 지은희, 이광택, 이수봉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위원회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한 정관 및 사업계획안 마련, 잔여성금 이관 방안 및 출연문제 검토, 법인 명칭 및 운영위원회안 마련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2개월 후인 3월 27일,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 석류실에서 성한표 상임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창립총회’가 개최했다. 임시 의장은 강원용 추진위원장이 맡고, 임시서기에는 이광택 위원이 추대됐다.

증언 >>>

강원용 위원장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와 ‘실업극복국민운동’을 모두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도 원활했고, 재단 설립과정에서 노동부장관(당시 김대중 정부의 방용석 장관부터 노무현 정부의 권기홍 장관까지)과 함께 일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그러다 보니 학계 인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신 듯했다. 결국 재단 초기부터 이사와 운영위원, 정책연구위원으로 참여, 다양한 일을 했다. 재단 출범을 준비할 무렵, 법률적인 문제와 기구조직 등을 정리하고 기초를 다졌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했고, 사업과 기금의 배정을 맡았으며, 세부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광택 _ 전 상임이사/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창립총회에서는 2월 17일에 개최된 제2차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정관초안이 이광택 위원의 보고 후 위원들의 동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이어서 소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실업관련 대표자 11인이 운영이사로 추천되어 선출됐다.²⁾

2) P50,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초대 이사회 표 참조

‘실업극복국민운동’ 해산하고 잔여성금 출연키로

4월 1일 열린 제8차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해산과 잔여 실업성금의 새 공익법인 출연을 결의했다. 이를 후인 4월 3일, 제 8차 위원회 결의사항인 잔여성금의 새 공익법인 출연 요청 공문을 노동부에 보냈다. 노동부는 4월 29일,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 “잔여 실업 성금을 신설법인의 등기 시 출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재단은 5월 15일 설립허가 신청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 6월 23일 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 허가를 받았다.



증 언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손발이 되었던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의 간사를 하던 중, 재단에서 “민간단체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운영해주었으면 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3년 7월부터 사무처장직을 맡아 자활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YMCA에서 일하던 문 열 씨, 그리고 안산에서 노동 탁아 활동을 하다가 이화여대 복지관으로 옮겨서 자활지원 관련 업무를 하던 이은애 씨 등이 초창기에 선발된 직원들이다. 그중 이은애 씨는 원래 민간운동의 운영과 기획에 밝은 사람이었다. 사무국장은 한겨레신문 오상석 기자가 맡았다.

김홍일 _ 초대 사무처장/대한성공회 서울대학교구 신부

이로써 장기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일치된 이해를 통해 최초의 실업 분야 공익재단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 사회'가 탄생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강원용 목사가 선임되었고, 전 국민적 차원

으로 전개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취지를 살려 14인의 각계 주요 인사들을 골고루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8명의 사무국 실무자와 함께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설립취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품위 있는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무거운 사명감이 세상을 향해 엄숙히 선포되는 순간이었다.

설립취지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해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기이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실업성금을 모으고 금불이를 모으는 등 전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전 국민의 참여 속에 민관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하나 된 마음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조화된 실업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빈곤의 양상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국민운동의 전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국민참여의 민간운동으로 변화,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갈 것입니다.

정부정책방향과 부합하되 사업영역의 중복은 가능한 피할 것입니다. 국민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대상의 특성상 정부정책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실업자,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 가치를 국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활동들을 해갈 것입니다.

실업자 지원사업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저소득층 청년실업해소사업, 사회적 연대인식 고취를 위한 각종 캠페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빈곤 및 사회적 배제로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을 여론화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나눔의 가치와 공동체성 문화를 국민의식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들을 사회통합운동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합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출범



이로써 공익재단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노동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새롭게 출범했다. 2003년 7월 1일에는 법인 등기를 마치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안국빌딩에서 입주식을 했다. 사무국을 정비한 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업자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7월 31일 열린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제3차 이사회에서는 2003년 사업 계획과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2003년도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의 계획, 예산, 법인 재원 운용 등을 논의했다. 재단은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질적으로 악화되는 실업 상황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민간 실업운동을 주도하기로 했다. 재단이 추구해야 할 사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와 국민의식 발전을 위한 사업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빈곤과 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연대의식을 지향한다.

민관 협력의 전형을 창출하는 사업

실업극복사업은 민관 협력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이며, 정부와 민간의 실업 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취약계층을 초점으로 하는 운동

재단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계층은 40~50대 장기 실직자, 청년 실업자, 불안정 고용층,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를 연결하는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공공의 지원과 제3 섹터의 활력을 결합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된다.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역점을 두었던 실직가정 생활안정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정책의 확대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의 사회적일자리 제공 경험을 살려 나가면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민간 실업극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실업극복지원센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중고령 장기실직자 등 취업곤란 계층에 대한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 및 종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지역센터들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협력단체로 육성한다.

전문적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는 조사 연구사업

취약계층의 실업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 심층 추적 상담 연구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전문컨설팅 프로그램, 민간 실업극복 전문 인력 육성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조직과 행정 및 재무구조의 정비

조직은 대표성 있는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단이나 법인 형식의 지속 가능한 사업체 형성을 추구한다. 재정은 잔여 성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부의 실업극복사업 일부를 위탁받거나, 독자적 모금 구조 창출을 모색한다. 행정은 현재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사무 기능을 총괄지원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가급적 독자적인 사무행정체계를 확립한다.

공익재단을 이끄는 사람들

공익재단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인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을 비롯하여 노동계와 경영계를 포함한 주요 시민단체와 여성계, 학계 등 각계 대표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재단의 정책이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는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며, 사무처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조직으로서 재정총무팀, 기획개발팀, 사업지원팀, 홍보팀, 정책실 등 4팀 1실로 구성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초대이사회

성명	직책	당시 소속
강원용	이사장	•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전) • 평화포럼 이사장
성한표	상임이사	• 한겨레신문사 부사장
고희범	이사	•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강영훈	이사	• 국무총리(전)
송월주	이사	• 조계종 총무원장(전)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경숙	이사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광택	이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금희	이사	• 문화방송 대표이사
이세중	이사	• 대한변협회장(전) • (재)환경재단 이사장
은방희	이사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기산	이사	• 천주교 인천교구장
강지원	감사	• 변호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전)
이정희	감사	• 회계사 • 딜로이트투쉬회계법인 전무

초대 운영위원회

성명	당시 소속	성명	당시 소속
성한표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용철	문화방송 전무이사	이수봉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안정센터 소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조준모	송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인규	전북 실업자종합지원센터장
신명호	한국도시연구소 부소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황주석	YMCA 전국연맹 대외협력국장
오귀환	인터넷한겨레 상임고문		



제 4 화

다양한 실험의 시기

재단 설립, 새 사업을 시작하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가 가장 우선한 일은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와 국민의식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의 지향'이었다. 재단이 사회적일자리에 집중한 것은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공익성을 갖는 일자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도 실업극복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됐다. 지역사회의 민간 안전망과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해 1998년부터 줄곧 지원해 온 ‘전국실업자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2003년 하반기, 재단의 총예산 27억 원 중에서 20억 원 이상이 전국실업자지원센터 지원금으로 나가는 구조만 봐도 사실상 초창기 재단의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기도 했다.

일부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보자.”는 견해가 처음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이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 자본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도 나와 별도의 기금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재단 설립 후 첫 1~2년은 가능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일종의 ‘실험기’였다.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가 절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도 변화하는 실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민간 실업극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와 국민 의식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의 지향’이었다.

불안정한 고용의 증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취약계층의 빈곤과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연대의식을 지향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재단은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재단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계층은 40~50대 장기 실직자, 청년 실업자, 불안정 고용,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표면적인 실업률 하락과 정부의 실업 대책에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취약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들의 문제는 다양한 요소가 얽혀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를 연결하는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했다. 특히 공공의 지원과 제3 섹터의 활력을 결합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소위 ‘품위 있는 노동’을 위해 실업 문제의 양적·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다시 실업극복의 현장으로…… 공익 캠페인과 모금

재단은 2003년 11월 21일, 문화방송(MBC)과 공동 주관으로 희망 기금 릴레이 캠페인 <실업극복 희망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단 설립 이후 처음 갖는 대중적 행사였으며 정부와 언론, 기업, 각종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준 가운데 실업극복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이어진 행사로 이날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후원의 밤 행사에는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서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최기산 천주교 인천교구장, 한승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고희범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이세중 변호사, 이광택 국민대 교수,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지원 집중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취약계층의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문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을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공익성을 갖는 사회적일 자리를 개발·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재단이 사회적일 자리를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배경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함께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금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재단에서는 각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체 중 일자리 창출 규모, 사업 준비의 정도, 사업 성공 가능성을 기준으로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 방식(용자 또는 무상 지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여부를 결정

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용자 관리와 경영컨설팅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사회연대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나 혹은 이를 추진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모두 3억 2,400만 원을 지원했다(2003년 11월 기준). 노동부와 연계한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참여했다. 총 지원금액은 1억 4,900여만 원에 달했고, 모두 28개 수행 기관에서 장기 실직자 34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그 밖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 연구사업’도 병행했다.³⁾

지역특화사업에도 사업기금 지원

재단은 그 밖에도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부천시, 전라북도, 서울시 노원구 등 모두 3개의 실업지원센터에 사업기금을 지원했다. 사업은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공동체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실직빈곤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노동시장을 조사, 해당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극복을 위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도 재단의 역할 중 하나였다. 사진은 '실업·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에서의 강원용 이사장

3) '사업과 빈곤, 소득 분배 실태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연구자 : 노대명, 황덕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연구자 : 이수봉),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재단의 활동 목표와 활동 계획'(연구자 : 오상석, 이은애) 등이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사업이었다.

이와 함께 노인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는 2곳의 노인인력지원단체(서울시 종로구, 강남구)에 각각 사업기금을 지원했다. 고령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감과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숲 생태 해설가’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분야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단은 이 밖에도 노동부와 연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8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다. 방과 후 아동 보호사업, 장애통합도우미 지원사업, 케어복지 등이 그것인데, 이들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 안정적인 사회적일자리로 제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을 시행한 것은 중년의 여성노동인력계층에 큰 인기를 끌었다. 사업 규모도 여타 업종과 비교할 때 큰 편이어서, 서울(30명), 대전(10명), 광주(10명), 대구(10명), 부산(10명) 등 모두 5개 지역에서 70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여성 노동 인력에게 간병인 전문교육을 시킨 후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 배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병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연대기구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 에도 참여

과거와 달리 실업 상황이 점차 인구 집단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어감에 따라 계층별 실업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 대책은 민간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 정책을 수립할 때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필요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집해 내기 위해 민간이 주축이 되는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결성한 연대기구로서 재단도 참여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식과 모델을 논의하고 실제사업을 통해 정착시키며 실업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활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의 사업 목적과도 일치했다. 또 소외 계층을 배려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실업을 개인의 능력이나 경기 변동과는 별개로 해결해 내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했다. 2004년 6월 14일 기준으로 일자리 만들기 운동에 참여한 단체는 재단을 포함하여 모두 32개에 이르렀다.



일자리만들기 운동본부에 참여한 시민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인인력지원기관 협회, 대한YWCA연합회, 대안연대회의, 미래가족문화연합,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생명의숲,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료생협연대회의,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주)컴윈

네트워크 구축, 국민의식 계도 앞장

2004년에 들어서면서 재단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 문제의 해소를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실업 관련 단체나 복지단체뿐만 아니라 환경·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와도 상시적인 협의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단체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의 현장인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민관 합동의 추진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었다.

재단은 정책의 발굴과 공론화를 위하여 실업 관련 정책의 수립에도 한몫을 했다. 정부와 연구 기관, 혹은 재계에서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실업 정책을 모니터링한 뒤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의 방향과 사업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실업-빈곤 포럼’ ‘실업극복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찾기’(2004년 7월 14일)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그 밖에도 양질의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기획하고 추진한 다양한 사업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위한 실험 성격이 짙었으나 나름대로 앞으로의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일자리’ 연구도 활발

특히 이 무렵에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해외 사례 조사(앞의 2화 참조)를 통해 사회적일자리 개념을 정립한 것도 이에 속한다. 외국의 사회

적기업 형성과정과 지원체계 사례를 연구, 한국에서의 제도화와 지원체계 형성 방안을 마련한 것, 사회적기업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게 된 것도 큰 진전이였다.

이 밖에도 대상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중도 탈락자를 조사하여 청년 실업자 중 취약층의 실업 원인과 욕구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실업 예방과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취약층 여성 실업자와 불완전 고용 인구의 특성과 욕구를 연구하여,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통한 성(性) 인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도 색다른 연구 결과였다.

중고령 장기 실업층의 실업과 고용 현황의 특성을 연구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사회적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했으며, 장애인의 실업 원인과 특성 연구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한 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취약계층의 불완전 고용 실태와 장기 실증 연구를 통해 불완전 고용층 지원 방안과 제도화 방안을 연구한 것도 큰 업적으로 꼽힌다.



제 5 화

둘 사이를 흐르던 참으로 긴 시간

갈등 구조, 다시 극복의 자리로

“재단 기금 해체하고 정부로 환원하라!”, “운영자금 지원하라!” 그러나 실업 구조가 바뀌었고 장기적인 실업 상황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춰 남은 재원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할 상황이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새 사옥으로 이전한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더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05년 5월 23일부터 시작한 농성은 계절이 바뀌면서 참가자들 사이에도 조금씩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다.

“재단 기금 해체하고 정부로 환원하라!”

“실업센터 다 망한다, 운영 자금 지원하라!”

농성에 참여한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이하 전실련)⁴⁾의 활동가들은 피켓을 높이 들고 목청을 돋우며 외쳐댔다.

“재단 상임이사과 사무국장, 정책실장 물러나라!”는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농성이 벌어지는 건물 앞쪽의 텐트를 지나는 사무국 직원들은 몇 달째 익숙한 풍경에 그저 피켓에 적힌 구호만 쳐다볼 뿐이었다.

농성 사태로 변진 '인식의 차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변진 것은 재단의 사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05년 초, 재단은 전국에 산재한 '실업자종합지원센터'의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주요 사업이었던 '실업지원기금'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다. 이전에 정부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 전국의 풀뿌리 실업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런 식의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단의 입장이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주요 도시에 자활후견센터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유사한 실업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 인프라가 확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실업자 지원과 중복되는 문제도 일부 지적되곤 했다.

2005년 3월 3일, 이사회에서는 전국의 센터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⁵⁾를 구성했다. “특정한 사업 계획 없이 의례적으로 지원금을 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 방식을 바꾸어 사업 기획안을 제출받아 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지원 방식을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전국의 수많은 피지원단체와 마찬가지로 실업센터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기금을 받아가도록 권유한 것이다. 재단이 갖고 있는 실업기금은 제한적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계속 센터를 지원하다 보면 기금은 머잖아 고갈될 것이고, 이는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4) 전실련은 전국의 실업자지원센터들이 모여서 1999년 10월에 조직한 '사단법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를 이룬다.

5) 특별위원회는 남윤인순 이사(위원장), 강지원 감사와 이광택 이사로 구성되어 '3인 특위'로 불렸다.

“민간 부문의 진정한 파트너십 아쉽다”

실업센터에서는 당초 전국의 실업자들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인데 이제 와서 평가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당장 먹고살기에 급급한 실업자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을 타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3월 15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신명호 운영위원(도시비민연구소 부소장)이 재단 사무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낭독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곧바로 전실련 대표자들의 재단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과 이사진 면담 요청이 이어졌다. 상황이 돌변하자 3인 특위의 실업센터 평가는 시작도 못한 채 ‘전실련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책 논의로 바뀌게 되었다.

3월 26일,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1차 특위가 열렸다. 특위는 재단 사무국의 성한표 상임이사, 이공순 정책실장과 이은애 팀장으로부터 전실련의 문제 제기에 대한 사무국의 입장과 그동안의 경과 등을 청취했다. 이튿날(27일)에는 실업센터측의 박순진 신부, 양재덕 대표, 이상림 대표 등으로부터 사무국과 실업센터와의 관계,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양측 입장 듣고 해결안 제시

입장을 모두 청취한 특위는 양측의 보고 내용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했음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4월 12일, 재단의 성한표 상임이사 등 4명과 실업센터의 양재덕 대표 등 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⁶⁾ 특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문제는 재단의 사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며, 문제 해결과정과 방식에서 리더십 발휘가 미진했고 사무국 내부 특정인의 독단적인 태도와 언행으로 재단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해결책으로, ①재단의 비전과 사업 방향에 대한 공론화 ②문제 해결과정과 방식에서 리더십 발휘가 충분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사회에서 사과 ③정책실장이 자신의 태도와 언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퇴, 혹은 보직 변경 ④전 사무국장 업무 복귀 권유 ⑤실업센터는 재단 홈페이지에 재단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문 공지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인사 문제였다.

5월 9일, 특위는 정리한 대안 중에서 사무국 인사 문제가 핵심이므로 인사권을 갖고



6) 재단측 : 성한표 상임이사, 이공순 실장, 이은애 팀장, 박진환 팀장
실업센터측 : 박순진 신부, 양재덕 대표, 이상림 대표, 최인규 대표, 최영미 정책실장

있는 성한표 상임이사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요청했다. 5월 13일에는 상임이사 등 3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28개 실업단체의 의견이 전달됐다. 그러나 실업센터의 양재덕 대표가 상임이사를 면담하고 돌아간 지 사흘만인 5월 23일, 약 40여 명의 센터 활동가들이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그날 저녁부터 주차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실업재단 정상화를 위한 전국실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름으로 성 상임이사와 이 정책실장, 이 기획개발팀장 등 3명의 퇴진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역별로 돌아가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재단의 비리가 무엇인가?”

농성 돌입 이튿날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5월 24일, 3인 특위는 성 상임이사를 만나 이미 전달한 바 있는 특위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핵심인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 상임이사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세 차례나 비대위 대표를 만나 협의를 거듭했다.

6월 3일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자청, “실업재단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자신들의 농성 의도를 알렸다. 비대위는 이날의 기자회견을 포함,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언론과 접촉하면서 농성에 들어가게 된 배경과 요구 사항을 알렸으나 극히 일부 매체에만 보도되었을 뿐 주요 중앙 일간지와 방송매체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다루지 않았다. 결국 지원 예산의 배분을 둘러싼 양측 간의 감정 싸움이지 재단 내부에 비리가 있거나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전실련의 농성은 외부에 그 이유나 배경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양쪽 모두 상처만 입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농성자들의 리더급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회견장에 온 어느 기자가 ”도대체 재단 비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비리가 있는 건 아니고…….” 하면서 주춤했다. 그러자 기자들은 “비리도 없고, 단순히 내부적인 갈등인데 왜 우리를 불렀느냐?”면서 자리를 떴다. 결국 어느 신문에서도 농성과 관련한 기사를 써주지 않았다. <이광택 전 상임이사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한 이해 아쉬웠다”

농성 사태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사무국 : 재단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재

단은 '폼위 있는 노동'을 구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곳이지 '복지재단'이 아니다. 일시적 실업 문제 처방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실업극복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단은 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센터평가 소위를 구성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무능한 탁상 경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재단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조직으로 일일이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내부 운영 지침과 처리 방식을 갖고 운영한다. 이번 일로 센터에 의한 인터넷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무국 임직원들은 크나 큰 상처를 받았으나 3인 특위의 중재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다만, 센터 비대위가 사무실로 무단진입하여 농성에 돌입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 전실련과 신명호 운영위원의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해야 하며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센터 : 그동안 재단과는 좋은 파트너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내왔는데 재단이 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관철하려다 보니 합의 도달이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센터의 자존감이 훼손되었고 객관적인 평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재단 사무국의 운영 방식도 비민주적이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나 지도력 부재, 정책실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회계처리상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무능한 운영과 사적 인맥 조성, 독선적 운영으로 현장을 무시해 온 3인(상임이사, 정책실장, 기획개발팀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증 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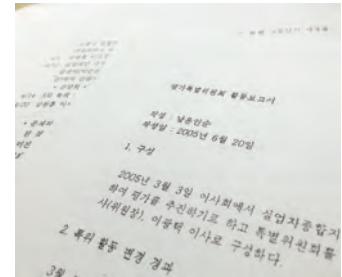
그들의 구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다. “일부 인사가 재단의 연구프로젝트 발주를 독점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당시만 해도 연구 프로젝트 발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나의 경우도 무상으로 한 것이지 돈을 받고 한 일은 한 건도 없었다. 결국 농성 사태는 100일을 조금 넘기다가 스스로 지쳐서 내부적으로 자멸하고 말았다. 명분도 약하고, 주장도 허위가 많아서 운동에 힘이 붙질 않았던 것이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내부적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등 조직 자체에 위기만 불러왔다.

이광택 _ 전 상임이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농성 길어지면서 동력 잃어

농성이 계속되면서 실무적인 요구보다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으로 양상이 변화되고 있었다.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다. 뿐만 아니라 농성이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여가

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참가자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요구 사항이 흐지부지되면서 농성은 점점 그 동력을 잃게 되었다. 전실련은 농성 사태 이후 점차 구심력을 잃게 되었고 그것은 회원들의 탈퇴로 이어지게 되었다. 농성은 석 달여 만에 종료됐지만 재단 내부에서도 이사와 운영위원들 사이에 다소 후유증이 있었다. 이사와 운영위원 일부가 교체된 테에도 그런 배경이 작용했다. 농성 사태 당시 지목된 인사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오상석 사무국장이 가장 먼저 사퇴했고 뒤를 이어 성한표 상임이사가 사퇴했다.



관련 인사들 사퇴, 안재웅 상임이사 선임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주요 직위의 간부들이 물러나면서 2005년 말에는 2기 상임이사로 안재웅 목사(현 다솜이재단 이사장)를 선임했다.⁷⁾

재단도 이 무렵 조직과 인력이 크게 바뀌었다. 12월에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일부 개편됐고 사무국 직원들도 이동이 있었다. 재단 설립 3년 만에 맞이한 큰 폭의 인사 이동이 한 차례 있는 후 조직은 안정을 되찾았고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상임이사와 주요 간부진이 한꺼번에 사직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으나 이광택 이사가 직접 나서 “이럴 때일수록 내부적인 단결이 필요하다.”고 다독였다. 실업 자지원단체들과의 관계는 아직 매끄럽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사업을 멈추거나 늦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실업의 문제는 크고 무거웠다.

증언 >>>

2005년 초반 재단과 실업 관련 현장 단체 간의 갈등은 재단법인 전환 후 조직의 성장과 사업구조의 전환을 둘러싼 성장통이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시절에는 운동 자체의 동력과 실무적 역량이 대부분 현장의 실업 관련 단체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했고, 따라서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 형식으로 일정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당시에는 예기치 않았던 경제 위기를 당하여 일시에 발생한 대규모 실업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다수의 실업자들에게 국민 성금을 적시에 배분하는 등 이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재단법인 전환 이후에는 사정이 달랐다. 실업의 내용과 양태 등 실업 구조가 바뀌었고, 또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이전과 같은 방식의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지원

7) 안재웅 상임이사는 1970년 중반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을 한 뒤 홍콩에서 아시아 기독교 운동에 적극 참가한 진보적 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이다.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실업은 그 구조와 성격상 일시적이거나 예외적 현상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실업 상황이 존재할 것으로 이해했다. 민간 부문에서 실업 문제를 연구하고 구체적 현황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실업극복 활동을 지향하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표에 비추어 이제부터는 재단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고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남은 재원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의 관련 단체들은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실업 상황과 정도가 여전하여 재단이 기존의 방식으로 관련 단체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갈등은 새로 출범한 재단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중장기적 지향점에 대하여 재단과 현장 단체 간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외관상으로는 재단의 실업 관련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친 것이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당시 일부 현장 관련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무국의 자원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단의 일상적 운영과 사업 활동에 관련되어 하자가 없는 것들이었으며,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특정 지출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견을 부기하여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논의했다.

갈등은 결국 더 이상의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재단 출범 초기에 발생한 이 사태는 재단과 현장 관련 단체가 향후 실업극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관련 사안을 충분히 공유, 협의하여 민간 부문 실업극복운동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으로 기억한다.

이정희 _ 감사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국민운동’에서 ‘재단’으로의 전환기, 큰 성과와 몇 가지 과제들

성한표 초대 상임이사

실업대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범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의 슬로건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였다. 이것은 실업이 더 이상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때까지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한편으로 국민운동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불시에 덮친 대량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일이었다. 출범 당시 국민운동에 참여한 단체는 노조와 시민운동 단체를 비롯하여 보수와 진보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운동단체가 망라되어 있었다.

국민운동이 국가 위기를 맞아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이 주도한 운동에 정부(노동부)가 적극적인 파트너로 참여한데다, 김수환(가톨릭), 강원용(개신교), 송월주(불교) 등 세 분의 탁월한 종교지도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 준 덕분이었다. 세 분은 함께 실직자들을 찾아가 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 줌으로써 손을 잡힌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광경을 뉴스로 시청한 많은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큰 격려와 희망을 줄 수 있었다.

국민운동은 민간운동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큰 금액인 1천3백억 원(이자포함)의 성금을 모았다. 모금에는 15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했지만, 큰 몫은 대기업 임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잘라 모은 성금이 차지했다. 우리는 실직의 칼날을 피해 자리를 보전한 임직원들에게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동료들은 나 대신 직장을 나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줄기차게 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였고, 실직자들에 대한 현직 동료들의 마음의 빛이 자신의 월급을 선뜻 잘라내게 하였던 것이다.

국민운동이 모은 성금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 실직가정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일일이 찾아 김치를 담아주고, 쌀을 배달해주는 등 도움의 손길을 펴는 데 활용했다.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쌀 포대를 메고 골목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시민단체들이 만일 ‘IMF외환위기’를 불러온 경제 관료들의 무능과 대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분노로 들끓는 민심을 묶어 공격의 화살을 정부와 대기업 쪽으로 돌렸다면,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와 반대로 무너진 민심을 수습하는데 앞장섰다.



실업극복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강화 위해 재단 출범

초기의 응급상황이 진정되자 국민운동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이하 재단)라는 재단으로 조직을 바꿨다. 실업성금 중에서 남아 있던 기금 427억 원이 재단의 기본재산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연간 27억 원 정도였다. 국민운동 기간 3년여 동안 800억 원의 사업비를 쓴 것에 비해 재단 예산은 국민운동 시절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응하여 재단은 실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줄이고, 실업 관련 정책개발과 정부에 대한 건의, 촉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 실업 극복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즈음 국민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원래의 활동으로 되돌아가고, 실업자 지원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단체는 '전국실업자지원센터'(이하 센터)로 결집했다. 재단은 센터를 현장과 연결하는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센터의 일상적 상담업무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처럼 지원한다면 센터 지원에만 2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니, 이런 식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에 센터는 산하 단체들을 재단의 지역 지부로 흡수하기를 기대했다. 재단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센터 산하단체들의 운영비는 재단이 책임지되 이들의 지휘는 센터가 맡는 기형적인 구조를 재단이 받아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기대였다. 재단과 센터의 갈등은 센터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상임이사였던 내가 사퇴하는 길을 선택했다. 나는 원래 언론인으로서 실업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했고, 경험도 일천했다. 국민운동 출범 당시 한겨레를 대표하여 참여했지만, 재단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필요한 1기 이사회에만 참여하고, 언론인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재단을 떠나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다.

'일자리 TV' 설립 계획 무산, 못내 아쉬워

하지만 아쉬운 일이 두어 가지 있다. 나는 당시 실업대책을 위한 정책토론, 캠페인 및 일자리 연결을 전담하는 '일자리 TV'를 재단 산하에 설립하여 실업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프로젝트 팀도 만들었다. 하지만 센터와의 갈등 여파로 이 계획이 결국 무산된 것이 첫 번째 아쉬움이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일은 여성 연합 대표로 나와 함께 국민운동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지은희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여성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민간기구인 재단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일이다. 지 대표는 국민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단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절충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 당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통제, 조절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 대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만일 지 대표가 계속 재단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재단과 센터의 갈등이 악화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제 6 화

문제는 망(網)이었다

지역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재단은 자활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점의 변화'를 시도했다. '개인에 대한 지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의 관점으로 바꾸는 전략은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 한 통의 신청서가 도착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에서 주관하는 「고용 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지 채 며칠 되지도 않아 전국 각지에서 신청서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획팀의 K씨는 자세를 고쳐 앉고 신청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 서류의 마지막 한 장까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뒤 신청서를 책상 오른편에 놓았다. 이 서류들에 기재된 사업들은 앞으로 몇 차례의 회의와 진지한 토론, 날카로운 면접이라는 엄정한 심사 단계를 거쳐 정식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예비사업’ 후보들이었다.



‘고용 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사업’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나온 사업이었다. 사진은 ‘고용 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사업’ 설명회의 모습

‘개인’에서 ‘지역’으로 시선 이동

재단에서 「지역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정부의 ‘자활사업을 통한 빈곤 극복 프로그램’이 당초 예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자활사업 자체가 충분한 소득원이 아니었으며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초점이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데 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실업, 장애,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자활사업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재단이 자활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관점의 변화’라고 생

각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재단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적 관점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의 관점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업의 경영 방식을 응용했다. 기업이 작업 능률을 위해 숙련된 직원을 대우하고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 재단은 복지관과 같은 훈련 기관과 함께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복지관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파견·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을 제시하는 「고용 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사업」을 시행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전략 제시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관은 모두 9곳이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실업과 빈곤 극복을 위한 희망 전북 네트워크’의 구성을 목표로 삼았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온라인으로 취업멘토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와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는 각각 인천과 서울 북부, 충북 등 자신의 지역에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기고용복지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이주민의 고용복지네트워크를, 춘천노동복지센터는 대안적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행동을 각각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여성 가구주의 자활과 지역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CRIS(Community Recruiting Incubation System)’를 표방한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도 최종 지원 기관으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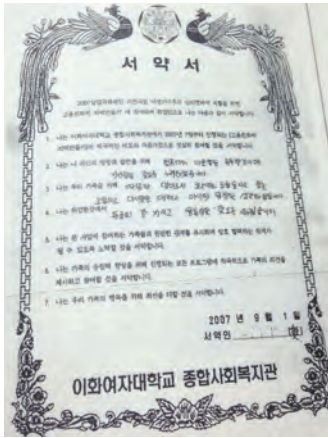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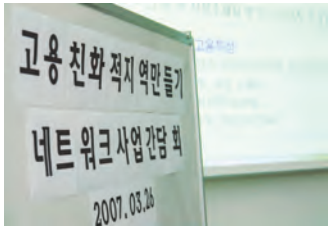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자, 각 선정 기관들은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은 지원 기간 동안 모두 355개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17회의 간담회와 워크숍, 112회의 네트워크 활동, 연구 모임 22회, 포럼과 토론회 21회 등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고용 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사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사업을 통해 ‘고용복지단체연대회의’가 만들어졌다. 지역 협의체가 발족된 것은 첫 해 사업 종료와 함께 얻은 8개월만의 성과였다. 지역 조사를 통한 지역 전략 수립, 특정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체계 구축, 여성 유희 인력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 온라인 멘토링 지원사업 등은 효과적인 사업 방식으로 평가되어 추후 재단뿐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도 각종 유관사업에 유익하게 활용했다.

지역 만들기의 정수를 찾다

2008년에는 전년도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7개 기관의 사업 계획을 다시 접수하고 신규 접수도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7개 기관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공존(구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은 '고용과 환경친화적인 건강한 도시'를 위해 7개 지역협의체와 함께 지역 조사를 통한 장기 로드맵의 작성을 제안했다. 부천시 여성노동복지회관은 42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원스톱센터'를 개설, 지역고용서비스 연계 사업을 실시했다.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총 26개의 협의체와 함께 '희망일자리지원 네트워크 사회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분부는 35개 협의체를 구성,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자리 공동체 마을'을 구성했다. 삼양주민연대는 39개 협의체와 '강북 일자리 매칭 네트워크(Job-Matching Network)'를 구축했고, 춘천노동복지센터는 31개 협의체와 지역 화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안경제 연구 모임'과 '도농순환발전모델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사)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는 협의체 19곳과 함께 전년부터 시작한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선정된 7개 단체는 지역 내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연계기관으로서 총 201개 단체를 스스로 조직, 4건의 연구 조사와 124회의 교육과 포럼·간담회·설명회를 실시했고 862개의 취업처를 발굴해냈다. 3차년도에 「고용 친화적 지역 만들기 네트워크사업」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갈 '지속사업 수행 기관'을 확정, 2008년도 사업 기관의 우수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관은 모두 세 곳이었다.

'고용과 환경친화적인 건강한 도시 노원을 위한 즐거운 상상을 사업명으로 하여 사회적기업과 열린 학교를 운영하고 노원 지역 바우처사업과 의료생협 사회서비스 사업의 공동화, 아동청소년네트워크 사업을 논의하는 '공존'이 그 하나였다. 두 번째는 중장년 고용사업단과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기관 사례 회의를 만들고자 계획한 '부천노동복지회관'이었다. 마지막 한 곳은 먹거리 복지와 친환경 학교 급식 토론회로 도농순환 발전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 화폐 간담회와 마이크로 크레딧 토론회를 준비 중이던 '춘천노동복지센터'였는데 이들 3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기업 민간 인프라 구축 위한 네트워크 구성

「고용 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신청서를 받던 바로 그 무렵, 기획팀의 또 다른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사업」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었다. 이 사업 역시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각종 시민단체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사)대전실업극복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사)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 (사)함께사는세상,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사회복지연구소로 모두 다섯 군데였다.

전국적인 분포를 감안하여 선정된 이들 5개 단체는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자활센터 등 사회적기업 유관 단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거점이 됐다. 대전과 충북, 전북, 강원 그리고 부산에서 7개월에 걸쳐 140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65명의 사회적기업가가 교육을 받았으며 다양한 주제의 연구 조사와 사회적기업 포럼, 세미나가 진행됐다.

1차년도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기업, 연구자 등 지역 역량과 자원이 결집하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과 발효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차년도 사업은 각 단체가 1년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를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을 세워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충북의 '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와 대전의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각각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강릉의 '함께 일하는 세상'은 지역 중심의 사회적 블록 만들기 사업을 통해 돌봄시장 통합사업과 친환경 학교급식시장을 형성했고, 전북의 (사)한국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도모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논의가 지역별로 현실화되면서 초기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사업의 역할이 제도권으로 포괄적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자 각 지역은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발굴된 지역의 연구소, 대학 등의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전환했다.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사업」은 2009년 종결됐지만 각 지역의 특화사업들이 기반을 갖고 이후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실험



「지역순환경제 지역허브 구축사업」은 지역단위 다자간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내의 시민 주도 대안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이 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업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모델사업 개발과 사업 인큐베이팅으로 지역 내에서 혁신적 사업 추진 전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실천적인 대안 고용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전기획단'과의 사업협력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지역 내에서 혁신적 사업 추진 전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실천적인 대안 고용모델의 개발을 추진했다.

재단은 지난 2년 동안 이 사업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과정 없이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신활력사업', '지역특화발전기획단'과의 사업 협력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문래창작촌)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손 맞잡고 진행한 풀뿌리 시민운동 지원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협력과 연대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기본 주체인 NGO단체들이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했고, 재단은 이를 위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09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추진한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 공모사업」⁸⁾의 후원 단체로 참여하여 「NGO 연대 및 교류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공공문화예술단체 '노리단'은 2009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 Asia Pacific Cities Summit) 환영 갈라쇼를 위한 일본 투어를 진행했으며 친환경 패션사업을 준비 중이던 '오르그닷'은 해외시장 조사를 다녀와 사업의 틀을 잡았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평가하는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고, '보조기구공모전추진단'은 2009년 보조기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09년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를 위해, '마포공동체라디오'는 사업비와 공간 유지 비용으로 각각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본래 목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이후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재단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지속하게 됐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이 후원한 풀뿌리시민운동 우수사례 시상장면



제6회 전국시민운동가 대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NGO단체 활동가들의 협력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8) 매년 다양한 현장 단체들이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단체 중 일부는 후원 없이는 소규모 지역 행사나 기획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이에 재단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 공모사업'이다.



제 7 화

우리 손으로 직접 일자리 만든다

‘자유공모사업’으로 실업극복 실천적 대안 모색

〈자유공모사업〉은 새로운 실업극복방식을 발굴하여 재단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였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실업자를 발굴하여 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보다 적절한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



2009년 가을, 수십 명의 장애인 단체 인사들이 모 대형마트체인그룹의 본사 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그룹 회장이 기업형 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을 장애인에 비유하며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발단이였다.

“장애인이 만든 맛있는 빵을 사주는 이유는 그들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동정해서이다.”⁹⁾

문제의 발언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적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까르페디엠 베이커리 쿠키전문점’의 고성수 직업훈련 교사는 그들이 만든 빵을 들고 와서 이 그룹의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기업의 회장께서는 장애인이 만든 빵을 먹어 본 적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만든 쿠키를 맛보셨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장애인들의 눈물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자유공모사업의 결실, 장애인 쿠키전문점

지적 장애인 20명이 어울려 일하는 수제 쿠키 전문점 ‘까르페디엠 베이커리’는 2006년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주관한 「자유공모사업」의 결실로, 장애인 보호 작업 시설에서 비누나 액세서리를 만들어 판매하던 ‘그린 보호 작업 시설’이 그 전신이다. 시설에서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쿠키사업을 생각해냈다.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서 ‘까르페디엠 베이커리’라는 이름을 달고 문을 연 것이 2008년 3월이었다. 오성급 호텔의 고급 베이커리에서 파티쉐로 근무하는 김현진 씨를 포함, 다수의 자원 봉사자들이 쿠키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모였다.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제과 기술을 지적 장애인이 익히기는 쉽지 않았다. 어렵게 배운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도 ‘장애인이 만든 빵’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또 다른 걸림돌이었다.

자원 봉사자들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롭게 청결을 관리하면서 빵과 쿠키를 만들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품질도 안정권에 올라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입소문을 타고 하나 둘 팔리기 시작한 빵은 백화점과 호텔의 매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유명세

9) 2009년 10월 16일, 한 대형마트체인회 회장이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소매업자대회」패널토론에서 대기업의 기업형 마트 진출을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을 ‘맛없는 빵을 만드는 장애인’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시민사회는 즉각적으로 이에 반발하며 대응했고, 얼마 후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를 타고 있는 빵을 '맛이 없다' 며 깎아내리고, 구매자들이 각자의 기호에 따라 자유의 지로 선택한 행위를 '동정' 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들었으니 화가 날만도 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자유공모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 시절부터 지원해 오던 전국의 실업극복단체들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민단체, 혹은 실업극복운동을 발굴하여 재단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라는 재단의 슬로건에도 부합했다. 스페인의 협동조합이나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실업자를 발굴하여 그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보다 적절한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

「자유공모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주체들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을 열어놓았다.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업(1개 시·군·구 범위)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내, 지역사업 범위를 초과한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했다.



2006년 자유공모사업 약정식의 모습

홍대 앞 예술가 지원사업…… 첫 자유공모사업의 시작

재단에서 시작한 「자유공모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는 '홍문협(홍대 앞 문화예술인협동조합/대표 조운석)'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판매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당초 홍문협이 후원자를 찾는 과정에서 몇몇 대기업이 “홍대문화 포털 사이트를 만들자.”며 적극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홍대문화를 보존하고 키운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듯했으나 참여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상업적 측면만 강조했다. 그때마다 홍문협의 조 대표는 “더는 기업 논리에 휘둘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사업을 열었다 접기를 반복했다.

조 대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단의 문을 두드린 것이 이 무렵이었다. 만일 재단에서도 작가와 작품의 창의성과 독자성을 경시하고 상업성만을 강조한다면 차제에 아예 홍문협을 해산하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단의 자유공모사업은 작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재단에서 '문화적 보편성'과 '작가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줄곧 유지했던 것이 주효했다. 재단은 동일한 목표를 갖는 동반자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홍문협과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력했다.

재단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받은 홍문협은 300여 명의 창의적인 젊은 작가들과 홍대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갖춘 180여 개 시설을 한데 모아 '홍대 앞 사이버마을'을 구축,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자유공모사업 이후에도 '홍대 앞 사이버마을'



자유공모사업은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참여 방법을 마련해주었다.



의 정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마다 젊은 작가들의 예술품을 판매하는 장터가 되면서 독립 뮤지션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프리마켓(Flee Market)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도 대접받고 일하도록…… ‘헤드헌팅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맞춤형 헤드헌팅대회, 2% 실천사업’은 「자유공모사업」이 배출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였다. 2006년 7월,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맞춤형 헤드헌팅대회’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개발하고 그들의 높은 이직률과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장애인 취업박람회’였다.

기존의 구인구직 행사가 직종과 능력의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행사는 엄정한 자격 제한이 있는 대회였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장애 청년에게 자신의 능력과 경력에 적합한 직업을 연결해주고 전문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었다.

대회장 내부에는 삼성에버랜드와 KT 등 12개 대기업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그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취업의 기회가 펼쳐진 것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대졸 이상의 유능한 장애 청년 500여 명이 대회장에서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각각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의 부스를 찾았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람회에 참석하여 면접에 응시한 대다수의 장애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대회를 취재하던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로 인정받게 된 성미산마을의 ‘마포연대’나 청년 실업의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수연대’도 자유공모사업을 통해 빛을 보게 된 사업이며 단체다. 이렇게 한번 인연을 맺은 단체는 재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후에도 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자유공모사업」은 어렵게만 느껴져 왔던 국내의 실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추진됐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는 이제 실현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실천적인 구호가 됐다. 2006년부터 실시된 「자유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해당 주체들의 자립을 가능케 해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제 8 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된 시민사회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 사회적일자리

“실업으로 인한 개인 삶의 파괴와 국가적 어려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권보호이며 가장 효과적인 분배 수단인 동시에 성장 잠재력 유지와 확충을 위한 최고의 정책수단임을 확신한다.”



2004년 7월 서울, 홍사단 3층.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출범식 마지막 순서에 강단 앞으로 나온 정석구 집행위원장(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대표)의 손에는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 창립 선언문>이 들려 있었다. 정 위원장은 “실업으로 인한 개개인 삶의 파괴와 국가적 어려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권 보호이며 가장 효과적인 분배 수단인 동시에 성장 잠재력 유지와 확충을 위한 최고의 정책 수단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정책 수단임을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반복, 강조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환경 개선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업과 사회, 국가가 상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켰다.

범 시민사회 목소리 담아 사회적 영향력 키워

이 시기에는 극단적인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실업 문제도 웬만큼 진정되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 실업은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해갔고, 장기적인 실업은 점차 구조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빈곤 대응책으로 정부에서 기획한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사업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임시방책일 뿐이었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 조건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차원으로서의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에 재단은 사회단체 차원의 민간사회운동으로서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과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것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의 사회적 통합과 지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업 문제와 복지 관련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집단으로 결집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 그 후 사회적 발언권과 정책 영향력을 확장하고, 노동·환경·사회 개혁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당시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논란거리들 중 하나는 '실업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복지 영역의 사회서비스노동이 점차 '저임금 노동'으로 격(格)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이었다. 빈곤층에 대한 실업 대책이기 때문에 복지적 성격이 짙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었다. 사회서비스에 매겨지는 낮은 요금으로 인해 기존에 국가가 무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혹은 정반대로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위험이 생긴 것이다. 기존의 유사한 노동시장에 대해 저임금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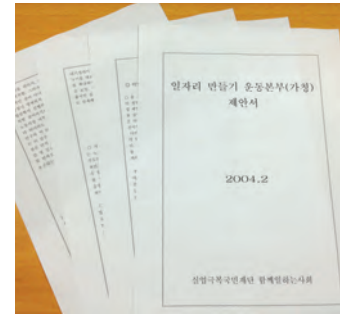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 정책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고용 불안 상태를 유지하고 소득 하향 압력을 초래할 뿐이었다. 따라서 실업 대책은 빈곤층에 대한 부분적인 소득 보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힘 모으기로

‘운동본부’가 설정한 가장 큰 목표는 범시민 사회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업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 26개 단체¹⁰⁾는 이날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식에 모여 민간 실업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양질의 장기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운동본부’는 정부의 실업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정책을 평가하며 일자리본부가 제시하는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주로 인구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늘어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사회배계층에 대한 사회 통합적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실업-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결과 발표, 토론이 이뤄졌다.¹¹⁾

정부가 ‘민간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고용과 복지의 연계’라는 가치를 수용하여 추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2003년에는 모두 7,071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이어서 2004년에는 21,632명, 2005년에는 69,314명(노동부 통계)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2006년에는 더욱 늘어 모두 133,509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사회적일자리사업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 그리고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당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던 연평균 4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위기에는 언제나 돌파구가 있는 법.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우리 사회에 보건·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계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에 가장 민감한 NGO를 시민

10)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YWCA연합회, 대안연대회의, 문화개혁시민연대, 사회연대은행, 시니어클럽, 신나는 조합, 실업극복국민재단,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료생협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시민종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11) 2004년 7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배와 참여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찾기’를 주제로 실업과 빈곤 극복, 복지운동의 최우선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운동본부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하여 ‘빈곤층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도 앞장서며 실업의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실업극복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자립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국의 전체 고용시장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 비중은 12.6%로 OECD 평균인 2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선진국들이 우리와 비슷한 소득 수준일 때와 비교하면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2003년 기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었다.



재단은 노동부와 함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안착화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설명회와 학습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의 확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3억 원이 반영되면서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청년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1,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¹²⁾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재단 설계 당시부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로 고려된 것으로서, 재단은 이를 통해 노동부의 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재단은 그동안 지원하던 '자활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했고, 자활공동체는 재단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1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단체가 청년 실업자, 장애인, 여성, 고령자,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노동 강도에 따라 1인당 월 58~68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 산재 근로자 도우미 등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분야가 많았다.

자원과 연계되어있는 민간 실업운동 조직들도 재단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했다. 이들은 각자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던 자활사업을 조정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탁하거나 독자적인 사업단을 운영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험에 참여했다. 실업극복국민재단도 점차 자활공동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기업의 개념 확산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었다. 사진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의 현장실사 장면



제 9 화

나는 월급 받는 시인을 꿈꾼다

정부·대기업과 손잡고 행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실업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장기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이끈 것은 재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이었다.



단순한 일자리 넘어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2007년 3/4분기,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모두 75만 6,000명에 실업률은 3.3%를 기록했다(통계청 기록). 2006년 수치인 실업자 78만 명과 실업률 3.5%에서 소폭이나마 감소, 실업 문제가 점차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장기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2007년 1천493만 9천 명)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실업과 비경제 활동의 불안정한 취업 상태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실질적으로 이끈 것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이었다. 다양한 취약계층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치밀한 기획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온 재단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이었으며, 그중 몇 건의 사업은 재단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재단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회적일자리사업」은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과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포스코무료간병사업'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Jabarte)'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급식사업' 역시 재단이 자랑하는 대표적 사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다음은 재단이 대기업이나 정부와 손잡고 행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실제 사례이다.

전문 간병사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
포스코(POSCO) 무료간병사업의 경우

“일 할 곳이 없었어요” - 포스코 무료간병사업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취직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일 할만 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포항과 광양에는 제철소와 그 하청업체가 대부분이라 제철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여성들이 갈 곳이라고는 고작해야 찜질방이나 목욕탕, 아니면 노래방이나 PC방 등의 임시 계약직이 고작이었다. ‘일 할 곳이 없다.’는 하소연은 광양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명료하게 압축해 놓은 말이었다.

“제빵공장에서 포장 업무도 해봤고, 대형마트의 매대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6개월 반복 계약을 맺는 고용 형태였는데, 계산이 틀렸다는 이유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었죠.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식, 다시 2시간 일하고 나면 곧바로 퇴근하도록 근무시간을 짜놓았더라구요.”

- 『포스코 사랑나눔』(2006년 사업 실적), 포항 2기 간병사



실업 상태의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포스코무료간병사업은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2005년 11월, 실업극복국민재단(현 함께일하는재단)은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 공헌 활동을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역사회에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포항과 광양의 지역적 특성을 꼼꼼하게 분석한 재단은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아이템으로 ‘무료간병사업’을 제안했다.



포스코 무료간병사업의 참가자들은 독거노인 중증 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간병과 간단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령화된 농촌 인구가 특히 많은 이 지역은 노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곳은 특히 정부지원사업이나 민간서비스도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을 수 밖에 없어 질병에 취약한 노인이 돌봄의 사각지대로 떨어지기 쉬운 구조였다. 이 같은 노인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무료 재가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었다.

아이템이 정해지자 사업으로의 발전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우선 포항과 광양YWCA가 지역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체계와 수행 방식을 수립했다. 1기 간병사는 재단이 직접 모집했고, 이후 기수부터는 지역 수행 기관이 재단으로부터 인력 충원 노하우를 전수받아 지역 인력을 중심으로 모집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업능력 교육훈련’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쌓은 2년간의 경험이 이후 실제 직업으로 발전했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경험’이 필요했다.

때문에 간병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최대 2년까지 간병사업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2년 후에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획득을 통해 간병사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열정'

2006년 봄, 교육과정을 마친 1기 간병사들이 실전에 투입됐다. 이들은 우선 광양시를 기반으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이 간병사업의 확장을 위해 주관 기관을 포스코청암재단에서 '포스코(POSCO)'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포스코간병사업단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무의탁환자, 중증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간병을 펼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만성 희귀질환자, 빈곤층 조손가정 등 수발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치매 환자나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다른 기관의 지원서비스와 중복으로 제공되기도 했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장기 요양 인정자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제외됐다.

포항과 광양의 1기 간병사 35명 중 2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중 유사 업종에 취업한 사람은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단지 1기 사업 종료 시점과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도입 시점이 일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체계화된 교육과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습, 그리고 간병사 스스로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

사회적일자리사업 실제 사례-②

결국 '아동복지 전문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아동 인권, 첩첩산중에서 길을 찾다

빈곤아동이 대규모로 존재한다고 했다. 복지의 확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정부는 빈곤 아동이 빈곤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렇다 할 사회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아동수당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참여 정부가 '사회투자전략(Social Investment Strategy)'을 수립하면서 인적 자본으로서의 아동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부터였다. 사회투자 전략의 성과물인 '지역아동센터'는 공식적인 아동복지시설로 자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지역 아동복지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리매김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민간 법인들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정확한 운영 모델이 없는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자칫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늘어가는 아동센터의 수만큼 고민도 커지던 상황이었다. 정부가 특히 우려하고 있던 것은 아동센터가 충분한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국에 걸쳐 2,4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지만 대부분 생활복지사 1~2명과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재단은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으로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꼽았다.

이에 재단에서는 정부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로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100% 동의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양질의 교육, 가시화 되는 성과

2007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재단은 (사)부스레기사랑나눔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재)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단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일자리 파견사업을 시작했다. 아동교육과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는 저소득층 여성과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구직자, 그리고 이주 여성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됐다.

컨소시엄이 발족한지 두 달 만에 2,531명의 아동복지교사가 선발됐다. 주로 전문대졸



초기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아동복지교사가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은 보수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교사들의 모습

이상의 30~40대 고학력자들로 선발된 교사들은 미리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특화 분야를 개발해나갔다. 기초 교육을 이수하고 파견된 교사들은 2년 차와 3년 차에 심화 교육을 이수했고, 그 후부터는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았다.



아동복지교사들은 아동들의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보건과 체육, 음악 등 아동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다. 사진은 아동의 사회(위)와 2007년 9월의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수업 모습(아래)



지역 보육센터에 모여 아동복지교사의 지도 아래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이정표가 되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전달체계와 인력의 형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능 강화와 아동복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동복지관이나 공공의 아동상담기관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 보호를 지원하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담당하던 현실에서 볼 때 이 같은 사업은 커다란 진전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개별성이 조화된 사업의 수행체계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일자리사업이나 복지사업의 전개에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다.

재단의 입장에서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보건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공조하는 형태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모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업으로 평가됐다.¹³⁾

13)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이후 (사)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에서 전담, 지금까지도 전국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은퇴한 실버를 위해
전통문화지도사사업

은퇴 후의 남은 인생이 문제

평균수명 80대를 넘어 이젠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차마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60세가량의 나이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직장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이후 30여 년의 잔여 인생을 살아갈 은퇴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면서 노후 관련 대책으로 자영업 아이템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즈음의 새로운 풍속도였다.

정부 역시 중고령자들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과 중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한 정책적 프로그램 형식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다. 또 고령자 인재은행사업을 통한 고용관리를 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노년기 진입 예정인 50대를 중심으로 전개한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연계가 부족했다.

‘좋은 일자리’가 필요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의 사업보다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실버인력뱅크를 설치하는 등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 부설된 노인 공동 작업장도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봉투 제작이나 포장 등 영세하고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출과 소득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중고령자도 있었다. 2009년에는 25만여 명의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중 30%가 65세 이상이었고, 47%가 70세 이상이었다. 그러나 중고령층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희망근로사업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 사업에 ‘우연히’ 중고령층의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단지 금전적 소득 보장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일을 통해 소득과 더불어 사회 참여 기회를 확장해간다는 점에서 일반 소득 보장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사회적 고용이자 복지와 고용의 중간 영역으로 접근해야

했다. 고령 계획 문건에 등장하는 ‘활동적인 노후(Active Aging)’, 혹은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 라는 표현이 이를 잘 말해준다.

2005년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이 함께 진행한 ‘전통문화지도사’ 사업은 바로 이처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즐겁게 일하는 게 아름다운 노년이지”

모든 교육 활동과 자원 활동의 출석률은 매년 100%에 달했다. 강의시간이 길어지면 탈락자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전통문화지도사 교육은 달랐다. 교육 한 시간 전에 강의실에 도착해서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경쟁하고, 스스로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했다. 강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뒷자리의 어르신들은 복도 바닥까지 나와 앉아 수업을 들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수업을 들으며 쉬는 시간도 없이 질문을 하는 통에 강사들은 “화장실을 갈 틈도 없다.”면서 기분 좋은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은퇴한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지도사로 양성,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기관에서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다. 실버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



고령층의 일자리는 주로 단기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많아 고령층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사진은 ‘전통문화지도사사업’ 교육 참가자들이 선서를 하고 떡을 자르는 모습



‘전통문화지도사사업’ 교육 참가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는 분들의 모습.



‘전통문화지도사사업’ 교육 참가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는 분들의 모습.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이분들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회 제공은 물론 여가문화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 생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업이었다. 특히 사회 참여와 기여를 통한 성취, 다양한 사회 관계망 형성,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발판 마련, 일자리 사업의 우수

모델로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정책 발전에 기여 등이 사업의 주된 목표였다.

이를 위해 재단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한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힘을 보탰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관리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간사단체가 되어 체계적인 진행과 관리를 담당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전통문화지도사 사업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146명이었으며, 2차 연도에는 156명, 마지막 해인 3차 연도에는 142명의 은퇴자들이 일자리를 얻었다. 총 9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심화 교육, 자조모임, 발표회와 시연회를 거치며 자립 활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갔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 일자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사회적일자리사업 실제 사례-④

문화예술교육도 사회적일자리가 될 수 있다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Jobarte)

“언젠가 아내가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얼굴로 사산(死産)을 했습니다. 부르르 떨고 있는 아내를 달래다가 그만 와락 껴안고 울어버렸습니다. 난 월급 받는 시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_ 오봉옥 『난 월급받는 시인을 꿈꾼다』중, 두리, 1992.



‘전통문화지도사’로 임명된 분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전래동화 구연과 서예, 소고춤 등 다양한 교육을 펼쳤다.

안산에서 '신나는 문화학교'의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지은 씨는 1990년대 초반에 읽은 오봉옥 시인의 〈난 월급받는 시인을 꿈꾼다〉의 한 구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오봉옥 시인만이 아니다. 작가 이문열은 무명 시절의 배고픔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에도 거실에 쌀가마니를 쌓아두고, 거실을 지나가다 괜히 쌀가마니를 발로 건드리며 흐뭇해했다고 한다.

“월급 받는 시인, 월급 받는 화가는 프랑스에서만 가능한 일인가?”¹⁴⁾라는 질문은 손지은 교사만의 질문은 아니었다. 신나는 문화학교의 교사 대부분이 이런 현실과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문화예술교육도 '공공서비스' 인가?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문화예술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며 진화와 확장을 계속했다. 문화예술교육은 향유자에게는 삶의 질에 관련된 문제이자 새로운 인력들이 개발되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고용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중 '예술강사 파견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부문의 지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업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일자리'라는 개념에 적합한가?”라는 근원적인 문제 제기였다.

흔히 사회적일자리라 하면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인 서비스 확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당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일자리 취업계층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은 '화폐 경제 내 유통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그러나 예술인들의 상당수는 스스로 실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고학력 소유자인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문제 등 처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문화예술성의 순수성과 자부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문화예술인만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가? 문화예술인의 활동이 공익적인 것인가?' 하는 논의가 일고 있었다.

14) 프랑스에서는 작가지원제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 작가로 등록하면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받는다.

문화예술가에게도 일자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정당한 공공서비스이며, 문화예술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확대되어야 할 정당한 새로운 일자리라는 신념 아래 묵묵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었다. 문화예술일자리만들기 사업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Jobarte)'가 바로 그것이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삼성증권의 초기 후원금을 토대로 실업극복국민재단이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이 무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이자 참여 교사들의 협의체이다.

2004년 7월부터 서울과 인천, 안산의 저소득층 지역 공부방과 시설을 대상으로 약 50여 명의 교사가 1,400여 명의 저소득층과 만났다. 교사들이 저소득층을 만난 이유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창작 체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를 수동적으로 접촉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술적 취향을 발굴하며,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내용을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사진은 수업 모습





'신나는 문화학교'는 일년에 두 번씩 발표회를 열었다. 사진은 2006년 서울 강북에서 열린 발표회의 모습

'신나는 문화학교'는 출범 당시 지역의 예술인들과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특히 집중했다. 1980년대 문화운동을 뿌리로 하는 문화이데올로기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예술인들로 하여금 교사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독자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때문에 신나는 문화학교는 지역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그것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역의 사업단이 지역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일선에서 위기를 해결했다. 이후 '신나는 문화학교'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민주적 교육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통합교육을 통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가이드북', '왕따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체 놀이 매뉴얼' 등의 다양한 결실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으로 새로운 출발

제1기 사업을 종결한 '신나는 문화학교'는 스스로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교사협회를 구성하고 중앙사업단과 지역사업단 등 새로운 조직과 운영체계를 수립했다. 이는 예술교사들이 문화예술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발성에 기초한 수평적 조직 운영모델을 구축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몇 년간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무보수 교사를 자처하며 사업을 이어간 교사들은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Jabarte)'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 ~2012

[제 2 부]

일자리 창출, 날개를 달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재단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업이 생겼다. 바로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비영리단체와 일반기업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기업 분야의 생생한 정보와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재단은 교육과 경영지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역량 있는 다수의 사회적기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한 최일선의 노력이었다. 재단은 이제 '전문성' 과 '다양성' 으로 무장하여 사회적기업 발전의 선도자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제 10 화

대한경제의 해법을 찾아서

‘정책연구소’ 개소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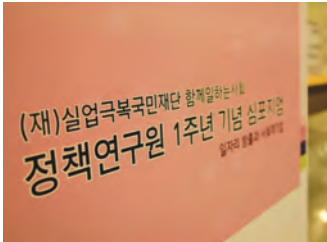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실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과 정책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기능의 필요성에 주목해왔다. 사회경제적 역사와 배경이 상이한 한국에 해외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사회적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책 연구 기능, 반드시 필요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실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 연구 기능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가능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큰 비중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의 선진 사례로만 알려지기 시작한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통해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다. 이후 한국적 현실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졌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각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과 사회경제적 역사와 배경이 상이한 한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공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었다. 실제로 운영해보고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업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실업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이 필요했다.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모습

최초로 사회적기업 연구 시작

2006년 출범한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한국 사회의 실업과 고용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 내는 것이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고용 분야에서는 질이나 양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물이 속속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재단으로서는

이론보다는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의 연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직접 수행할 연구 과제의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학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를 촉진시키는 일을 진행했다.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대안적 모델을 연구 보고서나 발간물로 제출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연구 발표회나 포럼 등을 개최, 다양한 전문가 자원을 개발했다. 연구 성과물은 연구 논문, 발제문, 좌담회 자료 등의 형식으로 출간했고 주기적으로 저널을 발행하여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갔다.

초대 정책연구원장으로는 당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종태 원장(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을, 상임연구위원으로는 재단의 안재웅 상임이사(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를 각각 선임했다. 연구위원으로는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현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허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선희 기부정보가이드 대표(현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장홍근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실장(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등 6명이 발탁됐다. 그 밖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비상임연구원으로 정책 연구에 일조했다.

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이론 정립과 육성 방안,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실업극복 방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

정책연구원은 실업 문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2007년 6월 1일,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을 개최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이승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와 정선희 (사)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사회적기업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함께 했다. 이어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원은 2006년과 2007년, 선진국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단체를 방문하여 그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총서 1: 사회적기업, 새로운 세계 - 미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저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일 자리에 대한 논의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앞장섰다.



2008년의 정책연구원 토론 및 발표회의 모습. 정책연구원은 외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인력 확보가 관건

정책연구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들로 연구진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위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시적인 연구 참여는 한계가 있었다. 심도 있는 연구의 수행과 정책연구위원 간의 논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나가야만 했다. 더욱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람을 필요로 했다.

2008년 상근 정책연구원을 확보하여 연구시스템을 강화했다. 이후 정책연구원은 재단의 미션과 중장기 사업 방향에 부합하고 국민적 아젠다(Agenda)가 될 수 있는 주요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유효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정책연구원은 2009년 녹색 일자리,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 등에 관한 연구¹⁵⁾, 2010년 지역파트너십과 지역 고용, 저소득층의 일자리 등에 관한 연구¹⁶⁾, 2011년 협동조합섹터,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 등에 관한 연구¹⁷⁾, 2012년 협동사회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현장성 있는 연구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재단의 신규사업 개발과 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함께일하는재단 창립8주년 기념 정책연구원 토론회 장면

- 15) '사회적기업 종사자 노동 실태 조사', '고용 위기와 기후변화시대, 녹색 일자리 전환 전략' 등 위탁연구사업,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연구' 등 연구지원사업 수행. 2009년 12월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도서 발간
- 16)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발전' 등 위탁연구사업 및 '지역파트너십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저소득층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연구' 등 연구지원사업 수행
- 17) '한국 협동조합섹터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가능성', '사회적기업의 SROI 성과지표 개발과 자기진단', '청년층 대안적 사회안전망 모델 개발' 등 위탁연구사업 수행. 2011년 2월~12월, 『정책연구원 총서 3』(경제사회 변동과 공동체 패러다임) 및 OECD 번역서(『사회적기업 영역 어디까지인가?』) 발간



제 11 화

사람을 먼저 키워라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일은 정부, 비영리조직,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는 기업 등 관련 조직이나 구성원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였다. 재단이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 때문이었다.



“인적 자본이 최고 자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지닌 기업가, 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한국에는 역량을 고루 겸비한 인재가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가를 발굴·교육하는 일은 정부, 비영리 조직,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는 기업 등 관련 조직이나 구성원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였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이 2003년 ‘사회적기업 학교’를 개설하고, 2007년 숭실대학교와 KAIST의 자문을 받아 50여 개의 강좌로 이루어진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한 것은 이 같은 사회적 필요 때문이었다.



사회적기업가 교육은 점차 특화된 모습으로 발전했다. 장애인분야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식 모습



제1회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운영기관 협약식. 사회적기업가의 역량이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맞춤형 커리큘럼은 SK의 후원을 받아 ‘제1회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로 새롭게 태어났다. 재단은 서울과 부산에 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기 1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수료생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대관계를 이어나갔다.

재단의 성과를 인정한 정부는 2008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단에 사업 운영 일체를 위탁했다. 이는 매년 수백 명의 (예비) 사회적기업가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되는 기반이 되었다.

“사회적기업가도 공부하세요!”

2008년 8월 20일, 함께일하는재단 교육장에서는 ‘2008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이 열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모두 19개의 아카데미 과정(지역을 대상으로 열린 통합과정 10개 코스와 사회적기업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 특화과정 9개 코스)이 만들어 진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였다.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비영리기관의 책임자, 기업 관계자, 공무원,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가 교육이 체계화되면서 점차 많은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이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다. 때맞춰 여러 대학들이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대한 전문적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회적기업 리더로서의 자질 및 경영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통합과정은 권역마다 교육운영기관을 발굴하여 운영됐다. 성공회대와 송실대, 전남대와 전주대는 각각 수도권과 호남권의 교육을 맡았고, 경상권은 대구기독청년회 YMCA와 사회적기업 연구원이, 충청권은 (사)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가 담당했다. 강원도광역자활센터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은 각 지역의 교육을 맡았다.

‘(사)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는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기관은 주로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 민간단체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더욱 전문적인 경영기술과 영역별 교육훈련을 위한 특화과정은 사회적기업 MBA, 장애인과 청소년 등 대상별 과정과 문화, 외식과 같은 업종별 특화과정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협동조합과 지역 활성화에 관한 전문과정도 개설됐다.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정규 학위과정인 ‘사회적기업 학과’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가톨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학과 및 수업을 개설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훨훨 날아라, 사회적기업가”

2007년부터 시작한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사업은 ‘열린 포럼’과 ‘사회적기업가 해외 연수사업’으로 구분된다. 각종 세미나와 발제, 토론회로 구성된 ‘열린 포럼’은 국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담론을 형성하고 국내외 사회적기업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기업 분야의 생생한 정보와 흐름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열린 포럼’은 매년 큰 성황을 이뤘다.



2007년 10월 30일 재단에서 개최된 ‘제1회 열린 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육하원칙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¹⁸⁾ 참가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통한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인증의 의미와 과제,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유형화 등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적기업의 뿌리를 찾고 기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작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후 재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23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고, 매회마다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회적기업의 주요 이슈를 저변에 확산시켜내었다.

해외 연수 통해 사회적기업 배운다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사업의 꽃은 바로 해외 연수프로그램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사회적기업 현장을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2007년에 처음 시작된 7개 해외 연수팀의 성과를 관심 있는 모든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2008년 7월, ‘해외 연수 결과 보고’를 주제로 제7차 사회적기업 열린 포럼이 열렸다. 해외 연수에 참여한 7개 연수팀의 사례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적용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재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23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고, 매회 마

18) 이 자리에는 안재웅 상임이사와 SK사회 공헌팀 김도영 팀장,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노길준 팀장, 사회적기업자원네트워크 정선희 상임이사가 함께했다. 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승우 사무처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엄형식 연구위원,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참여했던 다양한 주체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연수단 발대식 장면



다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회적기업의 주요 이슈를 저변에 확산시켜내었다.

포럼은 1부(주제 :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기업 을 재조명하다)와 2부(주제 :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다)로 나누어 모두 4시간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진 청소용역업체와의 네트워크와 청소산업 분야에서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해 참여한 '함께 일하는 세상(주)'의 이철중 대표와 김기홍 사업지원국장은 유럽의 청소 회사를 탐방, 청소기술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해외 주요 메이커들에게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들은 "청소용품 직수입과 도매 거래라는 과제를 해외 메이커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해결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발전과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해외 연수에 참여한 '(사)한국여성노동자회'의 김경희 대표는 프랑스, 벨기에, 영국의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관련한 주요 기관의 현황과 현안 과제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영리기관과의 경쟁 속에서 비영리기관이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캐나다(토론토, 퀘벡)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한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동문회'의 허나운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팀장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연수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인프라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연수의 의미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일본의 특례자 회사 방문을 통해 한국형 자회사형 표준사업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연수에 참여한 장정은 사회복지사(하상장애인복지관)가 헬스키퍼협회 조직, 기업체 접촉, 학교형 모델, 병원형 모델의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필리핀 지역 연수 활동을 통해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활용사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박영학 이사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방 정부 대상의 사업과 지역 재활용시장 개척사업, NGO 대상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해외 연수에 참가한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은 사회적기업과 지방 정부 청사를 방문하며 꼭 친 일정을 소화했다. 그동안 꿈꿔 오기만 했던 사회적일자리가 실현된 모습을 본 사회적기업가들은 부푼 가슴으로 한국에 돌아와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경영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기술 경쟁력 제고 위한 장기 기술연수 필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해외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해외 연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단은 해외에서 충분한 시간을 머물면서 구체적인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기술연수 방식의 해외 연수도 기획했다. 실제로 2008년에는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규옥 씨가 일본 오사카 생활협동조합연합 '키라리'의 친환경쌀 주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5개월간의 장기 연수를 지원했으며, 호주 허벌 스튜디오의 설치 예술가인 스티브 랭턴을 국내로 초청하여 사회적기업 노리단에 생태주의 악기 제작 방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5개월간의 국내 체류 비용을 지원했다.

일본 술에 관심이 있던 한국인 이규옥 씨(43)가 일본 연수생으로 선정되어 생활협동조합연합회 「키라리」(본부는 오사카)를 통해, 원료에 유기미를 사용하는 단파(丹波)시의 '山名주조'로 연수를 떠났다. 일본의 주조를 배워 모국의 농업 진흥에 일조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이 주조 회사에 상주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 씨는 2009년 3월 말에 일단 귀향할 예정으로, "일본의 기술을 도입한 순쌀 주조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의 고국인 한국은 소주나 탁주(막걸리)가 일



장기 기술연수 지원을 통해 일본 순쌀주조방식 전수를 위한 실습장면

반적이어서 대부분 밀이 원료이기 때문에 주조에 쌀을 사용하는 방안을 접목시키기 위해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주조 실력으로는 완전한 아마추어였지만 11월 말부터 3개월간, 거의 휴일 없이 세미(깨끗이 씻은 쌀)나 국(누룩) 만들기 등 주조의 모든 공정을 배웠다...(중략)

한편, 이 씨를 지도하는 일본인 기술자 나카무라(中村博社) 씨는 정월 연휴 중에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창고에서 일하며 지냈다는 그에 대해 "주조를 배우려는 정열이 대단하며 그 각오가 남다르다."라고 평가한다...(후략)

— 고베신문에 보도된 기사



제 12 화

드디어 통과된 '사회적기업육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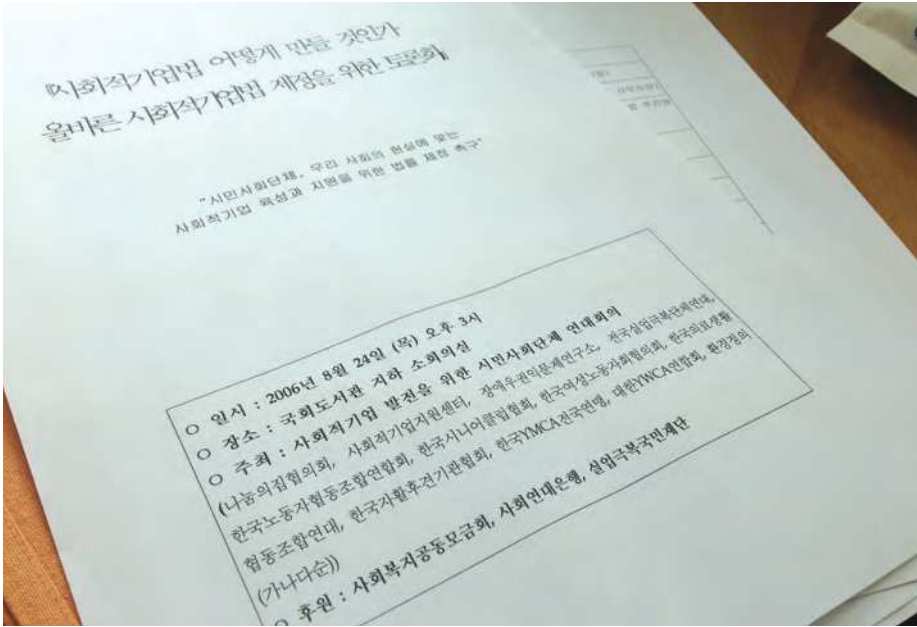
새로운 법에 대한 기대

2005년 말, 한나라당 진영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이 넉 달 간격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활 후견 기관을 중심으로 뭉친 시민단체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차 커져갔다.



시민사회 공감대 커진 사회적기업육성법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진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06년 3월 23일에는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의원이 '사회적기업 지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거의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닷 달 간격으로 제출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재단의 후원을 통해 법 제정에 시민사회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된 후 11월 20일, 처음으로 인증된 위캔쿠기,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등 36개 사회적기업의 인증식(왼쪽)에 참석한 진영 의원(가운데)과 우원식 의원(오른쪽)의 축하장면. 이날 행사는 '사회적기업은 우리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잡카페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최했다.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6년 4월 19일 공청회를 가진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거듭했다. 자활 후견 기관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¹⁹⁾ 연대회의'를 결성, 8월 24일 '시민사회

19) 연대회의의 참여단체 : 나눔의집협의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환경정의(가나다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법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적일자리 늘리려면 '사회적기업' 필요해

한국의 사회적일자리는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사회적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회적일자리는 이후 노동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8개 부처를 망라한 노동·사회복지·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아직 용어와 개념이 명쾌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오로지 정부 지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위한 '보호된 시장'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사회적기업 인증, 다양한 혜택으로 지원받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정의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얻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이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점에서 영리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닮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비단 협동조합형 조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를 거쳐 주식회사 형태로 성장한 조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해당 기업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더욱 활발한 경영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의 1/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 수혜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전자는 기업으로서의 속성을 갖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후자는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연계(민간) 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법인 소득의 5%' 내에서 전액 손금 처리가 된다.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역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14조에 의거, 사회복지·가사와 간병·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노무·회계·마케팅·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부지 구입비·시설비·점포 임대 등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받는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다양하다.

시행착오, 그러나 극복하며 성장하다

노동부는 2007년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받았다. 짧은 시간에 자활공동체와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는 100여 개 사업장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초 70여 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예상한 노동부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사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채 20여 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협소하게 설정된 데에 있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더불어 유급 근로자 고용은 물론이고 정관이나 규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했는데,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고작 6개월이었다. 인증 요건에 대한 안내와 상담, 조직 형태 전환 지원 등 인증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다. 이렇게 지적된 사업들은 재단이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반영되었다.

사회적기업, 다시 한 발 내딛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과연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이 가능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간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그 중요성에 비해 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내실 있는 기업이 출현하는 것, 사회적기업의 서비스와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는 것,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법률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재단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민간 지원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견실한 사회적기업의 탄생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에는 고용노동부만이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 발효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3월 4일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796개의 사회적기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 및 기업,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가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기업 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2013년 초 개최된 사회적기업 공감토크 행사장면



제 13 화

사회적기업 지원의 허브

사회적기업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되면서 재단에 중요한 과업이 생겼다.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주체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역량 있는 다수의 사회적 기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한 재단 최일선의 과제였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되면서 재단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업이 생겼다. 바로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비영리단체와 일반기업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역량 있는 다수의 사회적기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한 최일선의 과제였다.

사회적기업 지원 위한 초석 마련

재단이 2007년 11월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도의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의 초석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었다. 사회적기업의 인식확산과 홍보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노동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재단은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주체들에 맞는 자원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적기업에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보노 협약 및 발대식 장면

자원연계활동 > 프로보노 활동으로 SKT 전문자원봉사단과 SCG(Social Consulting Group)의 프로보노, 딜로이트회계법인 경영자원봉사단이 직접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

영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전문성'을 기부했다. 재단은 또 대기업의 사회공헌 팀, 휴면예금관리재단,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대부자금 연계, 지자체 문화센터 무상입주·무상임차, 멘토링 등 활발한 자원연계 실적을 나타냈다. 자생적인 사회적기업 발생을 위해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별 자원연계 방안과 우수사례 발굴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와의 협력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안착과 사회적기업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재단은 서울시,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도청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및 공청회 개최, 공무원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국회의원·시도의원 조례안 상정, 의원발의 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주로 다양한 주제의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발굴추진단 구성, 제도마련과 지원정책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활동에 협력하는 방식이었다.

정책활동 > 사회적기업 지원활성화를 위한 정책활동으로 민주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노동연구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서울시 의회 재경위, 청와대 시민문화수석실, 제천시 등과 연구포럼, 심포지엄, 공청회를 열고 각종 자문과 연수지원을 맡았다.

홍보 > 사회적기업 직원교육용 영상제작물 제작, 사회적기업 개요집, 우수사례집, 사회적기업 서비스와 생산물 홍보책자 발간, 아쇼카 사회적기업가 시리즈 영상물 번역과 CD 제작,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해외사회적기업 해외자료 번역과 발간을 통해 인식확산에 노력했다.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KBS 사회공헌 SunShine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겨레신문 해리리포트 사회적기업 특집기사 칼럼, 중앙일보 사회적기업 기획기사 관련 인터뷰, 문화방송 2580 인터뷰, KBS 청년소셜벤처대회 기획방송, 와타나베 나나(사회적기업가를 다룬 『체인지메이커』 저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송홍보를 기획하고 제작했다. 또 포스코 홍보기획팀과 노리단 영상활용과 사회적기업 노출 방안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국제교류사업 > 일본 인권변호사회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사회적기업 현황과 관련 제도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한일 사회적기업 교류회'를 시작했다. '한일 사회적기업 교류회'는 아시아지역(홍콩, 대만, 중국) 사회적기업 현황파악 및 국제교류를 위한 출장 등 국제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재단은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각종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이해를 돕고 수립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또는 신규설립을 구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교육 및 일상적인 상담을 제공하였다.

전국적인 사회적기업 통합 지원 체계 마련

2009년, 사회적기업 설립지원기관은 권역지원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인증 지원과 운영 지원으로 분리되어 지원되던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을 통합시켜 사회적기업의 설립부터 자립단계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설립지원과 인증 이후의 컨설팅 등 운영지원 과정이 서로 공유되어야 일관성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재단의 정책 건의가 수용된 덕분이다.

지원기관의 수도 전국 3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재단은 신규 선정된 지원기관을 위한 권역별 지원기관 역량 강화 및 업무 표준화 지원 등을 추가 과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권역별 지원기관 워크숍 등을 통해 재단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업무 내용과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을 업무 매뉴얼로 작성하여 신규 지원기관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기적인 대표자 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들의 의견을 한 목소리로 모았다. 또한,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시기에 맞춰 정책 제언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사안들에 관해 의견을 수렴, 청취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다른 권역별 사회적기업지원기관에게 재단의 사회적기업 지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수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질의 사회적기업 지원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국을 아우르는 지원기관 필요했다

2010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전국 15개로 확대되었다. 2008년 3개, 2009년 6개 있던 지원기관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있어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을 선정했는데, 재단은 서울 서부 지역만을 담당하게 됐다.

그동안 재단에 축적된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노하우를 지역과 기업의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밀착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전국 사업을 하던 재단이 일부 지역만을 담당하여 겪는 한계가 더 컸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들을 성장시키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그동안 키워온 사업 영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재단이 가진 역량을 일부 지역에만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내·외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을 담당하던 사회적기업 설립지원팀은 정부의 위탁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졌다.

매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위탁 받을지 말지에 관해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을 담당하는 팀 뿐만 아니라 재단 전체 차원에서 지난한 논의 과정을 겪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재단 차원의 치열한 고민이었다.

다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으로

2011년, 재단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무엇보다 전국 사업을 하는 재단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한정된 지원을 하는 한계가 “지원기관을 위탁받지 말자”는 결정의 이유였다.



사회적기업 설립을 구상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들에게 타 지원기관과 다른 재단의 질 높은 서비스는 높은 호응을 끌게 되었다. 인증설명회에는 타 지방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2011년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15개(경기지역 2개 포함)가 선정되었는데, 재단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대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관련된 심사 지원업무와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북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재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2012년, 1년간의 공백을 깨고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위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서울 권역의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을 재단이 맡으면 좋겠다는 외부의 의견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지난 1년간 정부의 위탁 사업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더욱 효

울적인 안배에 대한 고민을 느끼고 있었던 차나였다.

그렇게 시작된 2012년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사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과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관련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대상이 서울서부지역으로 한정된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해 보다 차별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가간 네트워크(왼쪽), 맞춤형 경영컨설팅(오른쪽 위),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분야별 상담(오른쪽 아래) 등을 제공하였다.



방향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사회적기업 현장에 지원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구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여건 마련과 네트워크 구성

마침 2012년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었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활동이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조직으로 성장하고, 서울시는 사회적기업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서울시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통해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 민관이 협동하여 일을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5개년의 육성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5개년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공공구매시장을 1조 원 시장을 조성하고, 향후 1,000억 원의 자본시장을 조성하여 투융자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무엇보다 정책제언을 통해 통합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재단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서울시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집행위원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통합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향에 대해 협의한 후, 간담회와 정책제언을 통해 중복사업과 중복예산에 대해 최대한 조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현장실사와 실사보고서 작성, 심사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예비 풀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일에도 관여했다.

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과도 정책제언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기업 5개년 육성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심사지원, 사회적일자리 재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심사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교육(사회적기업 특화교육, 사회적기업가 교육, 비즈니스 역량강화 특강)과 포럼개최, ASES(아시아 사회적기업가 활동가 대회), 사회적기업 인증 가이드북 제작,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제안, 사회적기업 박람회, 홍보활동(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언론게재, 책 출판, 사회적기업 달력 제작, SNS 홍보, 뉴스레터 등) 등 다양한 활동은 재단의 손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었다.

사회적기업의 ‘말형’이 되어...

재단은 내부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원연계를 기업별 맞춤 제안을 통해 효성의 청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고, 사회적경제로 표현되는 생태계 조성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년소설벤처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한화의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중부 발전의 에코센터 조성 사업, 한국전력의 행복충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유한김벌리의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 지원사업을 성사시켰고, 사회적기업지원팀을 인큐베이팅팀, 설립지원팀, 성장지원팀을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진입을 주로 시도해 온 재단은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알리고, 경영 방법론을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통합 지원기관으로서 재단은 현장에 맞는 자원연계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제언과 지자체, 정부부처와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업종/지역/부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생태계의 규모화와 질적 성장을 도모할 준비를 완료했다. 다른 지원기관이 하지 않는 혁신적인 사업을 통해 규모화와 질적성장을 선도해 온 재단은 이제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을 위한 협력적인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로 사회적기업의 '맞형'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제 14 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사회적기업 대부사업을 시작하다

2003년 시작한 재단의 대부사업은 지금과 같은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대부사업'의 명칭은 달고 있었지만 '지원'의 뉘앙스가 더 강했다. 그러나 재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기업들은 늦든 빠르든 대부금을 상환했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재단의 독특한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안산의료생협’은 전국 단위생협 중 규모와 경영면에서 단연 으뜸이다. 조합원은 매년 1,000세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 못지않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자랑한다. 안산의료생협이 함께일하는재단에서 대부를 받은 것은 2008년의 일. 당시만 해도 안산생협의 부채율은 300%를 상회했다. 도산을 염려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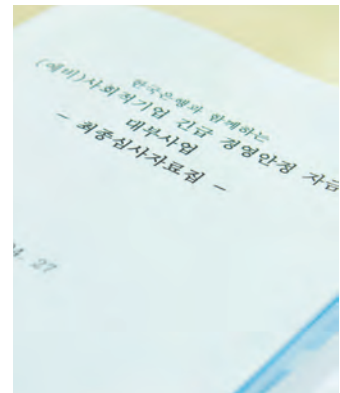
생협은 최후의 수단으로 재단의 문을 두드렸다. 대부금액은 9천9백만 원. 이 돈은 조합원 차입이나 신용대출 등 이자 부담이 특히 높았던 채무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자 생협의 재무구조는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신용 담보로 대부, 상환율 97% 상회

「지역개발금고사업(이하 대부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투자,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03년 시작한 재단의 대부사업은 초기엔 지금과 같은 규모와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대부사업’이라는 명칭은 달고 있었지만 ‘대부’보다는 ‘지원’의 뉘앙스가 더 강했다.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불릴만한 민간사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띤 몇몇 사업체는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정식 대부사업을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대부 이후의 상환 가능성과 상환율까지도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힘든 수준이었다. 대부를 받은 사업체가 상환 기간을 훌쩍 넘겨도 독촉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지 9년이 지난 2012년, 약정 대비 상환율은 무려 97%(2012년 3월 기준)에 달했다. 신용을 담보로 삼은 것인데도 재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기업들은 상환 만기일보다 빠르든 늦든 대부금을 상환했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재단의 차별화된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재단만의 노하우 축약된 사업

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금고사업의 강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와 현장 밀착성이다. 대부가 집행되면 재단은 경영컨설팅, 인력 양성사업, 성과관리,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마치 새싹을 돌보듯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경영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단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심사·선정·관리·평가·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업 분석, 사전 지원, 현장 실사, 수

익성 분석 및 전망 예측, 전문가 분석 자료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에 결정적인 잣대가 되고 있다. 이는 곧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상 기업의 발굴로 이어지며, 나아가 대부사업 결손 위험의 최소화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금고사업을 위한 전문가단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텍'의 권정순 변호사가 약정 체결과 채권 확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세림회계법인'의 이상근 회계사가 기업 재정 건전성 자문을,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의 장대철 연구 교수가 기업 경영 관련 경영 자문을 제공한다.

대부금을 받은 기업들은 반기별로 기업 성과 보고서를, 매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재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경영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걱정한 시기에 개입, 기금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회적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사업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는 모습.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심사위원이 다방면에 걸쳐 심사를 한다.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평가용 도구 개발

재단의 또 다른 강점은 잘 조직된 평가 기준과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2006년 KAIST 경영대학원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 측정 및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 2007년에는 매뉴얼을 개발, 최초의 한국판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 사회적 투자수익률)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를 2009년에 출간했다. 같은 해에는 이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성과 보고서』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10대 주요 성과지표'를 수립했다.

사회적기업 지속 가능보고서 10대 주요 성과지표

사회적기업가 > 이윤 추구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나가는 핵심 주체인 사회적기업가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되었는가? 사회적기업가의 경영 철학이 확고한가?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고용 > 고용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어느 정도의 고용이 이루어졌는가? 피고용인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고용의 질은 만족스러운가? 고용으로 인해 피고용자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졌는가?

제품 >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며 어떠한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서비스 >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공급받은 취약계층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자원연계 >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는 잘 이뤄지고 있는가?

환경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 사회적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지배구조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인가?

이윤 분배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따라 이윤의 2/3 이상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사용된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재무 성과 >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해야 하므로, 재무성과는 얼마나 달성했으며 경영 성과는 얼마나 양호한가?



SROI 강연 모습. KAIST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SROI는 재단만이 보유한 짜임새 있는 평가 기준이다.

대부금 1백억 돌파, 상환율도 높아져

2012년, 누적된 대부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 대부사업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자본시장과 정책 자금의 사각지대를 충실히 메운 결과였다.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충실히 대출금을 갚아나갔다. 10년 동안 2개의 사업체가 파산하기도 했지만, 상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기업이 대부금을 갚았다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부를 받은 기업이 폐업의 위기를 벗어나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으나 그 노력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재단만의 차별화된 노하우 덕분이다.

증언 >>>

“자금 조달 어려운 기업에 저금리 대출 큰 도움 됐다”

‘주식회사 컴윈’의 대출은 모두 3건이었다. 2004년에 2억 1천만 원을 대부받아 대구와 대전, 안산에 각각 공장을 임대,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는 은행으로부터의 고금리 대출을 위해 다시 2억 3천여만 원을 대출한 건이었다. 화성공장 준공 이후 시중금리로 대출된 은행 자금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다. 연 7.9%에 달하던 고이율을 평균 2~4%로 전환함으로써 연평균 2천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었다. 덕분에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세 번째 대출은 대기업과의 계약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공장시설 개선 자금 5천만 원이었다. 비록 대기업과의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제조시설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체 일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컴윈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져 실제 금액보다 많은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었다. 장기 발전 전략에 맞게 이루어진 지원은 컴윈의 제조 프로세스에 적절하게 들어맞았고, 덕분에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이 없거나 혹은 부족하여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운에 감사한다.

권운혁 _ 사회적기업 ‘컴윈’ 대표

증언 >>>

“단순한 지원 기관이 아니라 동업자였다”

1999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부채와 인건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인들의 도움이나 카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기적 순환에 따른 부작용이 5~6년간 지속되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회사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 ‘함께일하는재단’의 대부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융자받은 1억 5천만 원은 개인 사채·카드 대출 상환,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대부금은 원활한 자금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것은 곧바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체계적인 인력 투자로 이어졌다. 어려움이 해결되자 매년 50% 이상의 매출 신장을 이루었고, 2012년에는 70억 원 이상의 매출 규모를 예상하고 있으며 고용 인원도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으로 일한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힘을 내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대부지원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아직도 재단의 실무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우리 회사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재단은 그저 단순한 지원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같이 개척하는 동지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동업자나 마찬가지로였다.

정희석 _ 사회적기업 ‘푸른환경코리아’ 전 대표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인사 모여 늘 북적대며 일하는 곳으로

안재웅 제2대 상임이사

나는 (재)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로 2005년 12월에 선임되어 2009년 6월까지 일했다. 나는 기독교기관에서 평생 일하였고 그중 2/3 이상을 해외에 나가 국제기독교 기구에 종사하다가 2005년 은퇴했다.

전실련과 누적된 현안 해결, 사무국장도 새 사람 임명

귀국한 다음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라는 생소한 기구에서 일을 시작했다. 내가 선임이 되자 재단의 실무를 책임진 세 명의 팀장이 내 집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현황 이야기를 해줬다. 재단은 꼬일 대로 꼬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전실련과 누적된 현안을 해결해야하고 사무국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의 임명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전실련은 오충일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터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재단기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했던 당사자와는 직접 서너 차례 만나 설득한 결과 잘 해결되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재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故강원용 이사장님과 협의를 거쳐 이은애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후 재단은 내실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에 올인, 재단이 허브역할 맡도록 유도

나는 ‘사회적기업’이 회자될 때 재단이 올인할 분야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국장을 앞세워 고용노동부와 이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활발하게 접촉함으로써 재단이 허브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시민사회 관련 실무자들을 교육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역허브도 구축하였다.

교보생명보험(주)과는 간병서비스사업을 하는 (재)다솜이재단을, 그리고 에스케이 텔레콤과는 결식이웃지원을 위한 (재)행복나눔재단을 만드는 일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였다. 포스코청암재단과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함께 기획하였고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아동복지교사 지원중앙센터”를 네 개 시민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시작하였다.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에스비에스(SBS) 텔레비전 모금캠페인을 여러 유관단체와 함께 펼치게 되었다.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호평을 받기도 하였고 청년네트워킹 '희망청'을 만들어 청년백수연대로 하여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단을 '늘 북적대며 일하는 곳'으로

재단의 전반적인 정책기획을 전담 할 '정책연구원'을 부설로 두게 되었고 '함께일하는 사회'라는 저널을 출판물로 내었으며 '(재)함께일하는재단'으로 재단의 명칭과 CI를 바꾸기도 하였다.

재단 건물에는 (재)다솜이재단, 아동복지교사 지원중앙센터, 신나는 문화학교, 희망청, 일자리창출 인큐베이팅센터, 마포방송 등이 자리 잡아 북적대며 일하는 곳이 되었다. 또한 '2007년 대선 때는 이회창, 이해찬, 장기표 등 예비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여론 청취를 겸해 재단을 방문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측 인사들과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 인사들, 기업의 사회공헌팀 관계자 그리고 해외 방문인사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요긴한 미팅포인트가 되었다. 나는 함께 힘을 모아준 동료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일 처리로 행복하게 재단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열성을 다해 일하는 동료 실무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나는 이들로부터 결혼주례를 부탁받기도 하였다. 나는 세 쌍의 결혼예식의 주례를 맡는 행운도 얻게 되었다. 그중 한 분은 캐나다 출신의 신랑을 맞이하는 혼례여서 두 나라 말을 써야 했다. 후회되는 일 하나를 꼽는다면 전 직원연수회를 금강산에서 가지려는 것을 막은 일이다. 때가 12월 하순이어서 눈이 내리게 되면 낭패를 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눈은 내렸고 날씨도 매서웠다.



제 15 화

아시아의 사회적기업가, 함께 꿈꾸다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연대

“이번 대회가 아시아 사회적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송월주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대회’ 조직위원장의 인사였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연구자 간 교류가 드디어 아시아에서도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는 참석자들. 이들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방문한 후 앞으로의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한 곳에 모인 아시아 지역 사회적기업가

2008년 10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 모인 250여 명의 국내외 사회적기업가와 24명의 희망코디네이터 자원 봉사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월주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대회(ASES: Asian Social Entrepreneurs Summit, 이하 ASES)’ 조직위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장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개회사를 하는 송월주 조직위원장.

ASES는 아시아 최초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이번 대회가 아시아 사회적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영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제프 쉐ن(Jeff Shen) 중국 푸핑 개발연구소 대표의 인사가 이어졌다. 각국 대표로 참가한 사회적기업가들은 환한 표정으로 옆자리의 참가자들과 악수하며 서로 어깨를 두드렸다.

그동안 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연구자 간 교류가 드디어 아시아에서도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최초의 아시아 지역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의 모임이니만큼 각국 현황 소개를 중심으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기초 강연, 업종별 분과회의, 사회적기업 노리단 공연, 사회적기업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08 ASES에 모인 사람들은 『2008 ASES 서울 선언』을 발표한 뒤 앞으로의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서울 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8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대회 서울 선언 Seoul Declaration of ASEA 2008

아시아 8개국과 여러 지역에서 모인 우리는 탈 지역적인 대안 사회 구축을 위해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우리는 아시아 각 국가들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기업가적 정신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내의 지리적·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서로 협력하고 교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상호 정보 교환과 연구 및 혁신을 위해 정기적인 총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 우리는 각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 민간 기구 등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도모할 것입니다.
-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전 세계 사회적기업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자비로 참가 신청한 사회적기업가 늘어나

제2회 ASES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됐다. 대회가 가진 의미와 필요성이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전해진 덕분에 해외 참가자 중 48%가 자비를 들여 대회에 참가했다.

제1회 대회가 각국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과제를 연구자나 지원체가 소개하는 형태



제2회 ASES에 참석한 사람들이 문화 유적을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단은 ASES 참가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2회 ASES대회는 업종별·형태별 사회적기업 분과회의를 통해 심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들은 협력을 통해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결의했다.

였다면, 제2회 대회는 개별 사회적기업가들이 각 기업의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 형태도 업종별·형태별 사회적기업 분과회의를 총 아홉 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별 심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대회가 종료되고 난 뒤에도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한국 사회적기업과 별도 워크숍을 가지는 사회적기업가가 십여 명에 달하여, 한국 사회적기업가들의 국제 협력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창구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는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협력의 장’으로

제3회 ASES는 “SELF Asia with ASES”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SELF: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in Asia)과 동시에 2012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북 전주에서 진행됐다. 제3회 대회는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파급력과 지역과 세상을 연결한다는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협력하여, 전 세계 21개국 500여 명의 아시아 사회적기업가와 관계자들이 만났다.

대회 개최에 앞서 국내외 차세대 사회적기업가 56명이 전주에 모였다. 이들은 2박 3일간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을 다지는 청년캠프를 통해 청년 사회

적기업가 및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체득했다. 이 대회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자본주의의 위기, 사회적기업의 현주소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정책 포럼, 각국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원 연계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73개의 사회적기업 중 57개 사회적기업이 대회 기간 중 한옥마을 곳곳에서 업종별로 모여 전시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들의 풍성하고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ASES 참석 현황〉

년도 (참가국 수)	전체 참가 인원(명)	해외 참가 인원(명)
2008 (8개국)	150	33
2010 (15개국)	250	63
2012 (21개국)	500	76



제3회 ASES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와 체험코스가 마련되었다.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국내 넘어 해외로

긴급 구호가 해외 지원 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일하는재단은 근본적인 빈곤 해소를 위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Smile Together Partnership)’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한 공중파 방송(SBS-TV의 프로그램 ‘희망TV’ 방송)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과 이 프로젝트의 사업 취지에 동의하는 다양한 후원금으로 해외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재단의 해외 협력사업 중 하나이다.

아동 빈곤의 근본적인 퇴치와 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론은 역시 ‘일자리’였다. 아이에게 일시적으로 빵이나 학용품을 지급하기보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의 부모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어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동 빈곤 퇴치의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 재단은 2010년부터 ‘스마일투게더 파트너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제3세계에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었다.

첫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헤어져 도시로 나가 저임금노동자로 사는 삶을 지양하고,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을 양성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에서 볼 때 언젠가는 한국은 결국 제3자이므로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역에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청년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재단이 해외에서 펼친 사회적기업 설립 사업의 기초가 되었다. 이외에도 회계사, 경영대학, 비즈니스 컨설턴트로부터의 재능 기부, 사회적기업 분야별 자원 연계를 통하여 재단이 지원한 기금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었다. 2012년부터는 한국 NGO나 해외 거주 한국인을 거점으로 한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해당 국가의 현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관 및 지역 주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은 아시아 5개국(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역량 키우는 사회적기업, 지역이 살아나다

라오스 ‘푸딘당 청소년센터’

라오스의 ‘푸딘당 청소년센터’는 2007년 개관 이래 지역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여러 나라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었으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단은 이 센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아시아자원활동네트워크(AVAN: Asian Volunteer Action Network)’와 함께 센터가 입지한 공간에 ‘카페줌선(Cafe Zoom Sun)’을 개설했다. 이어서 센터 근처의 빈민촌에 초등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스텝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태국 치앙마이YMCA에서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스

탭을 파견했다. 이들로 하여금 자립 경제와 재생에너지, 통합 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시아 전통 요리와 상권 분석 등 현장 활동을 경험하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유네스코 RICE(Regional Initiative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기후환경변화 워크숍'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센터에서 코디네이팅하고 관리했으며 주변의 유기농 농장과 연계하여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지원했다. 현재 약 200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40명의 중학생이 센터가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다.

'카페 줌션'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역 청소년 센터를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센터 내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도모하는 시도이다. 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신들의 뒤를 이을 지역 청년들을 계속하여 길러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역량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을 스스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진정한 자립을 위해 지역 역량 강화에 힘쓰는 '카페 줌션'의 모습.
'카페 줌션'은 지역 청소년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있다.



제 16 화

청년, 희망을 위한 작은 실험

청년 실업 네트워킹 위한 공간을 마련하다

'삼일절', '이태백'이 만연한 사회에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절실했다. 재단은 청년 구직자들의 열정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실업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담론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 블록(Lego Block) 다루듯이 만지는 세대야. 안 그래? 거의 모두가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할리우드 액션영화 정도는 볼 수 있지. 타이핑도 분당 3백 타는 우습고 평균신장도 크거든.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고.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잘 해도, 아니 비슷하게 하기만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놓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된 거지?”

김영하의 소설 『퀴즈쇼』 (문학동네, 2007년) 중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된 거지?”

소설 『퀴즈쇼』의 주인공인 ‘민수’가 묻는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드(미국 드라마의 준말)를 다운받고 인터넷 서핑으로 소일하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햇볕 한 뼀 들어올 창문조차 없는 1.5평짜리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됐다. ‘대학원까지 나온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했던만, 민수를 불러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법으로 규정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알바’ 인생이다. 그래서 민수는 묻는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된 거지?”

소설 『퀴즈쇼』가 출간되기 두 달 전,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는 그의 저서 『88만 원 세대』에서 청년 실업에 대해 “40~50대가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인질 경제이며 승자 독식게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수많은 ‘민수’들의 질문에 대한 이 사회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88만 원 세대’의 한편에는 IMF외환위기 초기 졸업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실업 뒤편에는 과잉공급된 대학졸업자군(群)과 내실 있는 중견기업 부족,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문제, 취약한 고용안정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청년 실업을 ‘눈높이를 낮추려 들지 않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 청년 실업자들은 깊은 좌절에 빠지고 말았다. 대학 졸업식에 졸업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십대들은 ‘십장생(십대들도 장차 백수가 될 것을 생각해야)을, 이미 장기간 취업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던 청년들은 ‘삼일절(31세가 되면 취업길이 막혀 절망)을 수런거리며 고용 불안에 떨었다.

백수파티, 네트워킹을 구상하다

2004년 2월 28일,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취업 기원, 백수 탈출 졸업파티’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자신을 부끄럽게만 여기던 미취업 대졸자들이 스스로 ‘백수’임을 선

포하며 개최한 졸업 축하파티였다. 청년 실업자 자구(自救)모임인 '전국백수연대'와 실업극복국민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백수파티에 참석한 청년들은 위스키에 희망을 상징하는 레몬과 건강을 상징하는 매실을 섞은 '취업 기원주'를 손에 들고 "나는 일하고 싶다!"를 연호했다. 불안한 심리 때문인지 카페 한쪽에 마련된 취업 사주풀이 코너는 자신의 미래를 점쳐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축하파티'였지만, 정작 파티에 모습을 드러낸 청년 실업자들의 심리는 위축될 대로 위축돼 있었다. 명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모(24)씨는 학점 3.6점, 토익 930점의 성적으로도 면접 심사에서 3번, 서류 심사에서 4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격으로도 안 된다면 뭘 더 할 수 있단 말이나"고 항변하면서 "벌써 용기를 잃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냈다. 참석자 일부는 행사장에 준비된 가면으로 끝까지 얼굴을 가렸다. 댄스파티의 음악은 흥겨웠지만 춤을 추는 이는 없었다.²¹⁾

행사가 끝난 후, 청년 실업자들은 다양한 진로 개발을 위해 서로 의지하며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문제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됐다. 재단은 이들의 정례 모임을 만들어 이를 청년 실업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도 청년 구직자들의 열정을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담론의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들을 지켜보며 격려해주는 물리적·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재단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희망청'을 오픈했다.

전국백수연대와와의 새로운 실험…… '희망청'

재단은 2004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년들과의 인터뷰와 사례 조사를 거쳐 '가칭'청년 실업자 네트워킹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다. 장소는 재단 사옥의 2층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청년의 다양한 도전정신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자 재단은 위탁단체를 공모, 심사를 거쳐 2006년 초 '전국백수연대'를 선정했다.²²⁾

백수연대와 함께 문을 연 이곳에는 '희망청(希望廳)'이라는 문패가 걸렸다. 인테리어 설계 기획자이자 '희망청'이라는 명칭을 기부한 조윤석 씨는 "대한민국 청년의 희망을 주재하는 곳이라는 뜻 외에 청년이 가진 한쪽 날개에 희망청이 달아주는 또 한쪽의 날개로 온전한 날개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초의 의미와

21) 2004년 2월 29일 한겨레신문, "청년 실업자여, 움츠린 가슴을 펴라" 재구성

22)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는 'SK텔레콤'이, 희망청 홍보는 취업 포털 사이트인 '커리어다움'이 각각 지원했다.

는 다르게 조금은 식상해져버린 단어에 '청'을 달아, 청년(靑)들의 목소리를 듣고(聽), 그들의 요구(請)와 희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이전에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 건립되었던 청(廳)이 되리라는 염원을 명칭에 담았다.

색다른 시험을 위한 시동을 걸다

2006년 7월 5일, 재단 2층에서 희망청 개소식이 열린 지 1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보였다. 청년 실업자들 스스로 희망청을 찾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청년들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로 시작한 희망청이 이제는 청년들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청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상담사업과 청년 실업자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 대여사업만으로는 청년과 단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청년 관련 정책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했다.

2008년에는 청년 실업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력과 창의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경험 등을 두루 갖춘 '노리단'을 2기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했다. '노리단'은 이전에 없던 참신한 청년 지원사업들을 기획,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다.



희망청 개소식. 희망청은 기존의 다른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청년 정책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자처했다.



일정을 논의하는 희망청 직원들의 모습. 노리단의 위탁을 받은 희망청은 직접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과 일, 새로운 접근법으로 만나다

이 무렵(2기)부터 희망청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안을 찾는 ‘복도포럼’과 청년들의 퍼포먼스와 미디어 플레이를 통해 사회에 알리는 ‘88무브먼트’,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희망코디네이터’ 사업을 진행했다.

복도포럼은 3회에 걸친 포럼과 20대가 주체가 되어 열린 간담회, 그리고 1회의 심포지엄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2008년 6월의 복도포럼에서는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과 김종휘 하자센터 기획부장 등이 참가, 희망청의 장기적인 청년지원대책으로서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때 논의된 내용은 다시 9월의 복도포럼으로 연결되어 노동부 주관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에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라는 사업명으로 실현됐다.

‘88무브먼트’는 미디어 플레이를 통해 청년을 사회의 중요한 당사자로 등장시키는 데에 큰 몫을 했다. 퍼포먼스 오프닝파티인 ‘The Tempest’를 비롯해서 총선 정책 제안인 4월 액션 ‘20대가 열쇠다’, 5월 액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퍼포먼스 ‘20대도 미치다’로 구성됐다. 이 중 ‘20대가 열쇠다’는 온라인 한겨레신문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20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광범위한 시민단체와 기업, 학계, 정부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20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20대 당사자조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인턴십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단지 스펙 관리 차원의 관성적인 활동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희망코디네이터’는 사전에 협력 기관과 상호 역할을 조율하고 청년 인력을 모집하여 현장 업무를 맡겼다. 일의 기획 단계부터 기업 경영 흐름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희망코디네이터’의 목적이었다.

‘희망코디네이터’의 첫 번째 활동은 ‘한국 사회적기업 한마당 2008’의 자원봉사로 시작됐다. 각 대학의 취업 관련 부서와 외국어학과, 20대 온라인 모임,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에서 모인 ‘희망코디네이터’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메일 작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그 밖의 희망청 사업에도 참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청년, 나를 성장시키는 일을 찾다

2009년의 희망청 사업 목표는 ‘일’에 대한 고찰이었다. ‘현실’이라는 굴레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청이 제시한 것은 ‘두 가지 모

두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2009년 5월 1일, '노동절'이기도 한 이날 젊은이의 거리인 홍대 앞에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였다.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쓰인 글은 다소의 아하게 보였다.

“당신에게 일이란?”

노동하는 사람들의 날인 메이데이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이데이’ 행사는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행사는 일에 대한 생각이 더욱 거시적인 문제와 연결되도록 기획되었다. 국적과 분야를 초월하여 다양한 청년 문제 전문가를 초청, 토론과 퍼포먼스, 전시 등을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와 민주노총에서도 희망청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

으며 특히 행사에 초청된 일본의 노조 운동가 ‘아마미야 카린’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희망청’의 존재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살롱 드 일론’은 장기화되어가는 청년 실업 문제를 대안적인 직업 탐색이나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청의 장기 강연 프로그램으로서 8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판지일보’의 김어준 대표, 인디레이블 ‘붕가붕가레코드’의 고건혁 대표, ‘에이지21 출판사’의 ‘하라다 에이지’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사들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마포는 대학’ 프로젝트는 ‘마포’라는 지역적 특성을 재해석,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나 소외된 지역문화를 복원하는 과제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일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동네 자전거포나 구멍가게가 강의실이 되고, 해당 상점의 주인이 강사가 되어 자신만의 노하우를 청년에게 전수해 주는 방식이었다. 300여 명의 청년들과 수업 코디네이터 30명, 20여 명의 지역 장인이 어우러져 15개의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들은 큰 인기를 끌었다. 세계 일주 여행자에게 월드팝 배우기, 주먹밥 만들기, 두 줄 기타 연주법과 작곡법, 옛날 만화영화 회상법 등 대학이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풍성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메이데이’에서 프리허그(Free Hug)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가자. 이날 행사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희망청의 다양한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진은 ‘마포는 대학’ 프로그램.

‘꿈지락거림’으로 청년을 말하다

2011년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참여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은 희망청이 기획한 사업에 참가하는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희망청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꿈지락 기획단’을 준비했다. ‘꿈지락 기획단’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꿈지락거리리는’ 생각들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줄이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는 사업이었다.

이의 준비 운동 단계로 ‘지각생(知覺生) 프로젝트’가 독립과 사회 참여를 주제로 열렸다. 독립잡지팀 ‘헤드레이크’와 자립 음악가 ‘단편선’, 언니네트워크 활동가인 ‘더지’는 강연을 통해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희망과 현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토대를 기준으로 독립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이 끝나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글과 사진으로 엮은 전시회 ‘뒤희는展’이 개최됐다.

‘꿈지락 기획단’의 본격적인 활동 단계인 ‘성취 프로젝트’는 평소 고민하던 생각들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었다. 거리의 전단지지를 줍는 퍼포먼스를 행해 온 ‘프로젝트 뼈라’ 팀은 단순한 거리 청소 활동을 ‘해로운 거리를 바꾸자’는 캠페인으로 전환, 팀명을 ‘특화로 놀자’로 변경하고 새로운 거리문화 조성을 시도했다.

‘One Day Class’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과 돈의 제약 없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인 대상 강의를 기획했다. ‘당신의 속셈학원’은 종교 권유부터 일상적인 대화까지 사람들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우리 동네 미스터리 가게들’ 팀은 재개발 예정지인 동네 모습을 채집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고, ‘회화과는 백수 양성과’라는 교수님의 말에 자극받은 회화 전공 학생들은 ‘작업하고 있습니다’라는 팀을 꾸려 개별 작가 중심의 소규모 섭외 방식으로 게릴라 전시를 했다.

‘꿈지락 기획단’에서 진행한 각종 프로젝트들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 하지만 스스로 찾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일은 왜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실천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꿈지락기획단은 청년에게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은 직접 기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일머리를 키울 수 있도록 2~3개월간 친구, 선배가 멘토가 되어 함께 진행한 실험적 프로젝트이다.

G마켓과 함께한 대학생 학자금 후원사업

대학 진학률이 80%인 시대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도 학생들은 등록금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진다.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당장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민간 영역의 긴급 지원만큼 든든한 후원군은 없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왔지만, 2011년 2월부터는 그나마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G마켓과 함께일하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대학생 학자금 후원사업’은 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명씩 총 30명을 선발하여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의 절반인 20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금 후원사업’이 그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10개월간 매월 1백 명씩 총 1천 명을 선발하여 학자금 대출이자의 1년간 평균 금액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후원사업’이다. 첫 달에 실시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10명 선발 모집에 1,1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G마켓 장학금 전달식 장면.

청년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형

2011년 9월, 재단 강당에서 열린 ‘Let’s do it ourselves’ 토론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사회안전망과 금융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워킹푸어(Working Poor)’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부조조직을 설립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청년유니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연대은행’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 문제의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을>을 통해 청년희망기금 조성, 일꾼 실현프로젝트, 청년 친화 일터 가맹점 확산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일본반빈곤서로돕기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재단은 관련 연구활동과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왼쪽) 그 이후에 청년유니온과 협력하여 청년 스스로 상호부조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오른쪽)





제 17 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전도사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과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재단이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에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원칙이 있었다.



탁월한 아이디어의 벤처기업이 뜬다

미국의 유명 주립대학교인 'UC버클리'에서는 우수한 소셜벤처 아이템을 선발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해마다 GSVC(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라는 이름으로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GSVC는 '사회적기업의 노벨상'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45,000달러의 상금이 전부가 아니다.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은 세계적인 벤처기업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소셜벤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그간 GSVC를 눈여겨보던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양질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적 GSVC는 2006년에 현실화됐다. 재단은 연세대학교, ARK투자자문과 손을 잡고 SVCK(Social Venture Competition Korea)를 개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의 과정을 거치는 신생 소셜벤처기업들에게 있어서 SVCK는 사회적기업의 등용문이나 마찬가지였다.

2008년, 재단이 G마켓과 함께한 실시한 '워크투게더(Work-Together) 공모전'은 탁월한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선발하고 사업화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아이디어 위주의 선발대회와 차별화를 시도한 사업이었다. '워크투게더'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실제 경영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활동비와 컨설팅, 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 그 성장 결과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실전형 경연대회였다.

'워크투게더'는 이후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참고 모델이 되어 정부 차원의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일조했다.



워크투게더(Work Together)는 사회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한국 최초의 시도였다. 이후 워크투게더는 '소셜벤처 경연대회'로 이어진다.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재단에서는 소셜벤처의 활발한 도전과 성공은 이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그 형태와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셜벤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셜벤처는 기존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전적인 기업 형식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를 결합한 조직이다. 의미상으로는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①특별한 조직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기업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 ②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는 점 ③참신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다듬어 나감으로써 성공에 대한 기대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인증 사회적기업과 형식적으



2010년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팀은 국제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경연대회 과정의 전문가 멘토링은 사회적기업에 첫 발을 내딛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로 구분하는 명칭이 바로 소셜벤처다.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재단이 운영 총괄기구로 참여한 소셜벤처경연 대회는 전국에서 권역별로 예선을 치른다. 예선을 통과한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최종 입상팀은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대 3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 지원을 제공받는다. 대회 중간에 제공되는 전문가들의 멘토링은 사업 아이템의 발전과 함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주로 20~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받는 동시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최고의 데뷔 무대인 셈이다. 재단은 이 대회에 2008년부터 3년간 운영 총괄 기구로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인 운영 방식 구축과 대회의 저변과 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갓 태어난 청년 사회적기업

2009년 9월, 생명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운영하는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운영사업 협약이 체결됐다. 재단 3층 공간의 리모델링이 완성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 이곳에서 7개 소셜벤처팀이 둥지를 튼 것을 시작으로 모두 12개 팀이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거쳐 갔으며, 이들은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청년 사회적기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부의 신', 재활용 현수막 패션업체 '터치포굿', 온라인 악성 댓글 방지 플랫폼 '시지온', 나무 심기 캠페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트리플래닛', 저

소득층 노인 보청기 보급을 위한 ‘딜라이트’, 이주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에코팜프’, 아이와 부모를 위한 친환경놀이를 보급하는 ‘오방놀이터’가 바로 그 기업이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는 지원-피지원관계에서 벗어나 가족 같은 공동체를 지향한다. 어느 누구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도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원칙이었다.

‘사회적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그에 맞는 대상을 찾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바로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믿음이었다. 이러한 가치를 배경 삼아 갖 창업한 청년 사회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징과 장점을 잘 이해하여 이것을 강화시키고, 한계와 단점을 파악하여 지원하기 위한 치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이들이 실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에 진출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효과 극대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과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전문적이고도 균형감 있는 코칭이 필요했다. 이에 센터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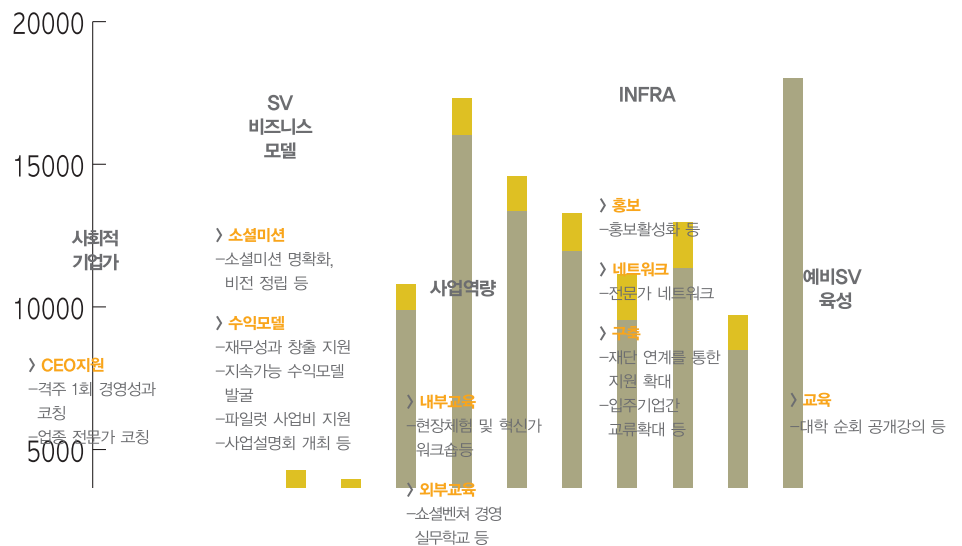
사업 성과를 발표하는 ‘시지온’.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한 예비 사회적기업들은 재단의 조언에 힘입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일구어냈다.

여 지원을 실시하되 코칭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육성을 병행했다. 그리하여 Passion, Innovation, Communication을 핵심 목표로 하여 5모듈, 30개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기초한 토탈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지원 방식에 힘입어 입주 기업들은 나날이 성장해갔다. 이들이 당초의 사업 모델을 보완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까지 약 2년 동안 수많은 교육과 컨설팅, 전문가 연계, 워크숍 등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모두 8개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총 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4명의 고용 직원이 100명으로 늘게 되는 큰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사업적 성과에 공감한 정부는 2011년부터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와 같은 청년 사회적기업의 창업 초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19개의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이 중 하나로서 양천구와 협력하여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2호점을 개소하게 되었고 2011년 35개 팀, 2012년 28개 팀을 추가로 발굴, 지원하고 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계의 독보적 존재…… ‘양천센터’



〈센터의 인큐베이팅 서비스 모듈과 프로그램〉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양천센터가 정부와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문을 연 것은 2011년 6월 말이었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 마포센터의 성공에 주목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함께일하는재단을 ‘2011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양천구와 협력하여 설립한 두 번째 인큐베이팅 센터다. 위탁을 통한 지원 내용은 청년 창업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재단은 양천구 소재의 해누리타운에 5억 원을 직접 출연하여 창의적인 공간 리모델링에 투자했다.

양천센터는 ‘누구에게나 설득 가능한 소셜미션과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 창출’을 목표로 사업 역량의 제고를 위한 멘토들의 성과코칭 과정(격주)으로 경영 성과를 관리한다.

마포센터 입주 기업은 이미 2년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영업이익을 원활하게 확보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양천센터 구조(왼쪽)와 근무 중인 입주 기업의 직원들(오른쪽)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사업 단계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된 수준이었지만, 양천센터 입주 기업은 아이디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소셜미션을 명확히 정립하여 비즈니스모델을 확정하는 등 실현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양천센터 입주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마포센터의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첫 인큐베이팅을 통해 현재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요 소셜벤처를 소개한다.

gongs!n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세상…… ‘공부의 신’

‘공부의 신’은 동기부여와 효율적 학습 방법인 자기주도 학습법을 가르치는 기업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일반 학생에게는 유·무료로 제공한다.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 콘텐츠를 공급했으며,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신’으로 인도네시아 32개 학교에서 3만 명의 학생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했다. 인터파크 반값 문제지는 출간 사흘 만에 고등 문제집 온라인 판매 1위에 올랐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 ‘딜라이트’

딜라이트의 소셜 미션은 100만 원이 넘는 시중 보청기 가격과 정부 보조금 34만 원의 격차에서 시작됐다. 저가 보청기를 개발하고 보급, 난청 환자들에게 소리를 찾아주자는 소셜 미션은 공동 구매 형식의 대량 주문을 통한 제품 생산과 유통 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대량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실현됐다. 2011년에는 김정현 대표가 ‘올해의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음악 시장의 새로운 플랫폼…… ‘사이러스’

사이러스는 “음악 창작자들이 음악시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창작자들이 직접 저작권을 관리하고 음악을 등록·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창작자가 수입의 70%를 가져가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50여 명의 인디뮤지션이 1,500곡을 홍보,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며, 사이러스의 수익은 인디뮤지션의 공연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 장비와 스튜디오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선물로 나를 알린다…… ‘시지온’

라이브리(LiveRe)란 작성한 댓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댓글을 모아보는 댓글 소통 플랫폼이다. 라이브리를 설치한 회사나 기업은 라이브리를 설치하지 않은 홈페이지에 비해 악성댓글이 95%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시지온’은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으로도 거론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기회입니다…… ‘에코팜프’

‘에코팜프’는 이주 여성이 문화적 재능을 키워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포 센터에 입주한 후 이주 여성 59명을 작가로 양성,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판매했다. 100여 명의 이주 여성에게 무료로 한글교육도 실시했다. 현재 이주 여성 작가들의 작품은 A-land와 홍대 앞 직영 매장에서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시 및 판매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고열 공동체 등 친환경·공정무역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일과 가정이 한 곳에서…… ‘오방놀이터’

가족놀이터이자 카페테리아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오방놀이터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소통, 건강한 먹거리 네트워킹의 장소다. 2012년 5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가족카페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오방놀이터는 도시의 대형 키즈카페와는 달리 소규모의 마을형 가족카페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마케팅’에서 ‘공익’ 마케팅으로…… ‘커뮤니케이션 우디’

전체 마케팅 시장 규모 대비 공익 마케팅 시장은 너무나 협소했다. ‘커뮤니케이션 우디’는 공익 마케팅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업 마케팅의 기획과 컨설팅 대행을 통해 일반마케팅 프로젝트를 공익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친다. 기업이 제시하는 예산 범위에서 마케팅 프로젝트를 후원과 모금 등 공익과 연계되도록 한다.



무한도전에서도 ‘터치포굿’

2010년 12월, 환경 특집으로 꾸러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말미에 무한도전 멤버들이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장면이 반영됐다. 이후 ‘터치포굿’에 대한 관심이 치솟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터치포굿은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을 패션가방이나 지갑 등 생활용품으로 업(Up)사이클링하여 유통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대중들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한다.



세상에서 나무를 가장 많이 심는 기업…… ‘트리플래닛’

‘트리플래닛’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상의 나무를 분양받아 기업의 광고아이템을 사용해 성장시킨 후 사막으로 보내는 게임이다. 기업은 자사의 로고를 안정적으로 노출하는 대신 NGO에 기금을 대고, NGO는 그 기금으로 실제 나무를 구입하여 숲을 조성한다.

현재 몽골 숲 5만 평에 5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DMZ 평화의 숲, 인도네시아, 강남구 등에 트리플래닛 숲이 조성됐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트리플래닛은 사막화 방지 협약, UN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고 서울과 나무심기 기금 조성 협약도 맺었다. 2010년에는 G20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되며 손익분기점도 달성했다. 또한 2011년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제 18 화

새로운 얼굴로 제2의 도약

재단 명칭 변경과 CI 제작

일반 기업에서도 사명(社名)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재단이 새로운 명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 것은, 격렬한 논의가 오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걸려오는 전화때문이었다.

“저 실업자거든요. 일자리 좀 소개해주세요”



“새 이름으로 ‘그레이프(grape)재단’은 어떻습니까?”

CI 전문업체의 제안이었다. 수많은 포도알이 모여 하나의 포도송이가 되는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실업을 극복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실업극복국민재단의 모습을 포도로 형상화했다는 설명이었다.

의견은 다시 반으로 나뉘었다. “참신하고 좋은 발상이다. 재단의 이미지를 제대로 잡아냈다.”면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이미지 중심의 네이밍(Naming)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당장 포도 재배 농가로부터 전화가 빗발칠 것이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명(社名)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재단이 새로운 명칭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격렬한 논의가 오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걸려오는 술한 전화 때문이었다.

“저 실업자거든요. 일자리 좀 소개해주세요.”

"취직 시켜주세요"와 "뭐 하는 곳이죠?"

답답한 일이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으로 전환한 지도 어언 4년. ‘실업극복국민운동’이란 명칭으로 일했던 시절까지 합하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한 재단이었다. 그동안 다양한 언론매체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해외 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그러나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사회’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그간의 노력에 필적할 만큼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동안 수많은 홍보 자료를 받았고, 또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던 언론사의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재단에서 직접 취직시켜준 사람들 좀 소개해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직원들은 재단에 대한 외부의 인식 수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런 단체도 있나요? 무슨 일 하는 곳이에요? 실업자 취업도 시켜주나요?(30세, 백수)”

“이름만 들으면 70년대 새마을운동 이런 게 떠올라요. 한마디로 촌스럽고 머리에 각인되지 않아요. 요즘 예쁜 이름 많잖아요(22세, 대학생).”

“재단도 지부가 있나요? 다른 지역 단체서도 이 로고 본 적 있는데…… (타 단체 관계자).”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 중에서

설문 조사 결과,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됐다.

하나는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라는 명칭의 모호함과 타 기관 명칭과 유사함에 따른 오해와 오기(誤記)였다. 일례로 2007년 10월 18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노동부는 정부 예산을 탈·불법적으로 지원받은 시민단체들 중에는...(중략)... 실업극복국민운동 등 명망 있는 단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는 기사가 실린 이후, ‘실업극복국민운동’ 을 재단으로 오인한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했던 일이 있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시절부터 파트너 기관들과 공통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던 것도 문제였다. 지역단체의 로고를 본 사람들이 재단을 해당 지역단체의 본부로 인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새로운 미션을 위한 새로운 이름 필요

내부적으로도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쌓아온 재단의 사업 이력을 구체화하고, 실업 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해야 했다. 고용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전을 명확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명칭과 CI가 필요했던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바꾸자’ 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뜯어보자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수정 요구가 나왔다. 그동안 이런 불만이 제기되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라는 명칭이 재단의 사업 실체를 명확히 전달하고는 있으나 미래 지향적 가치 표현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재단이 앞으로 꾸준히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가치인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와 ‘복지’ 를 포괄하지 못하고 친근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서체의 적용도 어렵고 현대적 이미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영문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한 가지 제안에 백 가지 의견…… 한겨울의 뜨거운 논의

2007년 12월 26일, 송월주 이사장과 전팔근 이사, 김정열 운영위원, 안재웅 상임이사, 이은애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 22명, CI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재단에 모여 새로운 명칭과 로고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CI 개발이 단순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실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직의 비전 재정립 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함이 동시에 강조됐다. 이후 정부와 기업,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 재단의 목적과 비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심화시켜 나갔다.

몇 개월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5월 중순 재단 내부와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 국문은 ‘함께일하는재단’ 이, 영문은 ‘Working Together Foundation’ 이 각각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명칭이 ‘(재)함께일하는사회’ 였다.

그러나 다음 달 열린 재단 비전 태스크포스(Task Force)회의에서는 ‘(재)함께일하는사회’ 를 다시 수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재)함께일하는사회’ 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재단법인’ 으로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직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칭에 ‘재단’ 이라는 단어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WT 함께일하는재단

“어법상 문제 없다”…… CI 개발도 일사천리

몇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결정된 명칭은 ‘함께일하는재단’ 이었다. 긴 여정이 이제야 끝나게 되는가 싶어 한숨을 돌리려고 할 때,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다. 과연 ‘함께일하는재단’ 이 한글 문법에 맞느냐는 문제였다. 신규 명칭에 대한 한글학회의 답변은 “어법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함께일하는재단’ 이라는 명칭 속에는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함께 일하는 우리 혹은 국가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짧아서 기억하기도 쉽다고 했다.

이렇게 명칭이 정해지자 CI 제작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됐다. 함께일하는재단의 CI는 Work의 'W'와 Together의 'T'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사회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표현했다. 동시에 WT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물결(Wave)'을 형상화했다. '물결'은 품위 있는 일자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긍정적인 파장이자, 그 파장이 사회 전체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재단 의지의 표현이었다.



2008년 10월, 재단의 이름이 새롭게 탄생하는 현판식 장면. 재단의 사업을 상징하는 새로운 명칭을 정하기 위해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 19 화

사회적기업 설립의 명가(名家)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설립 사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인 2000년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는 기업 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모델 사례로 제시했다. 재단은 전략적 기부를 통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인식을, NGO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새로운 고용창출 전략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대기업과 손잡고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든 이유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설립을 준비하던 2003년 초, 재단 사무국은 “저소득층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의 개발과 자원 개발, 정책 활동을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3년 9월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사업을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는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과 임금 지원-기업 기부와 경영 지원-비정부기구(NGO)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설립 모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모델사업’은 모금과 정부 정책을 통해 활용이 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실제로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 효과를 보임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모델사업’의 성장에는 외부적 요인도 한 몫 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불리던 2000년대 초반은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서비스산업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 전략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사회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보건과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실업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어갔다.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 중 공공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형태로 제공될 부분을 구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2004년 말, 정부 각 부처는 기업 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모델 사례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다. 그동안 노동부 주도로 이뤄진 대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다양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인식을 바꾸었다. 재단은 전략적 기부를 통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NGO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지게 된 것이다. 또 기업에는 사회 공헌 활동의 범위를 ‘사후적·자선적 범주’에서 ‘예방적·사회적 책임투자’로 확대, 혹은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대기업이나 공공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저소득 여성 인력 위한 출구가 되다
교보생명과 함께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절망을 넘어 행복으로…… 생의 전환점

1987년 어느 날, 박옥연(가명) 씨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세탁소가 잿더미로 변했다. 전신에 입은 중증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세 차례의 피부이식수술보다 더 힘들었던 것

은 남편과의 이혼, 좌절감과 배신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녀에게는 책임져야 할 쌍둥이 딸과 아들이 있었다. 대구 여성노동자회 소속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나가면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녀에게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활동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계속되는 약물 치료로 인해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어느 순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박 씨는 “누군가 내 작은 힘에 고마워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칭찬이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에 행복해 했다.

간병봉사단원 스스로에 대한 만족은 환자들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8년 환자와 보호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무료 간병서비스가 87.4점, 유료 공동 간병서비스가 81.0점을 받았다(100점 만점). 환자와 보호자들이 유료 간병서비스보다 무료 간병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의 무료 간병서비스 만족도 역시 90%에 가까웠다.

“근로자가 자부심 갖는 일자리 만드자”

2003년, 자활후견기관협회와 교보생명(주)이 20여 명의 인력으로 시작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은 2004년 실업극복국민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저소득 여성계층의 노동시장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중 70%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를 보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인 ‘교보다솜이 봉사단’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면 고용 불안과 빈곤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분명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가장의 직업은 음식과 숙박업, 이·미용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간병사업’은 근로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에게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노동을 통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외부 조건과 재원(財源)의 한계로 인해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주목한 재단은 교보생명(주)과 함께 ‘수혜자 스스로 건강한 사회 활동을 하며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간병사업’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을 발족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이었다. 간병봉사단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변화를 위한 시작이었다.

최초의 간병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수도권(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무료 간병 활동을 시작했다. 간병 수혜자는 주로 2차 의료기관(중소병원 및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과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의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그리고 무의탁환자 중 장기 입원으로 24시간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 가운데 병원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추천한 환자였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4년 2기 교보다솜이간병봉사단 발대식 모습

2005년 중반,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자립 지향형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활동 인원이 기존의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으며 활동 지역 역시 기존의 5개 지역에서 인천을 포함한 6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활동 지역이 확대되고 그간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을 먼저 찾는 병원이 늘어났다.

‘제1호 사회적기업’의 의미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원을 활용해 본 병원들은 타 병원에도 추천해줄 만큼 간병봉사단은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교보생명과 재단의 꼼꼼한 기획이 한몫을 했다.

간병봉사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교보와 재단이 공동 개설)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고, 지속적인 재교육과 보수 교육도 받아야 했다. 재단은 간병봉사단원들의 병원 내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문제 상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교보생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과 퇴직금, 근로기준법 준수 등 안정적인 근로조건은 간병봉사단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더욱 헌신하는 배경이 되었다.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

간병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최초의 계획대로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문제였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은 2006년부터 무료와 함께 유료간병서비스를 병행했다. 그동안 실제 단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던 간병비 단가를 현실화하면서 수요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조 맞교대 형식의 '공동 간병'을 추진하는 일이었다. 무료서비스는 수급권자나 일반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하루 10시간씩, 유료서비스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간병 형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간병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교보 다솜이 간병봉사단'이라는 명칭을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로 변경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명칭에 걸맞는 CI(Corporate Identity : 조직의 정체성)의 정립도 필요했다. 모든 환자에게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방향성에 맞춰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과 믿음을 상징하는 파란색, 정열과 열정, 건강함을 표현하는 주황색을 사용한 새로운 CI가 만들어졌다. 파랑새는 나눔과 돌봄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 통합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이후에도 교보다솜이 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제대로 훈련된 간병인'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굳어지면서 인력 요청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전과 대구,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유료 간병 활동은 2006년에만 3개 병원에서 19,872명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8년 1월에는 사회적기업 1호 '다솜이재단'으로 독립하여 노인요양센터를 개소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 SK와 함께한 행복도시락사업

“한 번 실수면 끝난다”…… 우려 속에서도 초고속 성장

몇 평 안 되는 좁은 공간이 다시 일반 구역과 청결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 구역별로 앞치마와 장갑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식재료에 따라 칼과 도마를 바꿔가며 사용해야만 했다.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는 이렇듯 깐깐한 관리를 요구했다. 무료급식사일 망정 위생적이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도시락이어야 한다는 급식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철저한 관리 속에 완성된 도시락은 두 대의 차에 실려 한부모 가정의 80여 명 아이들에게 배달됐다.

행복도시락사업은 기대보다 우려가 많았다. “식재료를 잘못 취급하여 위생사고라도 나면 그걸로 끝이 난다.”는 걱정이 가장 많았고, “그냥 돈을 주고 말지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라거나, “계속하면 언젠가는 그 사업에 발목 잡히고 말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행복도시락센터는 자신 있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은



행복도시락 센터는 점차 다른 지역에도 개소되었다. 사진은 행복도시락 경기 부천점(왼쪽)과 중구점(오른쪽) 개소식 모습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키워 자립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었고, 행복도시락센터에 2년간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주)SK텔레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다.

2006년 2월 23일,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중구점이 서울 신당동에 문을 열었다.

일자리가 없던 차상위계층 12명이 조리와 배송을 맡고 중구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일부를 제공했다. SK텔레콤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아 인력 수급과 경영을 담당했다. 재단은 그해 11월까지 14개의 급식센터를 더 설치했고 이를 통해 모두 62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제공받게 된 결식아동은 1만여 명이었으며 ‘행복도시락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후, 행복도시락센터는 전국에 모두 29개로 늘어났다. 공식적인 매출도 61억 원(유료판매 9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 속도를 높여갔다. 이 센터는 그후 전국 48개소까지 늘어났다.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행복도시락사업’은 다른 비영리 도시락 급식 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다. 사회적일자리가 일정한 수익모델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 없이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성장하기 위한 고민도 계속됐다. 몇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공공적인 측면만 강조하기보다는 고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사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재단은 기존 급식사업의 한계로 지적되는 근무 인력과 급식 품질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도록 했으며,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업무별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강화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적 근로조건의 보장을 필수 원칙으로 정했다.

식자재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광역단위별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보급하도록 했으며,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식자재 구매관리 시스템을 개발, 적용했다.

재단은 행복도시락사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체적 수입 기반을 마련한 이후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 주체들의 자체 기획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업체의 자문을 지원하며 사업 아이템의 상품성, 시장성, 경쟁성, 수익성 등은 물론, 자금 투입 계획의 적절성,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나 위기 대응 방안, 조직 구조와 노무관리 방안, 협력네트워크 등을 점검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또,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 행복도시락센터장에게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 경영교육을 지원하고, 출장뷔페나 식당 운영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했다.

2006년, 행복도시락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으로 변신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중소기업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적일자리가 당당한 사회적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주변의 우려 속에 문을 연 ‘행복도시락’은 HACCP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위생적이고 건강한 도시락을 생산해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강원랜드와 함께한 우드펠릿사업

일 년 내내 따뜻한 공부방이 되다

‘하늘꿈자람터 지역아동센터’로 또 한명의 학부모가 찾아왔다.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이 센터는 해발 800m의 태백 원동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자녀들. 한창 손이 바쁜 농번기에는 갈 곳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다. 비록 좁고 협소한 곳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늘꿈자람터가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태백의 날씨였다. 태백은 겨울이 길고 한 여름에도 기온이 낮아 일 년 열두 달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다. 예전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했는데 연탄재를 처리하기도 힘들었고,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많았다. 어쩔 수 없이 등유 보일러로 난방 방식을 바꿨지만, 등유는 연탄보다 연료비가 몇십 배는 더 들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꿈자람터는 연탄과 등유의 중간 정도의 연료비로 마음껏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던 부모들은 보일러 기술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일 년 내내 따뜻한 공부방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지역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노리다

태백을 중심으로 삼척, 영월, 정선의 4개 시·군이 속해 있는 강원 남부 지역은 한국의 주요 탄광 지대로 지난 시절 에너지산업의 중추였던 곳이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석탄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사업’과 함께 경제성이 없는 탄광들을 폐광시켰다. 1988년 347개였던 탄광은 2002년 10개로 줄어들었고, 폐광에 따른 실업과 인구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협약식의 모습. 재단과 강원랜드는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 아이টে으로 강원도의 '나무'에 집중했다.

감소, 경기 쇠퇴로 지역 경제는 점차 붕괴되고 있었다.

정부는 1995년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폐광 지역 내 카지노 설립이었다. 카지노 사업을 통해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고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여 특화관광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도박 중독에 대한 폐해로 '화려한 카지노 호텔과 어두운 폐광촌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지역 과제가 대두되었다.

강원랜드는 역발상을 시도했다.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기존 방안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사업을 고민한 것이다. 강원랜드와 재단이 함께 고민한 끝에 찾은 사업 아이템이 바로 '우드펠릿(Woodpallette)'이었다. 우드펠릿은 1kg당 가격이 300원에 불과한 데다, 우드펠릿 2kg을 태울 때 발생하는 발열량이 경유나 등유 등 화석연료 1리터에서 얻는 발열량(900kcal)과 맞먹는다. 우드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면 기름보일러에 비해 약 40%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기름보일러의 27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저렴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충분했다. 우드펠릿의 원료가 되는 목재는 강원도에 풍부하며, 우드펠릿 보일러 기술자를 지역에서 양성한다면 충분한 지역 일자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강원도의 자원을 가지고 강원도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지역 선순환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다. 사진은 보일러 설치와 수리를 위한 사업자 교육 모습이다.

일자리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우드펠릿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우드펠릿이 만들어지더라도 수요처가 없으면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공모를 통해 우드펠릿 보일러를 설치할 곳이 우선 정해졌다. 노인정과 보육시설, 저소득 가정이 우선순위로 선정되고, 이어 우드펠릿으로 가동되는 보일러가 설치됐다.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은 폐광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명으로 구성됐다.

재단은 이들에게 우드펠릿 보일러 설치 방법이나 사후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4개 폐광 지역 시군의 사회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옥에 우드펠릿 보일러 50여 대를 무료로 설치했다.

기름보일러 대체 효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면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하여 탄소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에너지 교환 계획’도 재단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2011년,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은 지역 내의 각종 자활기관과 협력하여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 이 분야의 사회적기업 1호로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다.

‘마을 경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시초 문화재청과 함께한 ‘문화재관리 일자리 사업’

중요한 문화재 관리, 그러나 현실은……

‘문화재 관리 일자리’는 정부와 재단이 함께 사회적일자리를 고민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적 선호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리, 유지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제공된 문화재 분야는 지정문화재 중에서 일상 관리가 어려운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특별 관리 인력과 야간 감시 인력을 투입하는 수준이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대부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위탁 관리되고 있었으며,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의한 문화재 특별 관리 인력과 야간 감시 인력 파견 정도의 관리로도 벅찼다. 문화재의 수리나 보수를 위해서는 보수의 필요성 제기부터 보수까지 총 12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수리를 하더라도 예산 편성과 공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추가 피해로 인한 보수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문화재가 대부분 농촌에 산재해 있는 것도 문제였다. 특히 전통민속마을의 경우에는 농촌 인구의 일반적인 이농(離農) 추세에 따라 고령화·공동화 현상이 심각했고, 날로 늘어나는 공가(空家) 대책이 시급했다.



전통 고가옥의 관리와 유지보수 뿐 아니라 전통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 사회적일자리 사업 설명회 모습. 사회적일자리는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지관리’와 ‘보존’의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마을 경영’의 관점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또,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팽배해 있던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문화재는 지역사회 부(富)의 원천’이라는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례가 매우 절실했다.

문화재 관리 일자리사업의 모델, 고택문화재사업

고택문화재는 보수예산의 부족으로 상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08년 12월부터 사회적일자리 관련 인력이 투입되고, 가옥소유자협회에 의한 민간 위탁 관리가 이루어졌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은 지자체 경상보조비로 예산이 집행되다가 2010년부터는 소유자협회에 의한 민간단체 보조로 전환됐다. 사업 내용은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와 가옥의 일상 관리, 화재 감시와 도난 방지, 문화재 훼손 시 신고 등이다. 예방적 수리와 경상보조비가 관리단체와 경미 수리 보수반의 운영비로 쓰이고, 일상 관리 인건비는 사회적일자리로 지원받았다.

사회적일자리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고택문화재에 대한 일상 관리 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설립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고, 해답은 재단과 문화재청, 고택협회가 문화재운영협회를 발족하여 고택의 운영과 관리를 전적으로 담당

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문화재 경영’을 모토로 한 ‘문화재 관리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의 투자와 설립·운영에 주민 참여 조직 등 민간단체(NGO)를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문화재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문화재 관리 일자리’는 2012년까지 3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91개의 가옥 문화재에 대한 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80개의 가옥문화재와 6개의 민속마을에 상시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문화재 일상 관리의 기초 체계를 구축했고, 고택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과 이주 여성, 노인, 여행객에게 1년 동안 65만 회의 문화관광서비스를 제공했다.

‘문화재 관리 일자리’는 이후 문화재청의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해설사 등의 사업으로 확장되어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한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마을’로 선순환
LH와 함께한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

마을에서 수익 얻고 마을로 투자하고……



마을형 사회적기업 만들기를 위한 협약식 모습.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금을 다시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LH공사는 공기기업이다. 공기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 공간 제공의 방법으로 제시한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란 임대단지 입주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지향한다. LH공사의 전국적인 조직 기반과 지역 밀착적인 특징은 기업과 사회가 공유가치를 찾아 연계하는 활동이 기본이 된다. LH공사는 이 사업에서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역 선정, 사업의 발굴·개발 지원, 회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개설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0년,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한 LH공사와의 마을형 사회적기업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일자리 3개에 각각 20명씩의 인력을 고용하고 하루에 40명씩 총 120여 명의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LH와 재단은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지원사업과 동시에 임대단지 내 공동시설을 활용한 공부방 지원사업도 추진하였다.

마을 만들기, 이제부터 시작

2012년 말,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마을형 사회적기업인 '동구행복네트워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돌봄문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성화동에 조성한 '행복마을'은 저렴한 유기농산물을 도시에 유통시키기 위해 농산물을 세척하고 포장하는 '로컬푸드 전 처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기존에 관리비로 운영되던 아파트의 단순관리업무를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주관리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도 창출했다.

경기도 시흥시 능곡지구의 '자연마을'은 공동체 복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10%, 5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15%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체 아카데미'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통해 주민 간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농부학교'의 문을 열었다.

이렇듯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의 생활협동조합 등과는 달리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는 지역 돌봄 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보편적 다수의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 20 화

현장에 나선 기업들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진화된 기업사회공헌

2009년의 기업 참여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외에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사회적경제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은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돌아가는 원동력이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으로 변화

SK텔레콤, 교보생명 등 대기업이 참여한 「다자간 협력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2009년의 기업 참여형 일자리 창출 정책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외에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기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연계기업 세제 혜택 등으로 확대됐다. 각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2005년 노동부 전체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예산 중 10%였던 기업 연계형의 비중이 2008년에는 60%(763억 원)로 증가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에서 사회적경제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사회적기업이 아카데미 지원(SK), 경영컨설팅 지원(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과 같이 사회적기업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은 물론,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업과 유통 단계 지원에 나서는 기업도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에 나서다

국내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 생협 등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대안 경제 생산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늘었지만,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았다.²⁴⁾ '인지도 부족'이나 '제품의 디자인' 등 홍보나 시각적인 문제가 컸다. 사회적기업의 역량상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판로 개척과 디자인 개발, 홍보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2006년 하반기,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건강한 소비와 생산, 유통의 장'을 슬로건으로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한겨레신문 등과 함께 대안 경제 영역의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논의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실행되지는 못했다.

판로 확보, 기업과 손잡다

2008년 재단은 독자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상품 카탈로그를 발간했다(2009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카탈로그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관계기관에만 배포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개인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 인력도 부족하고 마케팅 비용도 부족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홍보와 실질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24)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 진행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2008년)' 결과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품질에 대한 신뢰 부족(43.3%)', '인식 부족(29.8%)'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기존의 유통시스템을 사회 공헌의 방식으로 기부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에 재단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재단은 2009년 다수의 유통기업에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유통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보냈고, 'G마켓'이 이 제안에 응답해왔다.

「착한 소비 365」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G마켓 홈페이지 내에 '몰인몰(mall in mall)' 형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다. G마켓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첫 유통 지원 사례로 이후에도 많은 유통기업들에게 회자되었으며, 2010년 현대홈쇼핑과 '사회적기업 유통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재단과 G마켓은 윤리적 소비의 촉진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인력과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현실에서 '착한 소비 365'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도였다.

전문성 살려 사회적기업에 회계 인력 지원

“전문 인력이 없어서 회계 서류에 불성실한 기재 사항이 생기고 영수증이 누락되곤 한다.”

“기업 회계 기준을 맞추려면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비영리조직 출신들은 이런 훈련이 미흡하다.”

“원가 산출 경험과 근거가 부족하여 영업과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렵다.”

_ 2009년 4월 11일~16일,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재무회계 전문 인력 수요 조사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전문 인력,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관리 역량을 갖춘 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겪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

적기업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²⁵⁾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에 신한은행이 팔을 걷고 나섰다. 신한은행과 재단은 금융기관 최초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재무회계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회계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을 노동부와 함께 진행했다. 재단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노동부가 회계전문 인력의 사회적일자리, 최저임금 수준의 교육비, 전산회계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사업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수행기관 751개와 인증 사회적기업 218개를 대상으로 회계 전담 인력의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지원하여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별화된 사회 공헌 모델로 주목받았다.

(예비)사회적기업 직접 지원

창업 초기이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겠다는 기업들도 속속 나타났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는 2009년에 재단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에 나섰다. ‘착한 여행’, ‘공부의 신’, ‘하자센터’ 등 3곳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1년간 BAT코리아로부터 신규사업 개발비, 시



재단과 하이원리조트는 폐광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템을 지원했다. 사진은 '강원 지역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기금 전달식' 모습



재단은 다양한 기업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사진은 효성과 함께한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협약식'(위)과 BAT코리아와 함께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 협력 협약식'(아래)의 모습

25) 2009년 재단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0.2%가 회계 전담 인력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담 인력이 필요하므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5.2%에 달했다.

설 투자비, 종사자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았다.

한국전력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0년, 재단과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 협력 협정'을 체결한 한국전력은 두 차례의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영리단체 '일상 예술창작센터'에 3천만 원을 지원했다.

'하이원리조트'는 고용노동부와 강원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에 나섰다. 하이원리조트는 강원도와 여타 폐광 지역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지역 개발과 문화관광, 대안에너지, 로컬푸드 등 전략 분야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아이템을 지원했다.



한국중부발전(주)과 함께 조성한 '에코센터'. 폐컨테이너를 개조한 곳에 생긴 '에코센터'는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이 되었다.

2011년 말에는 한국중부발전(주)이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과 협약을 맺고 '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유희부지에 위치한, 폐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인 '에코센터'는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재활용 목재 창작 공간, 갤러리, 도서관으로 구성됐다.

효성은 「소셜 챌린저 창업 돕기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청년, 업종,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3개 기업(클린마미, (유)동물행동심리연구소 플랑플랑, 삼분의이)을 선정하여 각각 2천5백만 원의 창업 자금 지원 및 경영 코칭,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또는 포럼 참가 등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2012년에는 성장단계 소셜벤처의 성공모델을 육성하는 '청년 소셜벤처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련 심사를 하는 모습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에 집중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들은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단기(短期)기부를 넘어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을 통해 전략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LG와 한화는 '환경'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집중했다. LG는 2011년, 한화는 2012년에 각각 재단과 손을 잡고 친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당시 재단도 역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였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LG전자는 2011년 재단과 첫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환경경영' 방침에 조응하는 사업설계로 '녹색 경영'과 '녹색 혁명(Green Innovation)'을 앞세우며 신성장 동력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녹색 성장 분야의 성장 가능성 높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별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2011년도 녹색 성장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LG전자는 재단과 함께 환경과 관련된 녹색 성장 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했다. 사진은 기금 전달식 모습



LG전자와의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 자원과 연계하는 것이었다.

LG전자가 주최하고 함께일하는재단이 주관하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 성장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개 전략 업종(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재활용과 폐기물, 친환경 식품과 용품, IT 기반, 보건과 환경) 10개 기업에 시설 투자비, 사업 개발비,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원 방식은 발전 단계의 선정기관에 필요한 전문 자원을 연계하여 발전의 토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주로 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 사업의 주요 개선점을 찾아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모델을 찾고 그에 맞는 비전을 구체화했다. 6개의 전략 업종 중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 선정기관은 독일과 영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 투자비와 사업 개발비, 전문 인력 인건비를 맞춤형 기금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극대화했다.

「녹색 성장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예비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예비 사회적기업들은 서로의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으며,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서기 시작한 사업 후기에는 서로 사업적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였다.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

LG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축적된 사업의 노하우는 2012년「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재단과 LG전자는 맞춤형 기금 지원으로 각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했다. 또 예비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광범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였다.



'상생, 친환경, 복지'를 내세운 한화그룹은 재단과 함께 18개의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차 워크숍의 모습. 한화는 기업별로 1:1 멘토링을 연결하여 전문화된 지원을 펼쳤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판로 개척을 위한 투자 설명회 참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한화그룹은 2011년 11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생·친환경·복지' 분야를 테마로 한 '한화 공생 발전 7대 종합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친환경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한 상생 발전에 집중했다.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 사회 공헌사업을 주요 테마로 논의하던 한화그룹은 2012

년 3월 재단과 함께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5월, 공모를 통해 친환경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100여 개 사회적기업 중 18개 친환경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각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재정 지원과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판로 개척, 멘토링, 교육워크숍 등 기업이 지속 가능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구별되는 것은 1년간 기업별로 1:1 멘토링을 연결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을 한다는 점이었다. 이 사업은 사업 종료 후 판로 개척을 위한 투자 설명회 참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재단은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도 주목했다. KAIST와 손을 잡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분야 비즈니스 스쿨 과정을 개설하고 3개월간 40여 명에 달하는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가를 교육했으며, 사업 마무리 시점에는 4개 기업을 선정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전략 분야에 맞는 맞춤형 지원

2012년은 기업의 전략 분야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풍성했던 해였다. 국내 한국전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아젠다와 주요 사업 분야인 전력과 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재단과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과의 동반 성



한전은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전략분야 지원을, 유한킴벌리는 공유가치창출(CSV)을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로 설정하여 사회적기업과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의 에너지스쿨개소식(위쪽)과 유한킴벌리의 시니어분야의 특화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전달식(오른쪽).

장 지향'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에너지 효율 및 절전시스템(LED, 태양광, 전기자전거 등) 분야', '에너지 절약 홍보용 콘텐츠 개발 분야', '한전 인프라(전기박물관, 전기에너지관, 한전아트센터갤러리 등)를 활용한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공모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14개 사회적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한전의 노후 OA 기기를 기부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도 펼쳤다.

유한김벌리(주)가 시니어 비즈니스에 주목한 시기도 2012년이였다. 이미 시니어 대상 용품 판매를 주요한 비즈니스 분야로 설정한 유한김벌리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를 도입하여 기업이 가진 자원과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었다.

유한김벌리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요청받은 재단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고령 친화산업 육성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는 시니어를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사회적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사업 발굴, 시니어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모델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유한김벌리와 재단은 향후 몇 년간 사업 분야를 점차 확대해 가며 모범적인 고용 모델을 수립,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견인하는 한편, 시니어용품사업의 성장을 위한 생산 가능 인구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 21 화

기부,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기쁨

개인 모금 확대를 통한 배분 사업

262명의 시민들이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고, 모금함에는 약 27만 원이 모였다. 그동안 기업이나 단체와 손을 잡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재단으로서 개인 모금활동을 벌인 첫 성과였다. '재단' 과 '사람' 이 일 대 일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재단, 개인 기부자를 만나다

2009년 4월 11일, 고3 수험생인 권수영 양의 생애 최초 자원봉사는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2009 SBS희망TV 대한민국이 떴다> 캠페인이었다. 권 양의 마음을 잡아 끈 것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함께일하는재단의 ‘팝콘데이’ 프로그램. 권 양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팝콘과 홍보물을 나눠주고 설명하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주뻑주뻑 인사를 건네던 권 양의 목소리는 어느새 내리쬐는 햇살만큼이나 밝고 카랑카랑해졌다. 지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났고, “기부를 하겠다.”면서 부스로 들어와 인적 사항을 적는 사람도 생겼다.

6시간 동안 진행된 ‘팝콘데이’ 행사에서 모두 262명의 시민들이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고, 현장에 놓여 있던 모금함에는 26만 9,710원이 모였다. 제일 큰 사이즈의 나눔티셔츠를 사고 흔쾌히 잔돈을 기부한 외국인이 마지막 손님이었다. 팝콘은 동이 났고, 자원 봉사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그동안 기업이나 단체와 손을 잡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재단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재단’과 ‘사람’이 일 대 일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다른 방법

‘SBS희망TV’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SBS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로 재단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



SBS희망TV 자원 봉사자들이 개인 모금 전화를 받고 있다. 재단은 SBS희망TV를 통해 처음으로 개인 모금을 진행했다.



교보생명과 함께한 개인 모금 행사. 재단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만남으로 개인 모금자를 확보했다. 한 끼 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 그 돈을 기부하는 행사인 '밥 한 끼의 사랑'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다.



현대건설과 함께 진행한 개인 모금 모습



SBS희망TV는 사례를 소개하고 후원 전화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2009년 SBS희망TV 모금에 재단이 소개한 네 팔의 '러츠미' 사례

드림, 굿피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개 NGO가 운영 기관으로 참여했다. 재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SBS희망TV” 참여를 통해 약 9천여 명의 일반 기부자들을 모집했으며, 이렇게 모집된 기부자들이 재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은 약 37억 원에 달했다.

재단은 기부금을 긴급 구호성 기금뿐만 아니라 재단의 전문성을 살려 국내외 실직 빈곤 가정 아동들의 지속 가능한 빈곤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라이트 어 램프 Light a lamp(국내 지원), 스마일 투게더 파트너십 Smile Together Partnership (해외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재단은 SBS희망TV를 통해 위와 같은 개인 기부자 모집을 통한 기금 지원뿐만 아니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연계했다. 직원들이 점심 한 끼 값을 절약하여 빈곤 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행사 ‘밥 한 끼의 사랑’에는 교보생명, 신한은행, 현대건설 등이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강원랜드, 삼천리, 한국마사회 등 많은 기업들을 연계한 다양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

「함께일하는재단, SBS희망TV에 손을 내밀다」

사례 1) 2009년, 네팔의 어린 가장 ‘러즈미’

네팔의 14살 어린 소녀 가장 ‘러즈미’가 방송에 소개됐다. 부모를 대신해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일곱 식구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러즈미는, 다른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화상으로 보기 흉하게 꺾인 새끼손가락에 망치를 들고 작업장으로 향했다. 일을 하지 못해 일당을 받지 못한 날엔 모든 식구들이 우물물로 배를 채웠다.



러즈미의 사례가 희망TV에 방영되자마자 기부금이 밀려들어왔다. 재단은 신속하게 병원을 섭외하고 기부금을 통해 러즈미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희망TV의 PD가 직접 네팔로 가서 러즈미와 메뉴칸 씨, 그리고 막 두 달이 된 동생 크리스나를 한국에 데려왔고, 이들 모두 여의도 S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했다. 다행히도 크리스나는 영양실조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러즈미의 손가락도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제왕절개 수술의 후유증을 앓고 있던 메뉴칸 씨의 배는 간단한 처치로 회복됐다.

짧은 체류 기간 동안에도 이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호전되었다. 재단에서는 러즈미와 다른 동생 러즈먼에게 졸업 때까지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러즈미는 이제 채석장을 나가지 않아도 됐다.

사례 2) 2010년, 국내 곳곳에 재단의 손길이 미치다

2010년 상반기에는 소이증²⁹⁾을 앓고 있던 연화(가명)와 강원도 폐광촌의 윤지, 현수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됐다. ‘라이트 어 램프’ 사업의 2월 지원자로 소개된 연화는 모두 3차례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수술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귀를 가지게 되었으며, 윤진이와 현수는 재단과 하이원

리조트 시설봉사단의 지원, 연예인 개인 기부, 희망TV방송으로 모은 기부금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을 이어갔다.



SBS희망TV 모금에는 연예인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하여 개인 기부자 모집에 힘을 보탤다.

인터뷰 >>>

“돈이 아니라 마음을 받았다”

임상우(자원 봉사자)

이틀 동안 거의 2백여 통이 넘는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생방송과 후원 전화를 받는 시간 동안 어린 딸이 신청하자고 해서 전화하신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후원 신청하신 아드님, 술 한잔 하면서 방송을 보다가 전화하신 아버지, 직장에 다니는 누나들, 멀리 외국에서 전화주시 재미교포 어머니, 자신도 어렵게 살지만 사정이 딱해 전화하셨다는 할머니, 6.25 전쟁을 겪으셨다는 할아버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빈곤아동을 위해 희망을 주셨다. 금액을 떠나서 단 한 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새벽까지 이어지는 후원 전화에 힘이 될 수 있었다.

26) 컷바퀴의 형성부전으로 인해 컷볼만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 '작은 귀증'이라고도 한다.



Light a Lamp 지원사업은 실직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개발과 자존감 부여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버팀목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 '라이트 어 램프' 사업

'라이트 어 램프(Light a Lamp)' 사업은 SBS희망TV를 통해 모집된 국내 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빈곤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빈곤가정의 아동, 청소년 지원과 달리 국내외 실직가정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청소년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학·진로 개발 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재단은 해마다 100여 명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개발·자립·긴급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약 20개의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더욱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것은 교복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다

늦은 밤, 민수 어머니는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재단에 찾아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흐느꼈다.
“드디어 우리 민수도 여름 교복이 생겼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편하게 앉을 것을 권했지만, 민수 어머니는 굽힌 허리를 더욱 깊숙이 내리면서 연신 “고맙습니다.”만 되뇌고 또 되뇌었다.

계절이 바뀌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학생들의 교복이다. 꽃이 필 때쯤 이 되면 학생들의 교복이 가벼워지고, 여름에 접어들 무렵에는 하복으로 바뀐다. 눈이 올 것 같 이 날이 차가워지면 학생들은 동복으로 겨울을 대비한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처 교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학생 들을 위해 재단에서는 교복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여름 교복을 선 물했다.

「윤지의 편지」

늘 남의 옷을 물려 입어서, 저도 새 교복을 입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에 부모님께 무리한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Light a Lamp' 지원사업을 통해 새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험 옷이라 당당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로파일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제가 받은 만큼 사회의 그늘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함께일하는재단으로 보내온 편지 중 일부 발췌

“꿈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꿈”



서태지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매니아기빙서클과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교육 지원 협약식 장면

재단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뿐 아니라 단체나 동호회를 대상으로 기빙서클(Giving Circle)을 발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빙서클은 2009년 서태지 매니아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매니아 기빙 서클’이다. 뜻이 맞는 서태지 매니아들이 가수 서태지의 생일에 맞춰 힘을 모으고 있다.

‘매니아 기빙서클’은 재단과 함께 모금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부적응 청소년에게 밴드교육을 통해 사회성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사회적기업 ‘유유자적살롱’을 찾아냈다. “학창 시절에 받았던 꿈을 저버리지 말라.”던 서태지의 격려를 이제는 더욱 많은 후배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120여 명의 기부자들이 매월 정기적인 모금을 통해 연간 1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 지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집 밖으로 나오길 주저하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꿈을 연주하는 공연 발표회에 가족, 지인들과 함께 참석하는 날은 일 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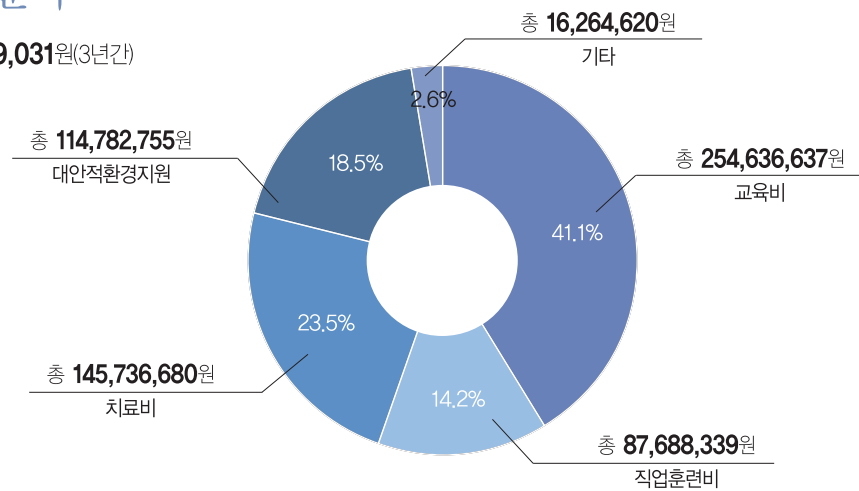
현재 재단은 평범한 기부 방식을 넘어 기부자 정기 소식지의 발행, 기부서클의 발굴, 소셜펀딩 온라인 모금 개발 등 다양한 모금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기관지원 현황

시기	구분	기관명	시기	구분	기관명	
2010년	아동 청소년 사례지원	부스리기사랑나눔회	2012년	성장지원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	우리가만드는미래			살레시오나눔의집	
		함께하는우리 지적장애아동자립지원센터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오가니제이션 요리			좋은이웃참사랑공동체	
		한국YMCA 아가야			구리YMCA	
		행복나눔재단 (유)행복나눔푸드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충남장애인부모회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센터광주광역시지원단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삼해원	
2011년	아동 청소년 사례지원	(사)청소년의하늘과 바다		자립지원	에덴원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연계지원	함께하는우리 지적장애아동자립지원센터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한국플리텍다솜학교	
		(주)우리가만드는미래			충남교육연구소	
		오가니제이션요리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문화예술NGO 예술과시민사회			부산광역시여자단기 청소년센터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재)마리아수녀회 송도가정	
		긴급지원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외	함께하는우리 지적장애아동자립지원센터
						마을N도서관
		(사)청소년내길찾기 꿈틀학교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성북청소년수련관				
		(재)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지원센터				
		(주)오방놀이터				

기금지원 분야

총 지원금 619,109,031원(3년간)



함께일하는재단의 장래를 축원함

이광택 제3대 상임이사

2003년 안국빌딩에서 출범한 함께일하는재단은 1년 후 동교동 시대의 막을 열었으나, 2005년 봄부터 피지원기관인 실업극복지원센터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들이 일부 운영위원들과 합세하여 당시의 상임이사, 정책실장, 실무팀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층 주차장을 점거하고 113일간의 장기 농성을 벌인 일이 있다.

당시의 분규로 말미암아 재단은 결국 초대 상임이사, 정책실장, 사무국장이 물러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문제를 제기한 수혜단체들도 아무런 소득 없이 내홍을 겪고, 재단의 사업으로부터 아예 멀어지고 말았다.

필자는 평이사 중 한 사람으로서 사태의 수습을 위해 구성된 TFT의 일원이 되어 재단 직원들의 일치단결을 호소하였다. 당시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직원협의회에는 예컨대 “신나는문화학교”와 같은 입주단체의 구성원들도 참가하였다.

필자는 직원협의회 대표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어느 날 저녁에는 전체 직원들이 시청 앞에 있는 호프집에 집결하여 필자와 대책을 숙의한 일도 있다. 당시 직원들의 신중하고도 단호한 태도가 사태수습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필자가 상임이사로 부임한 2009년 하반기부터 재단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 재단 창립 때부터 학계의 대표로 유일하게 이사로 참여한 필자에게는 재단의 비전과 미션은 물론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을 청하였다. 재단의 각종 위원회에도 가장 많이 불려다녔다.

그런데 막상 필자가 상임이사를 맡고 나서부터는 일련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다. 취임식 직후 필자가 해야 할 첫 결재가 사무국에서 월권으로 전결 처리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몇 달 후 우연히 알게 되어 관련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 또 하나의 충격은 인사관리의 책임을 진 상임이사가 수시로 참고해야 할 “인사카드”조차 없다는 사실이었다. 깜짝 놀라 팀장회의 시 지적을 하니 “만들면 되죠”라는 반응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적기업지원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재단의 성과를 폄훼한다”는 반응이었다. 어느 중견 직원은 한 주일동안 어떠한 보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일도 있었다. 노동부 간부를 만나보니 사실과 다르게 “상임이사는 사회적기업지원 업무를 축소할 생각이다”라는 말을 재단 직원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심지어 이사회에 배석했던 어느 팀장은 이사회 토의 내용을 왜곡하여 팀원에게 유포하는 일까지 있었다. 외국인들을 입국시켜 놓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2009년 하반기의 재단은 좌초 직전의 유람선과 같았다고나 할까. 이런 저런 사건에 연루된 직원 중 대부분은 이후 전개된 재단혁신 과정에서 재단을 떠나게 된다.

혼란스럽기만 했던 2009년을 보내고 2010년은 모든 업무를 합리화, 민주화하고 특히 소통체계



의 혁신에 온갖 정성을 쏟아 숨 가쁘게 지낸 한 해였다. 재단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일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각종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는 윤애림 박사로부터 "재단 직제·인사·복무규정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다.

2010년 2월 24일의 제29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 2인, 운영위원 2인, 사무국 직원 4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는 총 11회에 걸친 회의 끝에 개정안 마련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혁신이 이루어졌고, 관련 규정도 모두 합리화되고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조항은 모두 개정되었다. 예컨대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만 지급하던 시간외근로수당을 근기법에 맞게 150%가 지급되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사무를 자동화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함은 물론, Intra-Net도 구축하여 다방향 소통체계를 갖추었다. 즉, 전자결재, 공유정보, 업무관리, 회계, 경영 공시사항 등을 통합 관리하는 "다방향" 소통체계인 "E-count"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소통에 관한 한 제도적으로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또 지하부터 옥상에 이르는 모든 층을 리모델링하여 업무환경을 일신하였다. 즉, 1인 1전화, 사무공간 리모델링 및 Lay-out 개편 등 근무환경을 Upgrade하는 등 혁신의 한 해였다.

또한 어학연수를 포함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여 개성 있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 재단의 제도혁신에 대하여는 상당수의 NGO가 모범사례로 관심을 보이며 살피기도 하고 각종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들 NGO에는 환경재단, 다솜이재단, 행복나눔재단 등이 포함된다.

2011년은 도약의 해로 출발하였다. 사업의 양과 질이 어느 때보다 신장되어 재단은 새로운 청사진을 내어 놓았다. 재단의 비전으로 직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 정부, 기업이 가장 신뢰하는 '품위있는 일자리' 창출 전문 기관"을 제시하였고, 핵심가치로는 열정(Passion), 전문성(Specialty), 정의(Justice), 창의(Creativity)를 제시하였다.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가 정부 사업의 롤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국제협력팀의 해외사회적기업 지원프로젝트인 Smile Together 사업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2012년으로 넘어오며 필자는 "Green Jobs in Blue Ocean" 말하자면 남들과 피투성이로 경쟁하는 Red Ocean을 떠나 아무도 가지 않은 Blue Ocean으로 항해를 하여 그곳에서 친환경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임을 설파하였다. 또한 필자는 "자본주의 4.0과 공유가치 창조론"(Creating Shared Value)을 통해 미래사회의 지향점을 제안한 바 있다.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위해서는 합의와 협치가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진술한 소통이 전제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통에는 질제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친할수록 예의가 필요하다고나 할까. 혹여 우리 재단에는 소통부재라기 보다는 소통과잉·소통왜곡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 그것도 익명으로 -- 쏟아버린 뒤 "아니면 말고"하고 뒤돌아 선 적은 없었는가?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도 정의를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권과 월권이 자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재단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재단에 닥쳐오는 시련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기대된다. 재단 구성원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른 공익사업 종사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에필로그]

함께일하는재단 비전 좌담회



●●● (재)함께일하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미래비전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변화하는 고용, 실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단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바램을 재단 내외부 전문가에게 듣고 재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좌담 형식의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했다.



미래비전 좌담회

“품위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함께일하는재단의 역할

일시 : 2012년 11월 19일

장소 : 프레스센터 석류홀

좌장 : **이세중** 현 상임이사 대행(환경재단 이사장, 전 대한변협 회장)

패널 : **이광택** 현 이사(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국제노동사회법학회 부회장)

이정희 현 감사(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김정열 현 운영위원(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정문자 현 운영위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중 상임이사 대행

이세중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로, 다시 함께일하는재단에 이르기까지 공익재단으로서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10년간을 잠시 되돌아보며 재단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광택 그동안 잘 해왔다. 최근 영광 핵발전소 사고로 말들이 많지만 오히려 사고 덕분에 핵 발전실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볼 계기가 되었다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까지만 해도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하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는 대체로 10%정도의 실업률이 상존하는 구조적인 실업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있는 경제적 실업을 뛰어넘는 구조적인 실업을 겪은 적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종전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순환이 빨라졌다. 일단 그런 변화를 시민운동을 통해 대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재단의 출범은 실업문제를 질적인 면에서 대처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본다.

김정열 실업극복운동이 본부에서 재단으로 바뀌었다. 그때는 재단이 실업극복을 위해 많은 부분에 관여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도 넓었고 사회적인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점점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실업과 관련된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고, 전문가들도 여러 형태로 발굴되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그런 변화에 따라 재단의 역할도 바뀌어야 하는데, 초기의 그림에서 부분적 수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업 범위는 점점 더 많아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활동가들 사이에서 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 이제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열 운영위원

정형우 함께일하는재단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많은 역할을

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향과 재단의 사업내용이 일치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좋지 않아서 이들이 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다. 앞으로 재단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줬으면 한다.

정문자 역시 양적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이정희 1998년에 시작한 사업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일회적 사업이었는데, 2001년과 2002년을 지나면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종합지원센터로서 변화를 지향했고, 그 논의에서 재단이 탄생했다. 2003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것은 시대상이나 사회상에 부합한 일이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 왔다. 10년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달라졌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활동영역이라고 설정했던 리스트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한 조정과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염두에 두고, 재단의 위상에 부합하는 보다 특화된 형태의 방향설정과 전환이 필요하다.

황덕순 재단의 주도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와의 상호작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2003년 재단이 출범하면서 실업자 지원센터의 성격이 강해졌는데, 그 시기에 정부가 여러 가지 실업극복 사업을 하면서 재단의 무게중심이 사회적기업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 무게중심 과정에 재단이 아젠다를 발굴한 것도 있지만, 정부와의 주도권 문제가 상존해 왔다.

앞으로의 정부의 관계에 있어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재단이 얼마만큼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정부와 협력할 수 있을지, 그 경계를 잘 설정해야 한다.

이세중 한국 고용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민간단체인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공익법인으로서 존재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광택 우리 재단의 주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 방안 중 사회적기업에 무게를 두게 됐다.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대기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대기업에서는 첨단화와 자동화 때문에 점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일자리의 86% 이상이 중소기업에 몰려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아직도 제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다.

유럽, 그중에서도 경제가 탄탄한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부른다. 독일은 첨단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이 많고 세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다. 우리는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질적인 면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도 노동 집약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육성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이세중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고민이다.

김정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정부와 민간영역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간에서 재단은 사회적기업을 지속 가능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릴 것이며, 그 방안은 어떤 것인가?” 처럼 임팩트가 있으면서 분명하게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부와의 공적 전달체계에서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지,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세중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자.

정문자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협동경제이고, 사람이 중심이 된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자본만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함께 일하는재단이 그동안 사회적기업 자체를 설립했다면, 이제는 업종별, 지원별 모델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 컨설팅도 따라야 한다. 재단이 협동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정희 10년 전, 우리는 ‘전 국민의 품위 있는 일자리 확보와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사업을 했는데, 이런 담론은 굉장히 거대하다. 민간이 지향할 수는 있지만,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약할 수 있다. 이제 거대 담론은 임팩트가 있는 바탕이 되지 못한다. 10년 전에는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제도적 차원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이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내려가야 한다. 또 재단의 사업 중 모금이나 연구, 출판은 재단의 사업을 위한 것이지 재단의 본질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기업 지원, 청년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국제협력이 재단의 주된 사업인데, 이제

는 이 부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만 두고 보면 6~7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과연 재단은 어느 정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청년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제대로 된 리부를 통해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이광택 다양한 계층의 실업해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요즘 청년실업이 강조되고 있는데, 고령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세대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 되면 안 되고 계층을 초월해서 각 계층에 맞는 실업해소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2010년에 2,193시간인데, 이것은 OECD평균인 1,749시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한국사람들이 OECD 평균보다 연간 2.6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향후 2,000시간, 1,800시간까지 단축해 가야 한다. 또 청년은 청년대로, 고령자는 고령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각 계층과 성별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광택 이사

이세중 고령자 계층의 실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단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3년간 전통문화지도사사업을 통해 은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했고, 이제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광택 교수의 말대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공유는 재단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력해서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단체에서 협력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정형우 재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외연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내가 느끼기에는 언제나 전자보다 후자로 갔다. 재단은 사회적으로 필요가 생긴 부분에 관여해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재단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재단이 출범한 2003년과 전환했던 2008년을 비춰보면 사회적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재단 외에 다양한 기관이 생겼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택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사업기조를 조금 정비하는 수준을 택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진흥원이나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업의 내용이 재단의 성격과 부합하는 부분을 추려보고 어디까지 외연을 확장해왔는지 살펴볼 때이다.

이세중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언급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진흥을 체계적으로 고민한 것은 재단이 처음이었다. 정부에 진흥원이 생긴 이후에도 재단과의 인연은 계속됐다. 재단은 경험을 축적한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사업을 할 때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단과 일을 많이 했다. 진흥원과 함께 의미있는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재단으로서 필요한 일이다.

정형우 보완하자면, 정부가 지자체 혹은 진흥원과 사회적기업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아무래도 경직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생겼다. 재단은 민간영역에서 이런 사각지대의 기업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세중 정부 정책상 사회안전망도 있고 고용을 위한 기능도 많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고용기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정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단편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단은 정부보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

회적경제의 주체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되면서 개별 사회적기업이 생기고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밖으로 드러났다. 이제 주체들을 정부와 대기업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주체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네트워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재단이 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한다.

재단은 대기업이나 사회적 자원을 끌어들여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공공과의 연계를 통한 제도화를 해야 개별 사회적기업, 개별 경제주체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정형우 재단의 미션에 ‘전 국민의 품위 있는 일자리 확보’ 라고 되어 있다. ‘품위 있는 일자리’ 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 문장이다. 미션만 봤을 때는 재단이 할 수 없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재단 전체 사업의 80%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가 고민일텐데, 사회적기업이 잘 되고 있는 나라인 유럽을 보더라도 사회적기업이 대단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많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정부 지원이 끊기면 힘들어진다. 그러니 사회적기업에 컨설팅을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가?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이세중 재단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정형우 내 말은 진출 분야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대부분 대기업에 의지하고 있고, 사업 분야도 제한적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를 찾아서 컨설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단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니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모델링해서 보급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재단이 앞장서서 이끌어줬지만, 우리 사회는 고용에 대한 민간부문이 취약하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재단이 사회적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생각은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을 많이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력과 조직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세중 재단은 세계 사회적기업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외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해왔다. 또 재단은 아시아 사회적기업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배우려고 한다. 정부에서도 국제 네트워킹 사업을 할 때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정문자 운영위원

정문자 재단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재단의 정체성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안하고 싶다. 재단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는데, 현장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는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많지만 부실한 기업이 많다. 재단은 조직도 크고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현장 밀착형이 되기 위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광택 선택과 집중은 중요한 말씀이다. ‘품위 있는 노동’이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소마비아(Juan Somabia) 사무총장이 1990년대에 제시한 컨셉인 Decent work를 지칭하는 것으로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정열 그동안 재단이 해온 일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10년에 대해서는 재단이 정말 사회적경제 영역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아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상생의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사회적’이라는 재단에서 일하면서 획일적인 운영방식과 사고체계를 내부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느리지만 함께 하려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후에도 재단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으면서 일반 영리기업의 문화를 갖게 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선 재단이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정형우 재단은 아픔의 시기에 탄생했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제 2013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재단이 사회적기업을 선도해 왔다.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생겼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관

중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없다.

아까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인데, 기존에 잘해 온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0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고 본다. 잘해왔던 것의 80%를 가져갈 것인가, 역량의 일부를 덜어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부분을 해 볼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비록 변신은 어렵겠지만 엄청난 수요가 존재한다. 우리 사회는 민간이 활동하는 분야가 제한적이다. 영세한 영리업체나 법인은 활동하고 있지만, 민간 비영리기관이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지만 있으면 정부와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다. 민간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황덕순 지금 큰 방향에서 사회적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재단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확산은 정부의 주도 사업이었다.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2,00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생겼다.

앞으로의 재단의 역할은 과거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재단이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역할보다는 그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 재단은 다른 기관보다 사회적 명성이나 신뢰도가 높은 만큼 다른 기관과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문자 주요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타겟은 청년과 노인이고, 재단의 능력상 탈북민과 이주민, 한부모가정 같은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이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그동안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했던 사업 내용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와 고민을 위해 내부와 외부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비정부기구 입장에서는 재단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와 충분히 소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 좋겠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택 앞으로의 사회적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보다 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칼레츠키(Anatole Kaletsky)가 제시한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1.0)에서 '케인즈주의' (자본주의2.0), 그 이후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자본주의3.0)를 거쳐 다시금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자본주의4.0'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한편 포터(Michael Porter)와 크래머(Mark Krame)가 제시한 '공유가치창조론' (Creating Shared Value)은 수출산업의 한계를 지적한다. 벤처의 경우에도 내수산업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지에 있는 자원을 현지의 노동력이 가공해서 생산하여 현지에서 소비하는 것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개념 속에서 많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가 축적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일자리가 확장된다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재단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해결 과정에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시너지를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정희 감사

이정희 재단에 정책연구원이 있다. 연구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단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데 정책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재단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선택과 집중이든 기존의 기초 유지가 됐든, 기존 10년과 향후 10년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정책연구원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의 사업은 한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다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것들을 살펴봐서 재단사업의 시너지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청년지원사업 등 큰

사업 단위간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실무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현장과의 의견차이도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민간 부문의 만형으로서의 위상과 일선 현장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야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광택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감을 찾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 즉 블루오션(Blue Ocean)에서 녹색일자리(Green Jobs)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나 저탄소에너지와 같은 부분이 그런 영역이 될 것이다. 멀고 힘든 길이지만 다른 방안이 없다.

지난달 독일에서 온 1세대 환경운동가 시모니스(Udo Simonis)교수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했다. “영광 원전사고가 났는데도 사회적으로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전 26개 중 8개는 바로 정지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으로 부터의 출구전략이 다시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 에너지로 독일은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조류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풍력에너지 개발로만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독일 대체에너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가발전이다.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IMF금융위기때 실업사태를 맞아 ‘차라리 잘됐다’고 했다. 이번 영광 원자력사태도 ‘잘됐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중국에 추월당한 것을 되돌려야 한다.

이세중 지금까지 재단이 걸어온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취적인 방향에 대해 애정 어린 격려 말씀뿐 아니라 올바르게 헤쳐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각계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전문가들의 귀중한 말씀인 만큼, 오늘 토론을 발판삼아, 재단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것으로 미래비전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연도별 사업현황

사업현황

2003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사회적일자리 대어금(대부), 임대관련중개 수수료	437,608,824
	소 계		437,608,824
지역 및 고용활성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149,115,000
	기타 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 및 핫라인교육, 기타지원사업	12,648,451
	소 계		161,763,451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실업자지원센터 지원	실업자지원센터 워크샵, 센터지원 사업비	979,221,528
	소 계		979,221,528
기타	홍보사업	홍보브로셔제작, 홈페이지제작, 핫라인홍보비	15,189,530
	정책연구비	정책실장 조사연구비, 기타조사 연구용역비	19,925,460
	모금사업비	MBC취업 박람회 전시장 임대료, 후원의 밤	65,963,963
	소 계		101,078,953
합 계			1,679,672,756

2004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사회적기업 사업비 및 임대비 지원(대부)	150,000,000
	해외사례조사	영국 사회적기업 방문, 유럽 사회적기업 사례연구 해외출판물 번역 및 인쇄	32,087,050
	소 계		182,087,050
지역 및 고용활성화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969,730,813
	신나는 문화학교	문화예술강사 육성, 문화소외층 무료문화 예술서비스 제공	218,630,770
	노동부연계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152,566,156
	일자리 만들기 지원비	일자리 만들기 지원비, 노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125,442,520
소 계			1,466,370,259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실업자 지원센터 지원사업	전용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사용자교육, 취업상담, 취업알선	1,625,100,830
	핫라인사업비	생계형 자살방지 핫라인 1577 운영	27,269,040
	소 계		1,652,369,870
기타	정책연구비	조사연구용역, 통합복권법공청회, 한일공공부조제도포럼후원 산지개발고용산업	56,195,800
	홍보사업	홈페이지제작, 광고문제작, MBC희망나눔 방송제작, 소식지제작	16,233,800
	기타	각종사업개발비, 지원사업행정비, 행사 및 세미나	33,837,020
	소 계		106,266,620
합 계			3,407,093,799

2005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 모델구축사업	사회적기업 모델구축 (탈북자자활공동체 지원일부)	72,720,000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26,321,053
	사회적기업 연구사업	기부정보가이드 연구비 지원	3,300,000
	소 계		102,341,053
지역 및 고용활성화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1,087,400,832
	신나는 문화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 강사육성, 문화소외층 무료문화 예술서비스 제공	362,997,710
	삼성 노인일자리 개발사업	전통문화지도사양성 및 파견사업	401,724,951
	소 계		1,852,123,493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실업자 민간안전망 구축사업	구직상담 및 일자리연계	934,495,376
	자유공모사업	실업빈곤계층에 의료연계, 간병, 복지, 직업훈련 제공	366,581,030
	지원사업행정비	자유공모, 민간안전망사업 행정비, 지정기탁	24,197,200
	소 계		1,325,273,606
기타	홍보사업	언론홍보, 광고, 행사비, 홈페이지관리, 출판, 전산프로그램	34,461,720
	조사연구 및 정책사업	근로빈곤층 노동실태분석 및 탈빈곤방안 등 연구	36,132,640
	소 계		70,594,360
합 계			3,350,332,512

2006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2,077,122,082
	SK결식이웃 지원 도시락급식사업	전국 25개 시군구에 14개소 급식소 설치운영 지원	4,878,230,38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107,971,024
	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등 교육 운영	48,116,000
	사회적기업 연구사업	기부정보가이드 연구비 지원	11,000,000
	소 계		7,122,439,494
지역 및 고용활성화	포스코 재가도우미 파견사업	포스코 사랑나눔 간병단 운영	358,502,816
	신나는 문화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강사 육성, 문화소외층 무료문화 예술서비스 제공	270,000,000
	삼성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노인전통문화 지도사 양성	592,535,844
	4개 민간단체 협력사업	풀뿌리 시민운동 사례공모사업	5,000,000
	소 계		1,226,038,660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실업자 민간안전망 구축사업	상담, 취업알선,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역네트워크 구축	892,547,120
	자유공모사업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제공	358,788,004
	청년실업 네트워킹 센터 '희망청' 사업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네트워킹센터 설립 운영	43,469,106
	지원사업행정비	자유공모, 민간안전망사업 행정비, 지정기탁, 전산프로그램	54,988,970
	소 계		1,349,793,200
기타	홍보사업	언론홍보, 광고, 행사비, 홈페이지관리, 출판	106,827,678
	정책연구원 사업	정책연구원 설립 및 연구	60,687,075
	소 계		167,514,753
합 계			9,865,786,107

2007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신나는 문화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강사육성, 문화소외층 무료문화 예술서비스 제공	485,269,459	
	지역개발금고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실시	1,193,230,835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부산대, 송실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현장전문가 해외연수 및 포럼 지원	열린포럼, 해외연수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청년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 및 시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발굴 및 인증 지원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4,230,246,743	
	SK결식이웃 지원도시락 급식사업	전국 25개 시군구에 14개소 급식소 설치운영 지원	4,408,213,585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참여단체 교육, 현장모니터링	142,660,130	
	소 계			10,459,620,752
지역 및 고용활성화	고용친화적지역만들기 네트워크사업	고용 친화적 지역만들기 실천모델 도출	404,432,000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사업	사회적기업 지역,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고령친화아카데미 외		
	실업자 민간안전망 구축사업	사업 종결 평가회 등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 간병사업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778,350,815	
	삼성 전통문화 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노인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455,500,657	
	복지부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창출사업	아동복지 교사교육, 파견	3,484,735,119	
	자유 공모사업	초기 설립지원, 활성화 지원	113,121,889	
	소 계			5,236,140,480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 '희망청'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네트워킹센터 설립 운영	56,302,262	
	소 계			56,302,262
기타	홍보사업	홈페이지관리,출판,행사,광고	143,100,841	
	정책연구원	연구원고용,회의,기획연구사업	88,790,850	
	기타	지원사업행정비	16,324,210	
	소 계			248,215,901
	합 계			16,000,279,395

2008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강원 폐광지역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사업 폐광지역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육성	51,156,843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중고노트북 지원사업	74,580,000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사업	문화재관리분야 사회적일자리발굴, 육성	22,453,930
	SK결식아웃 지원도시락 급식사업	전국 25개 시군구에 14개소 급식소 설치운영 지원	1,129,320,970
	토지공사 친환경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놀이터 리모델링	219,970,822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사업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선정 운영	886,575,245
	열린포럼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포럼 및 해외연수 지원 제공	4,698,760
	국제교류사업	ASES(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대회 개최	93,413,128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서울, 경인, 강원사회적기업 지원기관	564,975,197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1,734,051,337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사회적일자리 참여단체교육, 현장모니터링	65,281,400
	사회적일자리 교육훈련지원 사업		141,342,300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사업	사회적기업 지역,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163,735,070
	우수 사회적기업 시상		20,764,000
	신나는 문화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 강사육성, 문화소외층 무료문화 예술서비스 제공	150,000,000
	지역개발금고대부 지원사업	휴면예금관리재단, 노동부, 지역개발금고 대부	4,981,940,417
	G마켓 청년지원	청년벤처 창업공모	95,959,312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혁신적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발굴	15,000,000
소 계			10,415,218,731
지역 및 고용활성화	복지부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창출사업	아동복지 교사교육, 파견	1,286,576,594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실천모델 도출	186,140,929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985,085,520
	삼성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노인전통문화지도사 양성	142,642,251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고령친화 아카데미 외	1,830,850
	NGO연대 및 교류	풀뿌리시민운동 지원 외	30,405,681
	소 계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 '희망청'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네트워킹센터 설립 운영	43,302,680
	개인기부자확대사업	기부자서클 지정기탁	500,000
	소 계		
기타	홍보사업	명칭 변경 및 CI 개발, CI선포/ 캠페인 사업	155,923,458
	정책연구원	연구원고용, 회의, 기획연구사업	100,031,916
	기타	평가자문 워크샵	10,602,270
	소 계		
합 계			13,358,260,880

2009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문화재 관리분야 사회적일자리지원	3,084,911,514
	신규기획 창업사업		20,750,400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29,215,930
	토공 등 신규모금 기획사업	친환경놀이터 조성, 사회적기업 지원	349,879,205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사업개발비, 교육비, 시설투자비 지원	53,081,580
	해외사업	해외연수/열린포럼, 국제교류	174,187,790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792,877,132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업	62,853,635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사업 전국 총괄기관	871,142,960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1,418,600,000
	강원 폐광지역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	지역주민 설명회 및 에너지포럼 등 실시	960,230,822
	신나는 문화학교 지원	문화예술강사 육성, 문화소외층 무료문화 예술서비스 제공	180,000,000
	G마켓 청년 지원	청년 벤처창업 공모전실시	34,040,688
	소셜벤처 지원사업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설립운영,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317,538,247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지역개발금고 지원금	1,182,496,303
		소 계	9,531,806,206
지역 및 고용활성화	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 사업	회계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채용연계	209,371,619
	복지부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창출사업	아동복지 교사교육, 파견	15,780,056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678,921,800
	삼성 전통문화 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노인전통문화 지도사 양성	629,534,433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사업	지역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23,842,688
	지역순환경제 허브구축사업		20,111,386
	지역활성화 시범사업	문래동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추진	25,545,500
	자유공모사업	실업문제 해소 위한 현장 실태조사/연구사업, 상담, 교육	84,349,524
		소 계	1,687,457,006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청년실업지원센터 '희망청' 운영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네트워킹센터 설립 운영	75,185,789
	개인기부자확대사업	기부자서클사업,프로보노 교육관리사업	16,286,381
		소 계	91,472,170
기타	홍보사업	C개발 응용제작비, 홍보/캠페인사업, 소식지 및 출판사업비	496,597,323
	정책연구원	연구원고용, 회의, 기획연구사업	112,150,187
	기타	NGO연대 및 교류지원, 지원사업 평가자문 행정비	39,135,580
		소 계	647,883,090
	합 계	11,958,618,472	

2010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문화재 관리분야 사회적일자리 지원	81,835,390
	토지공사 친환경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놀이터 리모델링	115,237,993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방과후 학교 등 사회적기업 지원	406,381,845
	해외사업	해외연수/열린포럼, 국제교류	105,485,951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ASES(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대회)	163,048,400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교육, 경영 지원	348,077,466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사업	사회적기업 전문교육기관발굴, 운영 지원	780,609,337
	G마켓 온라인상품관 지원	대안경제영역의 생상품홍보	80,196,890
	LH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형 기업지원 및 임대단지 공부방 지원사업	339,406,434
	평가도구메뉴얼/교육사업		4,500,000
	사회적기업 홍보지원 사업	2010년 사회적기업 생상품 홍보카탈로그제작 및 현대홈쇼핑 사회적기업 유통지원 사업	94,000,000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1,300,000,000
	강원 폐광지역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사업	지역주민설명회 및 에너지포럼 등 실시	236,532,720
	소셜벤처 지원사업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설립운영,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1,390,961,803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지역개발금고 지원금	2,422,687,810
	신나는문화학교 지원	문화예술 강사육성, 문화소외층 무료문화 예술서비스 제공	100,000,000
		소 계	
지역 및 고용활성화	신한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 세무교육	686,774,271
	삼성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노인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81,358,176
	녹색일자리 지원사업	녹색 일자리사업 연구 및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촉진	46,566,777
		소 계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실직빈곤가정 지원사업	국내 빈곤 아동, 청소년 지원, 진로캠프, 직업훈련 지원	215,248,220
	개인기부자 확대사업	기부자 서클사업(취약청소년 문화지원사업)	42,181,418
	청년실업지원 '희망청'운영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네트워킹센터 설립 운영	80,552,828
	청춘 문화센터 지원(G마켓)	청년관련 대중강연 실시	118,462,630
		소 계	
기타	홍보사업	CI개발 응용제작비, 홍보/캠페인사업, 소식지 및 출판사업비	195,955,708
	정책연구원	연구원고용, 기획연구사업, 연구총서출판	87,629,048
	기타	지역단체 교류/지원, 모금위원회 및 전문자문단 운영비	10,649,000
		소 계	
	합 계		9,534,340,115

2011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	BAT, 한전, 강원랜드, 신한, 주택공사	542,453,920
	토지공사 친환경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놀이터 생태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332,523,433
	해외 빈곤가정 지원사업(SBS희망TV)	Smile Together	257,820,835
	국제교류 사업	국제홍보, 번역 자원봉사자 모임, 해외역량강화	33,845,891
	LG전자 녹색성장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	10개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지원 및 컨설팅	1,933,134,835
	NH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공부방, 급식지원	1,268,818,611
	사회적기업기양성(아카데미) 지원	SK세상스쿨 아카데미	62,234,104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혁신적 사회적기업 모델발굴(효성), 인증매뉴얼 제작 등	94,396,066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13,898,095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1,224,800,000
	강원 폐광지역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	강원도 폐광지역 우드펠릿공장 설립 지원	850,341,030
	효성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효성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77,776,700
	소셜벤처 지원사업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설립운영,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269,357,761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	소셜벤처기업 모금연계 지원	137,350,000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노동부)	35개 입주기업 멘토링 및 송실대 창업아카데미 개설 운영	774,327,983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지역개발금고 지원금	2,116,997,728
		소 계	
지역 및 고용활성화	신한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 사업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 사업	41,956,384
		소 계	41,956,384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개인기부자 확대사업	기부자 서클사업(취약청소년 문화지원사업)	130,922,589
	KB빈곤가정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사업	청소년 '꿈터' 사업	43,667,559
	국내 실직 빈곤가정 지원사업(SBS희망TV)	Light a Lamp사업(하,동북 교복지원 외)	599,525,141
	청년실업지원 '희망청' 운영	청년네트워킹 센터 '희망청', 청춘문화센터	58,611,596
	G마켓청년 실업해소(학자금) 사업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213,113,470
		소 계	1,045,840,355
기타	홍보사업	홍보 캠페인, 소식지 및 출판사업	113,240,346
	정책연구원	연구원고용, 기획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총서출판사업	154,427,941
	기타	지역활성화 시범사업, 녹색일자리 지원사업, 지역단체교류/지원사업	17,223,589
		소 계	284,891,876
	합 계		11,362,765,607

2012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사회적기업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	한국주택공사,중부발전센터,강원랜드,보잉,효성,일부지정기관	221,275,216	
	토지공사 친환경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놀이터 생태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1,280,000	
	해외 빈곤가정 지원사업(SBS희망TV)	Smile Together	351,204,632	
	국제교류 사업	국제홍보,번역 자원봉사자 모임,ASES(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	66,873,308	
	LG전자 녹색성장 분야 예비 사회적기업 성장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지원 및 컨설팅	36,052,462	
	한화친환경사회적기업지원사업	사업비, 경영지원, 아카데미, 포럼 등 개최	1,271,884,263	
	NH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공부방, 급식지원	1,059,329,000	
	사회적기업가양성(아카데미) 지원	SK세상스쿨 아카데미	15,600,000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서울권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위탁 및 경영컨설팅(사회적기업진흥원)	399,705,996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한국전력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6,186,245	
	시니어비즈니스성장지원사업	유한킴벌리 CSV 사업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비즈니스모델개발)	9,555,680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실직여성가장 교육훈련 및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무료간병 제공	18,600,000	
	문화예술교육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별별솔루션사업	104,369,218	
	소셜벤처 지원사업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성장지원(효성,생명보험),소셜벤처대회지원(SVPK)	128,626,465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	소셜벤처기업 모금 연계지원, 사회혁신아이디어경진대회	259,001,680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	양천인큐베이팅센터 운영(사회적기업진흥원)	1,200,530,510	
	사회적기업 대부사업	지역개발금고 지원금	2,336,691,326	
		소 계		7,496,766,001
	지역 및 고용 활성화	지역활성화시범사업	지역활성화 시범사업(금천,서대문),홍제 아파트 지정기부	235,851,793
		소 계	235,851,793	
실직자 및 실업가정 지원	개인기부자 확대사업	기부자 서클사업(취약청소년 문화지원사업),기부자조직관리사업	145,352,022	
	KB빈곤가정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사업	청소년 '꿈터'사업	7,371,885	
	국내 실직 빈곤가정 지원사업(SBS희망TV)	Light a Lamp사업	289,536,798	
	청년실업지원 '희망청'운영	청년과 일, 서울시 책자발간사업, 청년층 대안사회안전망 사업	54,163,046	
	청년 실업해소 캠페인사업	일하는청년에게희망을 캠페인사업	51,712,950	
	소 계		548,136,701	
기타	홍보사업	홍보 캠페인, 소식지 및 출판사업	128,139,721	
	정책연구원	연구원고용, 기획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총서출판사업	81,660,017	
		소 계	209,799,738	
	합 계		8,490,554,233	

2

숫자로 보는 재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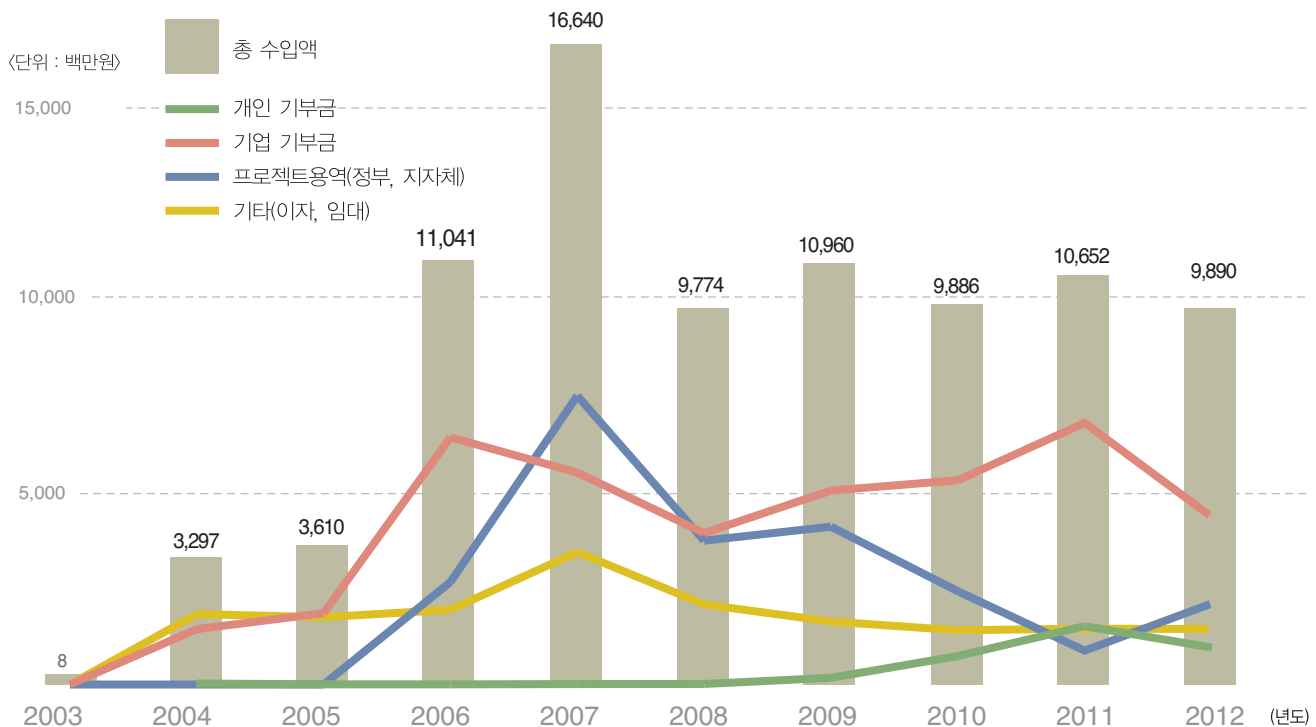
(1) 사업규모의 변화

연도별 수입 현황 (감사보고서상의 F/S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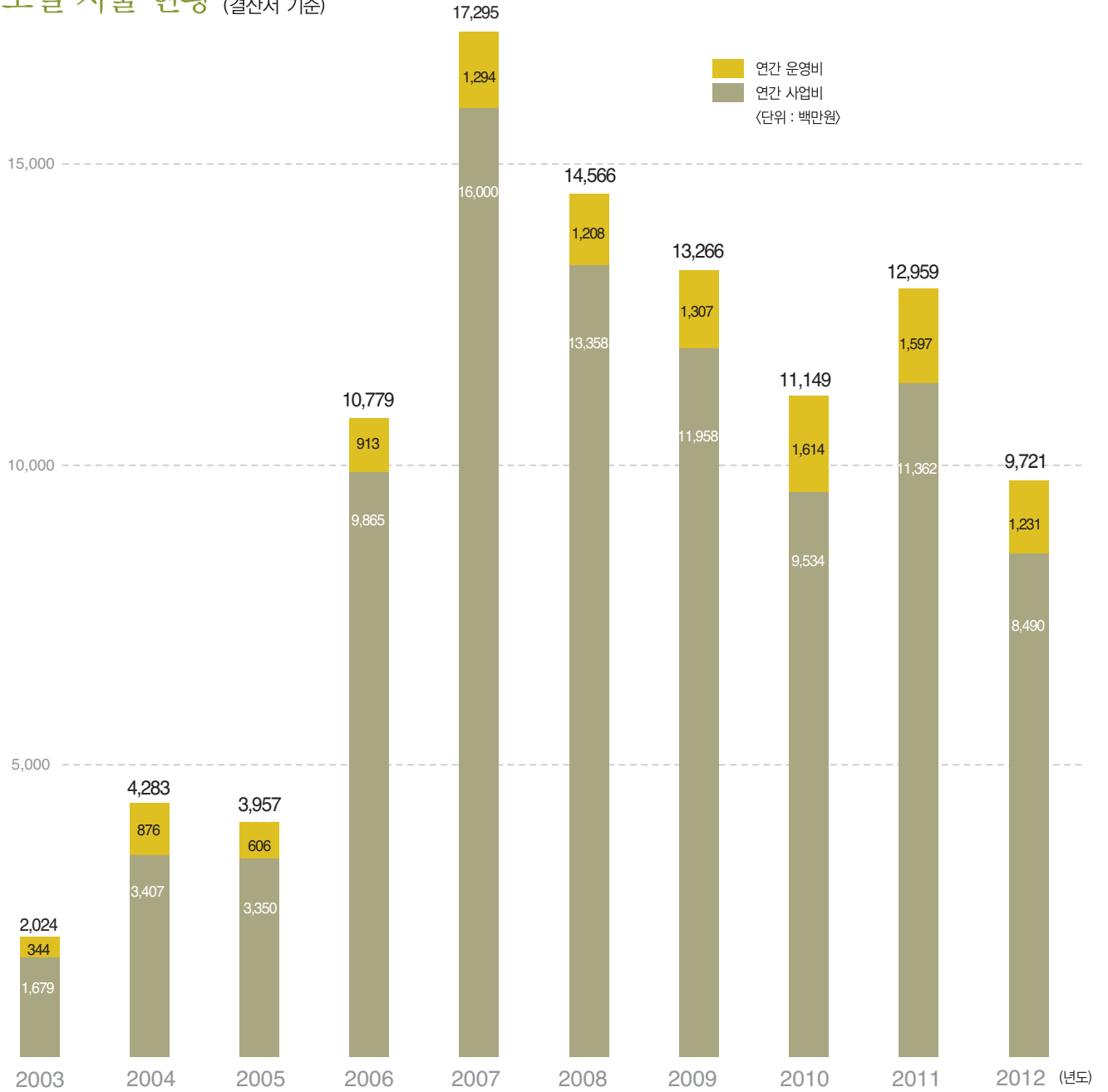
(단위 : 원)

연도	총 수입액	개인기부금 개인/SBS지정	기업기부금 지정기부/지역개발금고기부금	프로젝트용역 정부/지자체	기타 이자/임대/연구용역/출판
2003	8,495,000	8,495,000	0	0	0
2004	3,297,315,055	26,087,930	1,440,000,000	0	1,831,227,125
2005	3,610,293,136	4,358,670	1,855,747,880	0	1,750,186,586
2006	11,041,287,827	4,391,970	6,427,584,000	2,665,054,920	1,944,256,937
2007	16,640,946,656	11,352,880	5,509,476,906	7,507,003,990	3,433,112,880
2008	9,774,041,975	14,142,566	3,937,326,068	3,739,789,477	2,082,783,864
2009	10,960,026,465	174,236,883	5,043,463,995	4,104,742,041	1,637,583,546
2010	9,886,177,169	739,877,593	5,309,752,750	2,425,570,396	1,410,976,430
2011	10,652,400,182	1,517,670,493	6,803,019,100	880,873,724	1,450,836,865
2012	9,890,015,851	1,392,908,748	4,738,659,813	2,302,155,419	1,456,291,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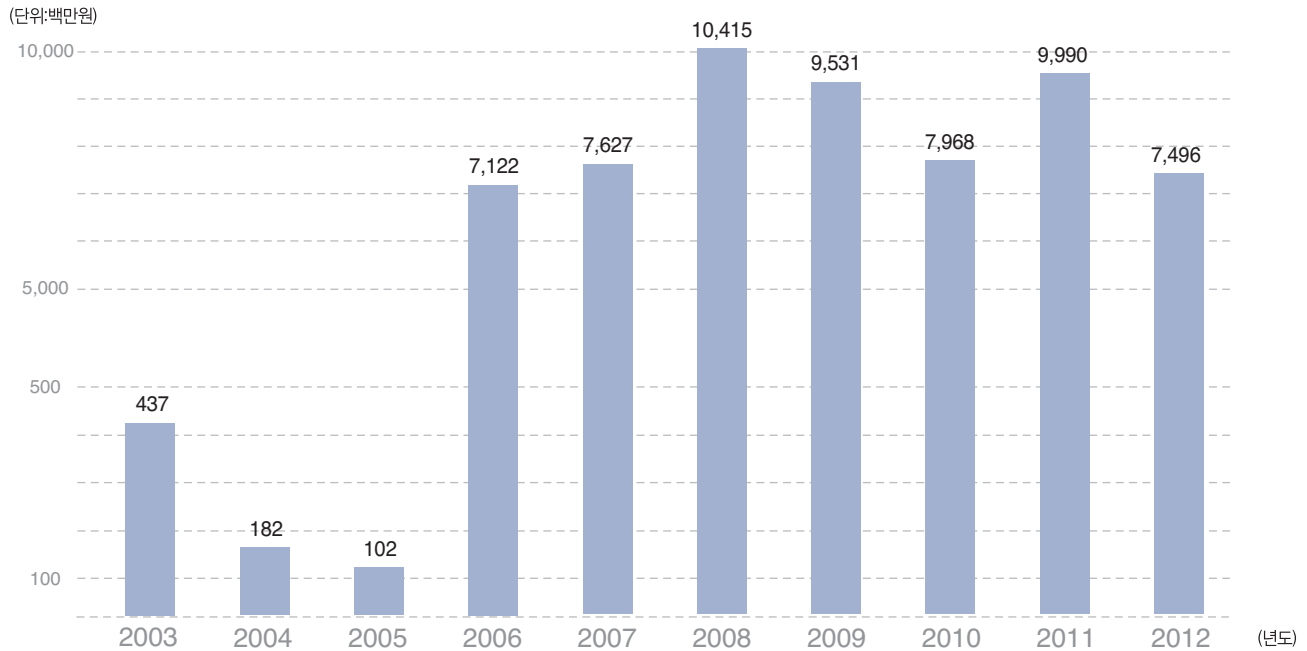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잔여성금 약 427억 원은 수입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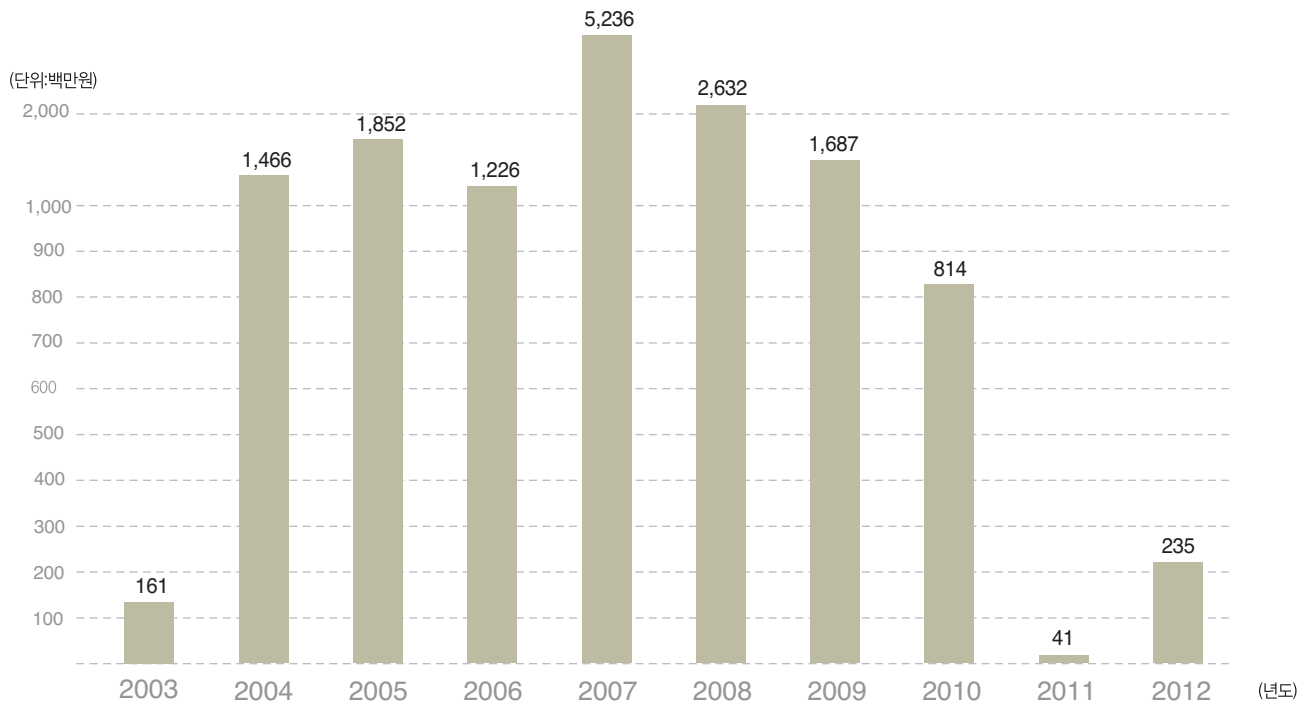
연도별 지출 현황 (결산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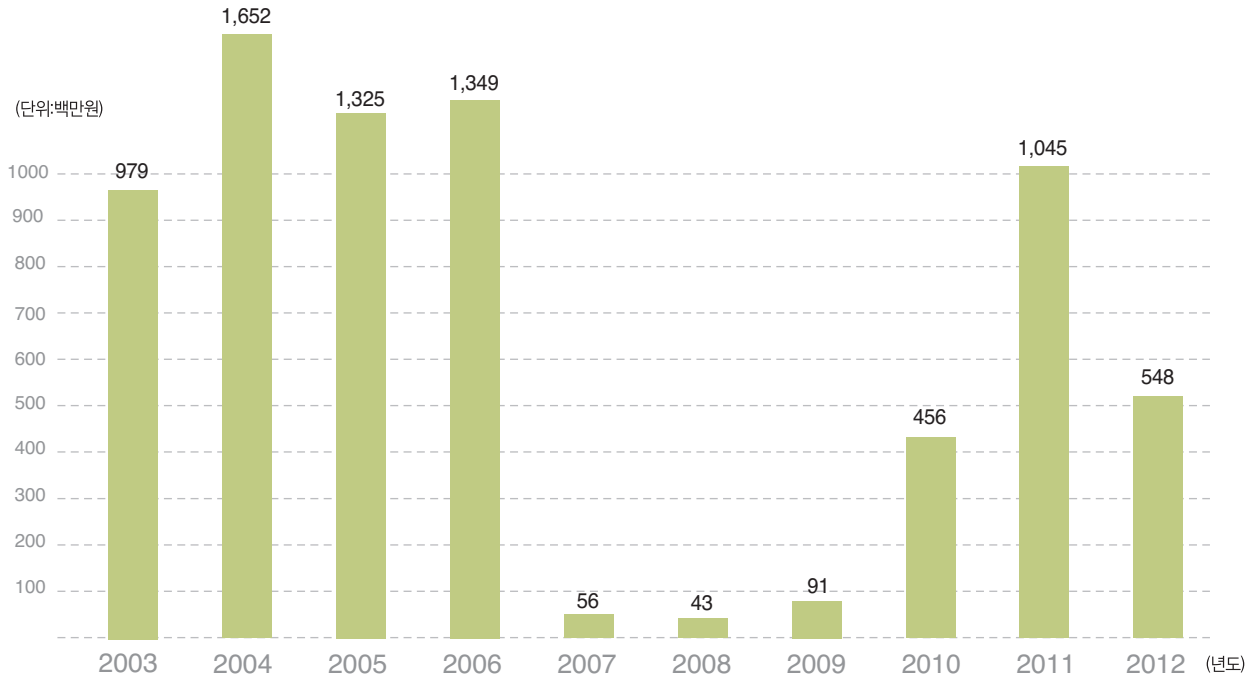
주요 분야별 사업비 지출 현황



사회적기업지원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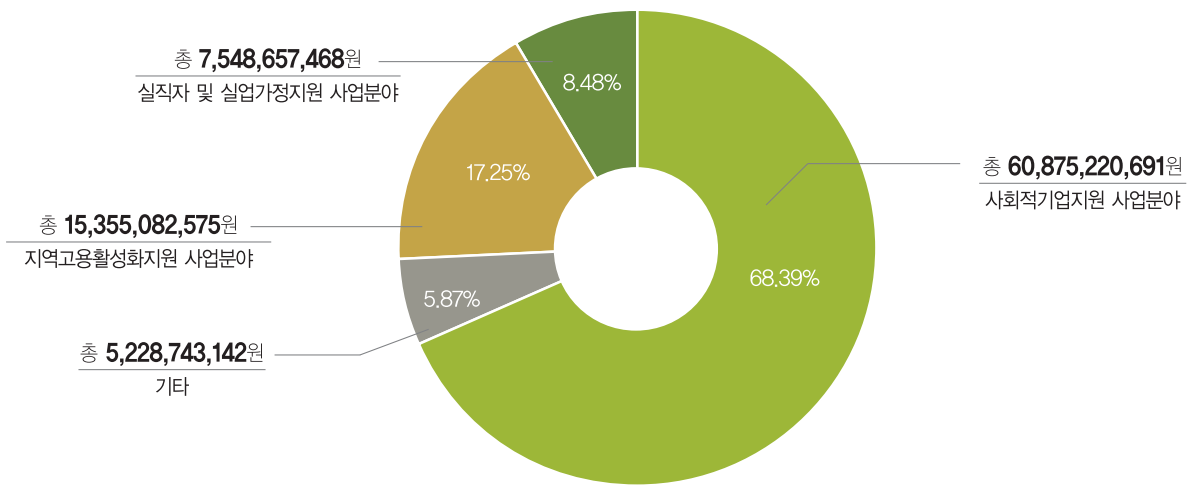


지역 및 고용활성화지원 사업분야



실직자 및 실업가정지원 사업분야

(단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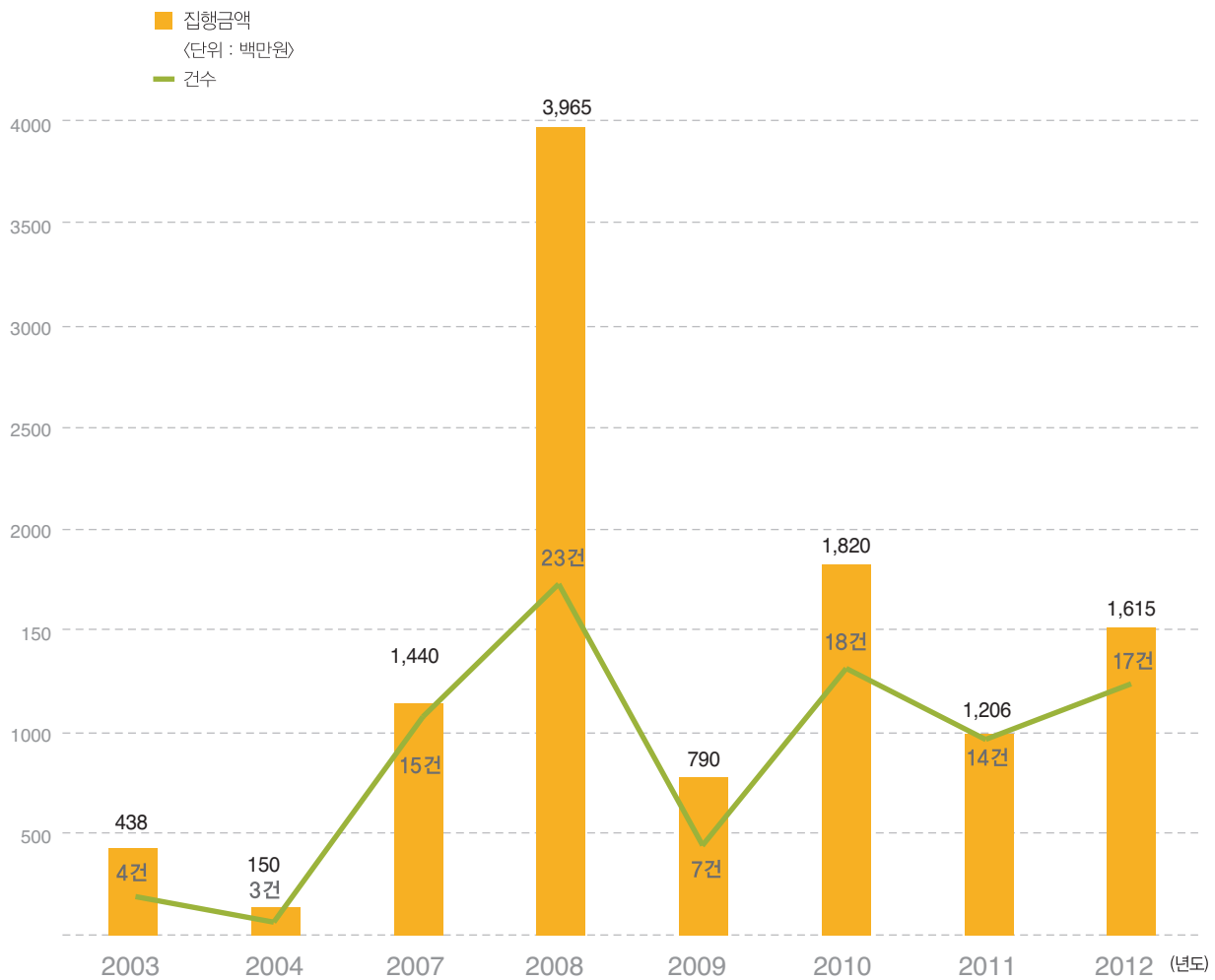
10년간 각 분야별 사업비 비율

지역개발금고 사업의 변화

2003년부터 국내 최초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기반, 자본지원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총 85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총 101건의 자금을 공급하여 총 11,424,500,000원의 대부지원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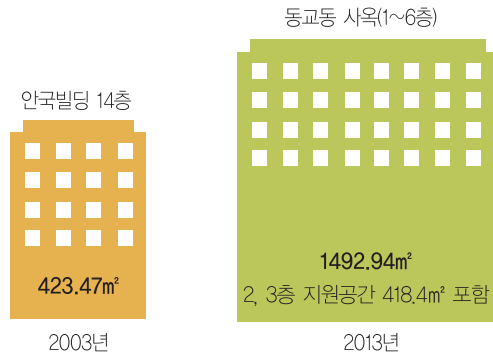
〈연도별 신규지원 금액 및 건수〉

사회적기업지원 총 85개, 자금공급누계 총 101건, 대부지원누계 11,424,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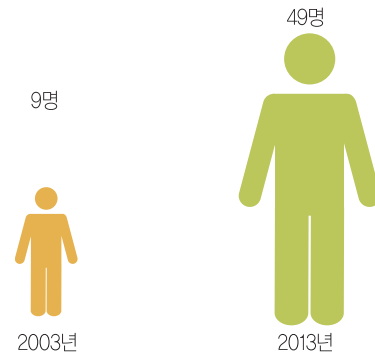


(2)재단의 변화

업무 공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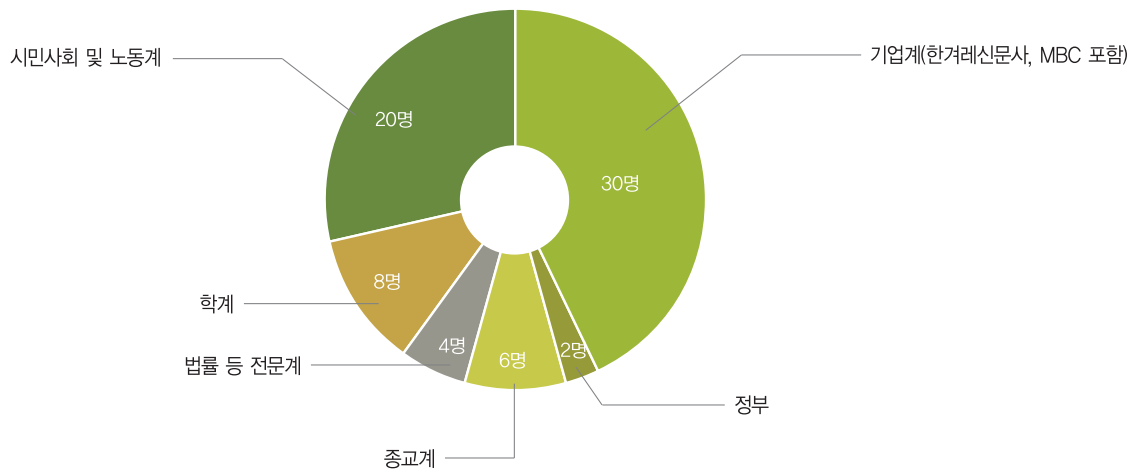
직원 수의 변화



역대 이사 및 운영위원 수

- **역대** 이사 : 36명(감사 포함)
운영위원 : 35명(당연직 상임이사, 사무국장 제외)
- **현재** 이사 : 15명(감사 2인 포함)
운영위원 : 9(당연직 상임이사 제외)

이사 및 운영위원의 전문계열 비중





(재)함께일하는재단
故강원용 (전)이사장

● 기본사항

성명 : 강원용

생년월일: 1917년 7월 3일(2006년 8월 17일 소천)

● 학력

- 1948 한신대학교 신학 학사
- 1954 매니토바대학교 조직신학 학사
- 1956 유니언신학대학대학원 신학 석사
- 1957 뉴스쿨대학교 대학원
- 1962 매니토바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 1994 원광대학교 철학 명예박사
- 1995 이화여자대학교 문학 명예박사

● 교계 경력

- 1965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
- 1965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회장
- 1965~1967 한국종교인협회 회장
- 1968~1973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 1968~1975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중앙위원
- 1970~1974 아시아 기독교사회운동기관협의회 회장
- 1972 세계 기독교사회운동기관협의회 회장
- 1973~1977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1984 세계종교평화회의 한국위원장
- 1994 세계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
- 1996~2000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 사회경력

- 1961~1966 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
- 1965 아시아영화제 심사위원회 위원장
- 1965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
- 1987~1988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장
- 1988~1991 방송위원회 위원장
- 1996~2006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이사장
- 1997 세계연극제 대회장
- 1998~2002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회 위원장
- 1998~2006 대통령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
- 1998~2000 통일고문회의 의장
- 2000~2006 대화문화아카데미 명예이사장
- 2000~2006 평화포럼 이사장

● 포상내역

- 1969 국민훈장 모란장
- 1972 국민훈장 동백장
- 1988 국민훈장 청룡장
- 1997 한신상
- 2000 제17회 니와노평화상
- 2002 제6회 만해평화대상
- 2004 파라다이스상
- 2006 국민훈장 무궁화장



(재)함께일하는재단
송월주 이사장

● 기본사항

법명 : 태공 월주(太空 月珠)
성명 : 송현섭
생년월일 : 1935년 4월 16일

● 학력

1955 정읍농림고등학교 졸업
1958 화엄사 불교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1969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96 원광대학교 대학원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 교계 경력

1958~1974 학교법인 동국학원(동국대학교) 이사
1966~1974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제2대,3대)
1994~현재 금산사 회주
1994~현재 영화사 회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제17대, 28대) 역임

● 사회경력

1989~199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1995~1998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1996~200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겸 이사장
1998~2003 실업극복국민운동 본부 공동 위원장
1998~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장
2004~현재 사단법인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2006~현재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2008~현재 건국60주년 기념사업회 고문
2008~현재 국가원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포상내역

2000 국민훈장 모란장
2005 조계종 포교대상, 사회포교분야 종정상
2010 제1회 민세상 사회통합부문
2011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2 제16회 만해명화대상

4 역대 상임이사



제1대 상임이사 **성한표**

- 1990~1991 한겨레신문사 경제담당 편집부위원장
- 1993~1994 한겨레신문사 기획담당 이사
- 1997~1997 한겨레신문사 논설주간 상무이사
- 1999 한겨레신문사 부사장
- 1999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2002~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 2003~2005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상임이사
- 2006~현재 한겨레신문사 미디어전망대 필진, 언론인



제2대 상임이사 **안재웅**

- 1976~1980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총무
- 1980~1986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무(홍콩주재)
- 1995~199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 2001~2005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홍콩주재)
- 2006~2009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상임이사
- 2006~2009 (재)행복나눔재단 이사
- 2006~2010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2007~현재 (재)다솜이재단 이사장
- 2008~2009 (사)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 2009~현재 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
- 2009~현재 에큐메니컬 소사이어티 대표
- 2012~현재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 2013~현재 (재)씨알 이사장



제3대 상임이사 **이광택**

- 1968~197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80~1987 독일연방공화국 Bremen대학교 법학박사
- 1975~1976 한국일보(The Korea Times) 기자
- 1976~1977 (재)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사회 교육간사
- 1978~1985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1987~1988 Bremen대학교 노동정치연구소 연구위원
- 1988~199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연수과정 주임교수)
- 1994~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회법연구 센터장)
- 2005~2009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
- 2010~2012 (재)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 2012~현재 국제사회법학회 부회장

현 이사회

연번	성명	직책	주요약력/소속
1	송현섭(울주)	이사장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 조계종 총무원장(전)
2	이세중	상임이사 (대행)	(재)환경재단 이사장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전)
3	최종태	상임이사 (대행)	서울대명예교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4	이광택	이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수 / 국제노동 사회법학회 부회장
5	김정숙	이사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6	박인구	이사	동원그룹 부회장
7	진동수	이사	금융위원회 위원장(전)
8	김재철	이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전)
9	양상우	이사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10	이우희	이사	에스텍시스템 부회장
11	박한용	이사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12	김영배	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13	조인국	이사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14	이정희	감사	공인회계사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
15	이경우	감사	법무법인(유)한결한을 대표변호사 / 법제처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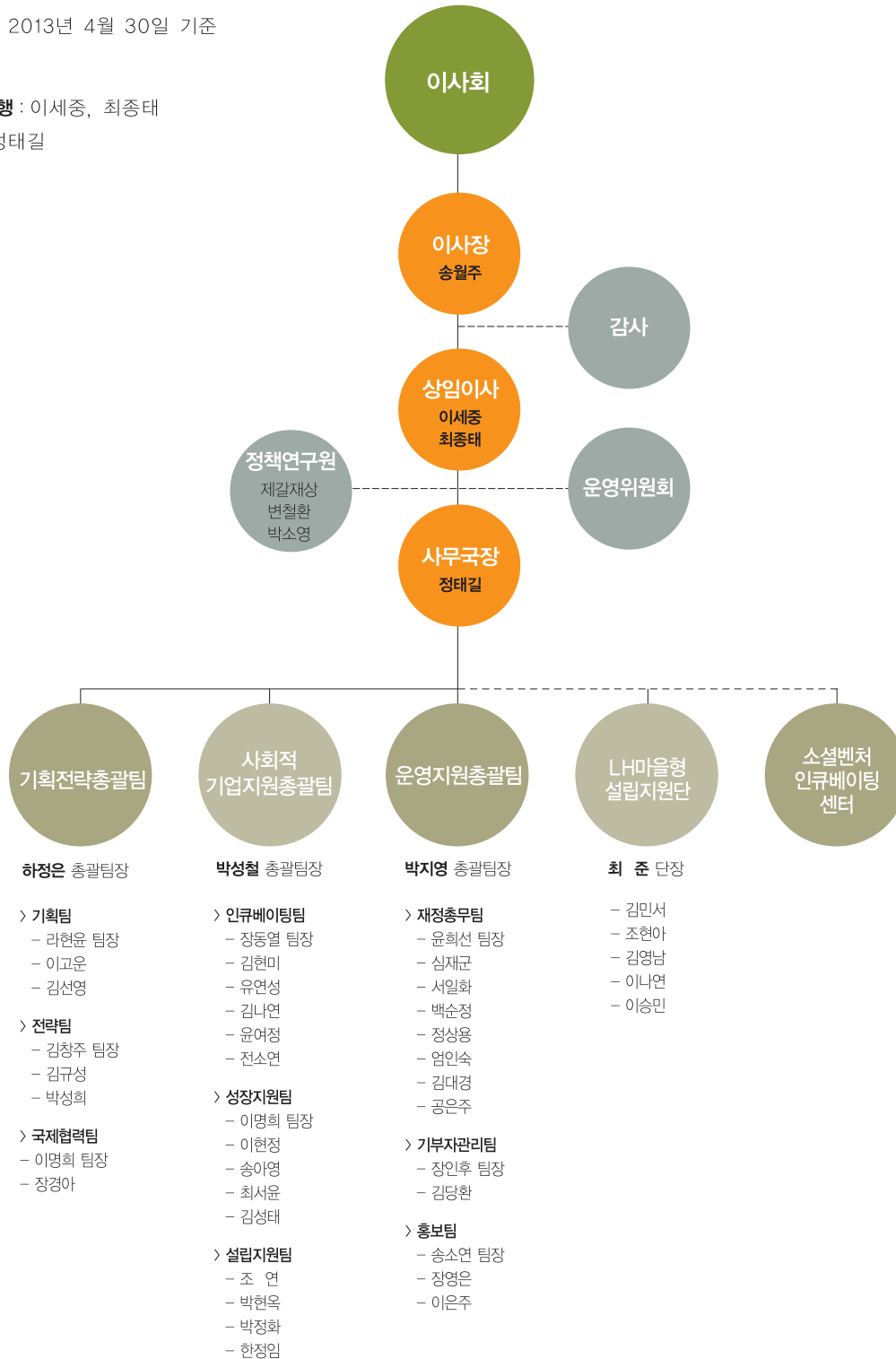
현 운영위원회

연번	성명	직책	주요약력/소속
1	이세중	당연직위원장	상동
2	노혁진	위원	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
3	김정열	위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4	이호성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5	이정식	위원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6	정문자	위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7	허식	위원	중앙대경제학부 교수
8	황필규	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9	진용한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사회공헌 팀장
10	정태길	당연직위원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6 사무국 현황

조직도 2013년 4월 30일 기준

- 상임이사 대행 : 이세중, 최종태
- 사무국장 : 정태길



재원운용위원회

류영재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부설 지속가능투자연구소장,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문성훈

(주)템피스트투자자문 부사장

윤천석

(주)천재교육 경영지원본부장 상무이사

편집위원회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대행)

조재국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의료원 원목실장

정태길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원장

최종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상임연구위원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대행)

연구위원

고형면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준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선희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허 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정태길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제갈재상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변철환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7

함께일하는재단 사옥과 사무국 직원들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센터
Social Venture Incubating Center



8 발간물 현황

정책연구원 총서

- 총서1 사회적기업, 새로운 세계 (2008)
- 총서2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2008)
- 총서3 경제사회 변동과 공동체 패러다임 (2011)



브리지 총서

- 1권 모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2011)
- 2권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금조달 매뉴얼 (2011)



브리지 플러스 총서

- 1권 청년 사회적 창업하기 (2012, 에이지21)



단행본

- 사회적기업을 디자인하라 (2009)
- 사회적기업 영역, 어디까지인가? (2011)
- 내 일을 부탁해 (2012, 청어람미디어)
- 일, 청년을 만나다 (2012, 서울특별시)
-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2009)
- 사회적기업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매뉴얼 (2009)
- 새로운 미래 사회적기업 (2008, 한겨레경제연구소)
- 사회적기업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05)
- 다른경제 (2005)
- 이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기업 (2004, 다우)
- 사회적기업 우수사례집 - 꿈을 꾸다 (2008, 노동부)



홍보 카탈로그

-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 《착한가게》(2008)
-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 《착한소비365》(2009)
-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 《착한소비365》(2010)



저널

- 사회적기업저널 제1권 제1호
- 사회적기업저널 제2권 제1호
- 사회적기업저널 제3권 제1호



메뉴얼

- 사회적기업 인증가이드북 (2012, 서울고용노동청)
- 사회적기업 가이드북 《희망의 미래 함께 가는 길》(2011,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인증가이드북 (2012, 서울특별시)



사진집

- 함께일하는사회 (2006)
- 함께일하는사회 (2008)



백서

- 실업극복국민운동백서 《아름다운 열정》(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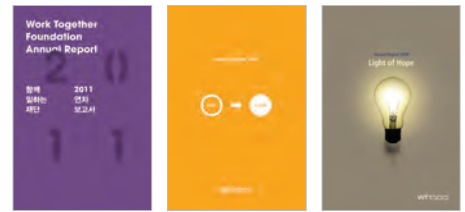
계간지

- 계간지 《함께 일하는 사회》 통권 1~18호
- 기부자 소식지 《함께+》 1~9호



연차보고서

- 2011년 연차보고서
- 2010년 연차보고서
- 2009년 연차보고서
- 2008년 연차보고서
- 2007년 연차보고서



WT Work Together Foundation

annual review 2007



Ten years of the Work Together Foundation

The founding year of 1997 brought with it a historical address of unemployment in South Korea. This unemployment addressed with just 100,000 people of jobs, but increased to 1.5 million.

To overcome this crisis, the press, religious circles, labor and civil society leaders together to found 'The National Movement Committee for Overcoming Unemployment'. The committee's activities have progressed and activities and the labor union's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he foundation is the result of the government was not able to change. It is a 43 million unemployed job growth to create the labor and society.

However, we are still experiencing unemployment that creates countless social problems (the poverty) and other social inequality.

To long gone with those problems, we became in 2000 the Work Together Foundation, supported by Ministry of Labor as a nonprofit foundation. We focus on creating a sustainable activity through our efforts to build an employment-friendly assistance system, develop more productive service social association for job creation, and improve the welfare system through training.

Now, we're planning our next ten years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the last ten.



2007 : A Job, the best welfare for one's life

The Work Together Foundation is developing a model for sustainable employment using low-income women heads-of-household, the women, the unemployed youth, unemployed youth, and women and other groups of people who cannot easily find a job. We are working to get and supporting social enterprises that can serve as an alternative employment model for employing the most vulnerable and creating basis for social enterprise that can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vil society.

Create jobs
We are working to help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women, low-income women, women, etc.
We are working to help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women, low-income women, women, etc.
We are working to help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women, low-income women, women, etc.

social team,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welfare provided through the press and the most vulnerable to employment. These social services that are of greatest benefit to the society.

Enhance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better business models.
The aim i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n proceed to providing professional and program education, training, to social issues and areas of business, to improve productivity-based employment and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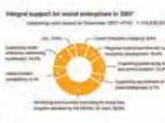
We are trying to improve socially-based employment into welfare in daily region throughout Korea. As a part of this effort, we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 network among local organizations to create employment-friendly environment.

Support on financial basis until December 2007 2007 2006 2005 11,342,000,000



Social Enterprise : An enterprise which does good for society while making a profit

Social Enterprise is an enterprise which does good for society while making a profit.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is increasing as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diversified along, society is aging,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left with disabilities is increasing.
The goal is to put our efforts into creating jobs to assist servic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in addition, we expect to meet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for realizing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 and human resources in 2008.
At the same time, we will encourage networking and networking program between professionals in related fields, we are interested in discussing social enterprises that have achieved and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the organizations in the field.



Working Together Society; we open the future together

The Work Together Foundation makes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supporting social participation and creating employment-friendly environment.

Task
- Create a sustainable society by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and developing an employment-friendly environment.

Focus
-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support to improve employment status for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Mission
- Create a sustainable society.
- Create a sustainable society by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and creating employment-friendly environment.
-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support to improve employment status for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Our mission is to build a welfare society of people who have shared jobs in gradually emerging across Europe, USA, and Asia including China, and Japan. We are trying to build and maintain a network for social enterprise throughout Asia.

Asian Social Enterprise Network
We create a network of Asian social enterprises that serve as a platform for the most vulnerable Asian people, especially:
- Asian Social Enterprise Network (ASEN) (Jan. 2005 - Dec. 2006) A network of 100 social enterprises in 10 Asian countries. This network is composed of social entrepreneurs in different disciplines and industries.



100% Social Investment: The Work Together Foundation maximizes the value of your donation

The Work Together Foundation invests all of your donations in doing so we maximize your supporting work.

100% Social Investment
100% Social Investment
100% Social Investment

All administrative expenses for supporting foundation are covered by the foundation.
A total of 100% of your donation is used for supporting foundation and social enterprise.
- All administrative expenses are covered by the foundation.
- Supporting work with social enterprise.

Direct Contribution to professional volunteering
The members of Oryon Club are all social welfare workers. They professional organizations consider an effective organization with the latest knowledge, technical skill, and know-how.
- Create the network of volunteering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with a strategy.

It is good to be a Oryon Club member, please contact the Work Together Foundation.
- Phone: 02-2600-0000 (ext. 222) or 222-0000 (ext. 222-0000) or 222-0000



2007 Financial Achievement

Financial Overview
The Work Together Foundation's financial performance in 2007 was excellent. This is the result of the strong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foundation,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the support of the public.

2007 Total Revenue: 11,342,000,000 KRW
2007 Total Expenses: 11,342,000,000 KRW
2007 Total Assets: 11,342,000,000 KRW
2007 Total Liabilities: 11,342,000,000 KRW

2007 Revenue
The Work Together Foundation's revenue in 2007 was 11,342,000,000 KRW.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2007 Expenses
The Work Together Foundation's expenses in 2007 were 11,342,000,000 KRW.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History

1997
대한민국의 실업률 10% 돌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됨

2000
노동부 지원으로 '국민운동위원회' 설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운동 전개

2003
국립인재개발원(현 한국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인재개발원' 설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운동 전개

2004
대한민국의 실업률 10% 돌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됨

2005
대한민국의 실업률 10% 돌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대두됨

www.worktogether.or.kr

브로슈어

- 2011년 브로슈어
- 2010년 브로슈어
- 2009년 브로슈어 (국문, 영문)
- 2008년 브로슈어 (국문, 영문)
- 2007년 브로슈어
- 2006년 브로슈어



사업보고서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2007~2008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2008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성과 보고서
- 2008~2009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2008~2009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2009 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결과보고서
- 2009~2010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2009~2010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열린포럼 결과보고서
- 2010 소셜벤처 경연대회 성과보고서
- 2012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G마켓 윤리적 소비촉진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의 첫번째 이야기 신나는 문화학교 1기 보고서
- 다시 옴트는 청춘, 전통문화 지도사 이야기
-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2010 성과보고서
-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2011 성과보고서
- 신나는 문화학교 2005, 2기 백서
- 신나는 문화학교 3기 사업백서
-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1차년도 사업보고서
-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2차년도 사업보고서
- 전통문화지도사, 어르신들에게 날개가 되다
- 제1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성과보고집(2009)
- 제2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성과보고집(2011)
- 제5회 G마켓 후원공모 Work together 성과보고서
-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평가보고서

연구보고서

- 2005년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연구보고서
- 2006년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례연구보고서
- 2007년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례보고서
- 2007년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연구보고서
- 강원 폐광지역의 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 관련 사회적 기업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고용위기와 기후변화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
-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업-NGO 협력방안
-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조사
- 문화예술인의 공공적인 일자리 탐구 :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도의 개선
- 사회적기업의 SROI 성과지표 개발과 자가진단 -최종보고서-
- 시민사회 내 분야별 녹색일자리 현황 조사 및 개선과제 연구
- 장기실업자 심층 추적 상담프로그램 및 실업해소방안 연구
- 중고령자 노동시장 이행의 특징과 NGO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
- 지역사회 경제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 한국 협동조합 섹터의 발전방향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2011.07)
-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발전 전략 (2010.12)
- 한국형 보조기구 비즈니스 접근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업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지원 연계방안과 실업극복국민재단의 기업참여형 사회적기업 기획창업 사례

자료집

- 2006 사회적일자리 자원재활용 기능교육
- 2007 신나는 문화학교 만들기 : 교안개발 연구자료집 두번째
- 2003 사회적기업 경영전문가 교육과정
- 2003 실업자지원센터 실무자워크샵
- 2004 사회적기업학교 사회적경제 강좌 자료집
- 2004 사회적기업학교 사회적경제 강좌 자료집 II
- 2005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민관공동연수
- 2005 전통문화지도사 교육교재 : 전통놀이
- 2005 전통문화지도사 교육교재 : 전래동화
- 2005 전통문화지도사 교육교재 : 전통예절
- 2005~2007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교육교재 모음 : 전래동화
- 2005~2007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교육교재 모음 : 국악놀이
- 2005~2007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교육교재 모음 : 전통예절
- 2006 전통문화지도사 교육교재 : 국악놀이
- 2006 제1차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샵
- 2006 제2차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샵
- 2006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사업 Workshop :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 2006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 2007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수행기관 평가
- 2007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수행기관: 11월 워크샵
- 2007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 2007 전통문화지도사 교육교재 : 국악놀이
- 2007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 2007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하반기 직무능력향상교육
- 2007 제1차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워크샵
- 2007 지원사업 선정기관 워크샵
- 2007 지원사업 설명회
- 200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돌봄서비스분야 워크숍
- 200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외식, 급식분야 지역탐방 교육
- 200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환경 재활용분야 워크숍
- 200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교육
- 2008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1차 간담회
- 2008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2차 간담회
- 2008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
- 200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참여기관 상반기 직무능력향상교육
- 200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참여기관 하반기 직무능력향상교육
- 2008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사업 수행기관 평가
- 2008 사회적기업 허브구축사업 1차 간담회
- 2008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
- 2008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비전워크숍
- 2008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직무 가이드
- 2008 제2차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워크샵
- 2008 충청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
- 2008 사회적기업 인증 입문교실
- 2008 제10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2008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기관 운영 안내서
- 2009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 사전설명회 자료집
- 2009 보조기구 공모전 :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아이디어
- 2009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
- 2009 소셜벤처 경연대회 서울강원권역대회 사전설명회 자료집
- 2009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 1차 멘토링 워크샵
- 2009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 사전설명회 자료집
- 2009 소셜벤처전국경연대회 최종결선대회 : 착한아이디어에 날개를 달다
- 2009 캐나다, 미국동부 사회적기업가날개달아주기 기획연수 사전자료집
- 2009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지원사업 워크숍
- 2009 지원사업 수행안내 :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간병사업
- 2010 소셜벤처 경연대회 서울강원권역대회 사전설명회 자료집
- 2010 싱가포르 노인 일자리/사회참여 사업기관 및 지원체계 탐방
- 2010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사업 PT자료
- 201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vision workshop : vision을 디자인 하라
- 2012 예비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워크숍 =Business Model Canvas Workshop
- 2012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오리엔테이션
- (예비) 사회적기업 전산회계 실무
-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세무 아카데미
- (예비) 사회적기업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 회계실무 보수교육
- 정부기관 조달전략 특강 사회적기업의 정부기관 판로 촉진전략과 기법
- 재기 행복나눔 외식경영 아카데미 과정 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워크북
- 제5기 SENM 완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KAIST 비즈니스 스쿨
- 2007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하반기 직무능력향상교육
- 20대 사회적기업가, 청년실업 버퍼를 만든다 :20대 문제를 사회적기업의 미션으로
- ASES Magazine : 참가기업 및 단체안내
- LH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 1차 통합 워크숍
- Report Asian : social entrepreneurs summit
- SELF ASIA WITH ASES 2012 =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 공동포럼 2012
- SK성장보고서 공모전 수상작품집 : 2010 소셜벤처 경연대회
- The 2nd Asian Social Entrepreneurs Summit Report 2010 = 제2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2010

- 강원 폐광지역 에너지 간담회
- 결혼 이주 가정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
- 고령친화분야 사회적기업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 자료집
- 광역사업 평가 자료집 : 2004년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업무매뉴얼(2009년 3월)
- 근로빈곤층 여성 가장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토론회 :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삶과 노동실태 분석을 통해 본 탈빈곤방안 연구
-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 2009 토론회 자료집
-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 돌봄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 :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 3국의 사회법 및 복지정책 변화 = Changes of Social Security Law and Welfare Policy in 3 East Asian Countries
-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육성과 협력을 위한 설명회 (2008.12.5)
- 문화예술 사회적일자리 토론회 : 문화기부권과 문화예술서비스 수요확대 방안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을 꿈꾸다 : 2008 문화예술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자료집
- 발효식생활지도사 과정
-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 기업발전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2008.11.30)
- 사회적 기업의 이해
- 사회적기업 개요집 =Social enterprise
- 사회적기업 인증 및 법인 설립 매뉴얼 (2008.12)
- 사회적기업 인증교육 및 탐방
- 사회적기업 인증입문교실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표준교과목 안내 : 통합과정용 (2008.7)
- 사회적기업설립운영지원을 위한 uGET 사업지원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센터 · 반티에이브리업 출장
-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함께일하는재단 창립8주년 기념 토론회
-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2009년 3월 30일)
-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창구 상담사 교육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자료집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기업참여 방안 : 기업사회공헌세미나 자료집
- 세상을 바꾸는 13가지 프로젝트 = Creative Social Movement
- 세상을 변화시킬 소셜벤처,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자! : 2011 제3회 소셜벤처 서울강원권역 경연대회
- 신나는 문화학교 만들기 : 교안개발 연구자료집
-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정책토론회
- 실업극복국민운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 실업활동가 리더십개발 훈련 자료집
- 실직빈곤가정 위기상담 교육 자료집 (2003년 12월)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1주년 평가대회 정책토론회(2008년 3월)
-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 워크북 = WORK BOOK
- 장애인분야 사회적기업 유형별 사례 분석 ; 장애인분야 사회적아카데미 워크숍
- 정책연구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 제11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적기업-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제12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지역개발과 사회적기업-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 제13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 특강-가보지 않은 미래를 다녀오다
- 제17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2009 해외연수 지원사업 결과보고
- 제18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민간재단의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의 자산운용 방안
- 제19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SROI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과 사회보고서 작성
- 제22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2010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지원사업 보고대회
- 제23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혁신적 비즈니스 솔루션, 브랜드가 되는 '기부Donation' -일본 'Table for two' 대표 마사 코구레 초청 포럼
- 제2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제2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
- 제3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제4차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 시민사회 합동 워크숍
-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심포지움 :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 지역고용과 사회적기업 :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4주년 기념 토론회
- 지자체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 교육
- 지자체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를 위한 특강 (2008.9)
- 체인지 메이커 : 변화를 닦은 사람들
- 표준위생매뉴얼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2006.6)
- 프랑스 실업 운동가 로베르 크레미유 초청 토론회
- 한·일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 한·일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행복충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 한일청년문제NPO단체교류사업 강연회 및 분과회
-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2012.4.5)
- 함께일하는재단 해외협력사업 Smile Together 2011 전문가자문회의
- 함께일하는재단 해외협력사업 수행 가이드=WT general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 협동조합 관련 재단의 역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 희망의 인생 2막을 위한 준비 : '국악놀이' 보수교육 교재
- 희망의 인생 2막을 위한 준비 : 전래동화 보수교육교재

2003

- 0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03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창립총회
(정관 제정 및 이사회 구성, 초대 이사장 강원웅)(2003.3.27)
- 04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해산 및 잔여사업성금 새 재단법인 출연 결의
(2003.4.1)
- 06 공익법인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설립
노동부 법인설립 인가 및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공식출범
(2003.6.23)
- 09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개시
- 10 청년실업 채용박람회 개최(노동부, 문화방송, 한겨레신문사 공동 진행)

2004

- 03 KTV,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기부, 함께 일하는 사회' 진행
- 04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사업 개시
신나는 문화학교 사업 개시
- 05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 출범(32개 시민사회단체연합 참여)
- 12 MBC, 희망기금 기부 릴레이 캠페인 '실업극복 희망을 추천합니다'

2005

- 01 자유공모사업 지원(16개 단체)
실업자 민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26개 단체)
- 08 삼성,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개시

2006

- 02 SK 결식이웃지원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 개시(중구 1호점 개소)
- 03 포스코 사랑나눔 무료재가 간병사업 협약식
- 05 계간지 '함께 일하는 사회' 창간호 발간, 재단 정책연구원 개원
- 07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 '희망창' 개소
- 11 재단 창립 3주년 기념 행사(토론회, 심포지엄)
- 12 SK, 1기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강

2007

- 04 보건복지부 위탁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개시
(보건복지부, 4개 단체 컨소시엄)
- 05 고용친화적 지역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지역개발금고 사업 개시
- 06 정책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개최
사회적기업 지역허브구축사업 개시
- 09 2007 피터드러커 혁신상 시상식 사회혁신상 수상
- 10 SK,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개시

2008

- 01 2007 우수 사회적기업 시상식 개최
(노동부, 교보생명, 삼성, SKT, 현대자동차 후원)
SK, '사회적기업가 날개달아주기' 해외연수 프로젝트 개시
- 06 제5회 G마켓 후원공모 'Work Together' 공동주최
- 08 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총괄(전국 18개 기관)
- 09 '재)함께일하는재단'으로 명칭 변경
- 10 2008 사회적기업 육성 국무총리상 수상
제1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2008) 개최

2009

- 01 문화재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개시
- 03 하이원리조트,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협약
경원대와 사회적기업 학과 개설 업무 협약
경향신문 사회적기업 공동연중기획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연재
- 04 SBS희망TV '대한민국이 떴다' 모금생방송
- 05 아시아경제신문 사회적기업 캠페인 공동 진행
- 07 신한은행, 사회적기업을 위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사업
윤리적 소비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G마켓)
번역전문자원활동가모임 '브리지' 발족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강
- 10 SBS희망TV '밥 한끼의 사랑' -교보생명 다솜이 나눔 페스티벌 진행
SBS희망TV 하반기 모금생방송
- 11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총괄
서태지 매니아 기빙서클 기부 협약
- 12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개소(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
한전KPS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협약

2010

- 01 KB와 함께하는 청소년 꿈터사업 1기 지원사업 개시
- 04 2010 SBS희망TV 상반기 모금생방송 참가
- 07 LH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지원사업 협약
- 08 BAT코리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협약 체결
- 09 LH 임대단지 공부방 설립지원사업 개시
2010 SBS희망TV 하반기 모금생방송 참가
- 10 정책연구원 4주년 기념 토론회 '지역고용과 사회적기업' 개최
- 11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비전워크숍 개최
제2회 아시아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2010)개최
- 12 2010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공동 주관
현대홈쇼핑, 사회적기업 유통지원사업 협약

2011

- 01 KB와 함께하는 청소년 꿈터사업 2기 지원사업 개시
- 04 LG전자, LG전자노동조합, 녹색성장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기금전달식
- 05 캄보디아 씨엠립 로터스희망미용센터 설립
- 06 소셜벤처인큐베이팅 양천센터 개소
- 07 재단창립8주년 기념행사 개최, 필리핀 타워빌 '캠프봉제센터' 설립
제3회 소셜벤처 서울/강원권역 경연대회 개최
- 09 일본 반반근서로돕기네트워크 초청 토크쇼 개최
-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 모금 '청년에게 희망을' 협약 체결
- 11 희망TV SBS 'Hope of Africa' 모금 생방송 참가
- 12 제1회 SBS희망내일나눔대상 NGO 참여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주), 에코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2012

- 03 한화 친환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협약 체결
- 05 릴레이 강연회 <내일을 부탁해> 개최(총4회)
- 0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북도청, 2012 SELF Asia with ASES 개최
- 07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09 협동조합워크숍 개최(총 5강)
상생-대기업,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10 강북삼성병원, 사회적기업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협약 체결

교육문화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최
협동조합 관련 재단의 역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11 효성그룹, 청년 소셜벤처 성장지원 프로그램 기금 전달식 개최
G마켓 대학생 등록금 지원 캠페인 개시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 개최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2 한국전력, 행복충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기금 전달식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중간평가 및 보고회 개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원 단체 가입

2013

- 01 유한킴벌리, 2013 시니어 기금 협약 및 (예비)사회적기업, 소기업 지원개시
- 02 한화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공감토크(컨퍼런스)
"함께 멀리" 개최
- 03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더 편리한 생활용품 공모사업 개시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원 파견 모집 개시

10

함께 일하는 재단의 10년을 함께한 사람들

역대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이사장

故강원용(크리스천아카데미 이사장(전), 평화포럼 이사장(전))

송월주(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전))

이사진

강영훈(국무총리(전), 제13대 국회의원) **고광현**(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전)) **고희범**(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전))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우겸**(한국전력공사 부사장(전)) **김재철**(문화방송 대표이사(전))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전))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전), 19대 국회의원)

문국현(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18대 국회의원) **박인구**(동원그룹 부회장) **박한용**(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서형수(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전)) **성한표**(한겨레신문사 부사장(전)) **안재웅**(다솜이재단 이사장)

양상우(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엄기영**(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전)) **윤석만**(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전))

은방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전)) **이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전)) **이광택**(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노동사회법학회부회장)

이궁희(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전)) **이우희**(에스텍시스템 부회장) **이세중**(환경재단 이사장, 대한변협 회장(전))

전팔근(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 의장(전), 원광대 명예교수) **정태기**(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전)) **조인국**(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진동수(금융위원회 위원장(전)) **최기산**(천주교 인천교구장) **최문순**(문화방송 대표이사(전))

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감사진

강지원(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전), 변호사) **이경우**(법무법인(유)한결한울대표변호사,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이정희(공인회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

역대 운영위원회 위원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강익구**(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김용철**(문화방송 전무이사)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김종각**(한국노총 정책기획실장)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노혁진**(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

박태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성정현**(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경숙**(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 **신명호**(도시연구소 부소장)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안택호**(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 **오귀환**(인터넷한겨레 상임고문) **이광택**(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민우**(한국노총 기획정책실장) **이수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고용안정센터 소장) **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정대순**(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조복행(문화방송 글로벌사업본부장) **조영복**(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준모**(숭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진용한**(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인규**(전북 실업자종합지원센터장) **최진섭**(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 **허식**(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황주석**(YMCA 전국연맹 대외협력국장) **황필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 역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재직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역대 정책연구위원

강희원(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희면(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준철(델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문),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태주(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전문원 교수), 변철환(함께일하는재단 책임연구원),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웅(다솜이재단 이사장), 엄형식(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위원(전)), 이광택(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세중(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이은애(서울시사회적경제개발센터 센터장),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흥직(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중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장흥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선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정태길(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제갈재상(함께일하는재단 수석연구원), 최종태(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허식(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현미(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기돈(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원)

역대 직원

사무국

강 윤, 강하늘, 고미선, 고영철, 고은진, 공은주, 곽자경, 권영태, 권현경, 금민정, 김귀자, 김규성, 김나연, 김당환, 김대경, 김명진, 김선영, 김설경, 김성태, 김수현, 김수희, 김영석, 김종남, 김종수, 김종현, 김주영, 김지희, 김창주, 김태인, 김학석, 김현미, 김현정, 김형주, 김혜영, 나현윤, 명경화, 문서연, 문현주, 문 혈, 민세희, 박성철, 박성희, 박수미, 박영민, 박우영, 박윤미, 박정화, 박지영, 박지현, 박진완, 박진완, 박현옥, 박혜영, 배사은, 백순정, 서유경, 서일화, 서주미, 성지아, 손가연, 손고은, 송소연, 송아영, 신혜영, 신희정, 심재근, 양새싹, 양소영, 양으뜸, 엄인숙, 오상석, 우순영, 유가향, 유연성, 유연정, 유지민, 윤광용, 윤여정, 윤희선, 음은영, 이고운, 이명희, 이명희, 이민정, 이 술, 이신원, 이양주, 이영남, 이우재, 이은애, 이은주, 이은진, 이종선, 이진화, 이창환, 이하정, 이현정, 이혜심, 장경아, 장동열, 장미정, 장영은, 장인옥, 전미아, 전소연, 정구철, 정도영, 정범모, 정상용, 정상훈, 정수영, 정유진, 정지현, 정태길, 조미연, 조민제, 조세훈, 조 연, 조이순, 조하나, 지은주, 진 옥, 창기정, 채혜영, 최관목, 최서윤, 최우현, 하정은, 한정임, 한호연, 하니윤, 황정란

정책연구원

박소영, 박윤정, 변철환, 이공순, 이정봉, 이정현, 제갈재상, 홍원표

내마을형사회적기업설립지원단

김현하, 김민서, 김영남, 남호근, 윤석정, 이나연, 조대연, 조현아, 지현정, 진형우, 최 준

문화재사업단

김명은, 김세정, 김지혜, 김혜리, 성혜선, 손용진, 양현모, 우선미, 이동범, 이용재, 이철재, 조연주, 차지은, 홍정현

결식이웃지원단

강계순, 강영혜, 김명륜, 김미경, 김선미, 김영이, 김옥순, 김지수, 박기복, 박용석, 박울심, 배주영, 신혜경, 용운철, 윤일형, 윤주일, 이선화(법인), 이선화(센터), 전수현, 조인선, 최효길, 하소희, 한명섭, 함옥미

아동복지지원센터

김근정, 김연정, 노연희, 박정남, 양인선, 임흥기, 차 준, 천진욱

포스코 재가간병서비스 사업단

변재숙 외 33명

교보 다솜이 간병사업단

박정희, 유재호, 송민정, 박필선, 배정은 외 375명

신재생에너지사업단

김민수, 이용준, 이정열

함께일하는재단 1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 이세중 상임이사(대행)

편찬위원 : 이광택 이사

이정희 감사

김정열 운영위원

편찬후기

보람과 아쉬움의 1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면서

실업의 아픔을 겪거나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지나간 10년을 되돌아보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실업사태와 기업의 구조조정문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숙제를 남겨주었다. 고용과 실업문제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 기업 및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변화무쌍한 경제동향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고용의 안정과 취업의 증가는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의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속에서 우리 재단의 존재의미와 공익적 역할을 올바르게 실현해야 하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용불안과 극심한 취업경쟁 속에서 밀려난 노동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언제나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희망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층에 대한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힘차게 사회로 첫발을 딛는 젊은 층들이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할 때 그들의 좌절감은 어떠할까?

우리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실업의 극복과 일자리 지원은 우리 재단의 기본 목표이며 지난 10년간



10년사 편찬위원장 이세중

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한 흔적을 10년사를 통하여 엿 볼 수 있다. 재단은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기 이전단계부터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올렸다. 자유공모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였고,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부금 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창업을 지원하였다.

이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활성화한 것은 우리 재단의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계속하는 업무가 재단의 주요사업이 되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인증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내세울 만한 업적에 속한다. 또 노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통문화지도사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인큐베이팅사업, 청년문화사업, LH와 함께 한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도 일자리 창출모델로 보람있는 사업이었다. 그 밖에도 동남아지역의 빈곤국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마일투게더” 사업은 국제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떠오른다. 창업지원 사업이 좀 더 적극적인 단계로 올라서지 못한 점과 대부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 그리고 직원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10년사의 발간이 재단 내부의 사정으로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어 예상보다 늦어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10년은 이제까지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개선 보완하여 좀 더 보람찬 재단의 미래를 창조하기를 다짐해야 한다. 그동안 10년사의 편찬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광택 이사, 이정희 감사, 김정열 운영위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자료정리와 기획을 맡아 수고한 하정은, 김창주, 라현운 팀장과 편집 작업을 도와주신 박주양 대표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일자리

일자리로 만드는 세상

찍은 날 2013년 4월 30일

펴낸 날 2013년 4월 30일

지은이 (재)함께일하는재단

펴낸이 송월주 이사장

펴낸곳 (재)함께일하는재단

총괄 및 감수 10년사 편찬위원회(이세중, 이광택, 이정희, 김정열)

기획 정태길 사무국장

진행 하정은 팀장, 라현윤 팀장, 김창주 팀장

집필 에이앤씨(박주양, 양지송) 02-508-3444

편집 e포럼 053-744-8416

인쇄 우리정밀인쇄사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함께일하는재단

연락처 02-330-0701

홈페이지 www.hamkke.org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3014460



비매품



9 788994 505114

ISBN 978-89-94505-11-4